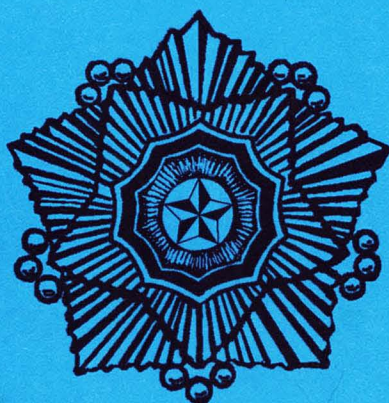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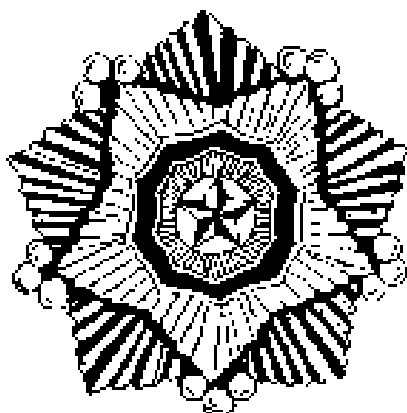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조선문학



11

주체91(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11호

(루계 제 661 호)

◆◆◆◆◆◆◆◆◆◆ 차 례 ◆◆◆◆◆◆◆◆◆◆

주체문학의 새싹들을 키워 온 20 년.....	4
후치령이 전하는 이야기	5
우리 님	6
만세의 환호성	8
장군님의 추억	9
가을이여	10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빛내신 위인의 빛나는 형상	11
백!	16
지식	17
전사의 길	18
장군님과 봄	28
수령님추억속에(1).....	29
입당청원서	29
그리움의 북두칠성	30
명언해설	31
수령님 추억속에(2).....	32

우리는 낮 선 사이가 아니다	32
영원한 삶의 노래	33
하늘이 뜨겁다	42
내 노래는 한곡조(외 2 편).....	43
생활의 바다속에서	44
장수복을 노래하네	56
바다와 소년	57
비 뚫은 새벽에	57
제비	58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세계인재문제	67
아, 모교여	68
아프리카녀성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아싸 제발.....	68
석당교우에서.....	69
비수	70
형상의 진실성과 기교.....	71
어머니모습	73
죽송	74
고을아전	75
아이를 키우며	75
미술전람회	76
하늘의 높이와 지구의 두께	80

주체문학의 새싹들을 키워 온 20년

차디찬 눈속에서 봄을 마중하여 움 터난 새싹들이 계절의 흐름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게 되는것은 자연의 당연한 리치이다.

그러나 새싹들이 땅에 뿌리를 박는다고 하여 저절로 자라는것은 아니다.

새싹!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푸르싱싱 자라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향기를 풍기게 하기까지에는 원예사의 정성이 남달리 지극해야 한다.

하물며 복잡다양한 생활의 드넓은 대지에 뿌리박은 우리 문학의 새싹들이 자라 주체문학의 서정을 꽃 피워 풍성한 열매를 가꾸어 하나의 거목—주체문학을 살찌우는데 밀거름이 되고 있는것은 자량이 아닐수 없다. 주체문학의 년륜을 돌이켜 볼수록 더우기 새 세기에 들어와 제2차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를 앞둔 우리 작가들의 가슴은 뜨거움에 축축히 젖어 든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사업의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문학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를 마련해 주시고 회의참가자들에게 귀중한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시었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고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선구자이며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서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에는 주체문학예술의 사명과 역할에 관한 문제,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문제, 문학통신원들의 지위와 역할, 책임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군중문학창작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문학예술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하시여 주체문학예술앞에 나선 방대한 과제를 풀기 위한 열쇠를 바로 문학예술의 대중화에서 찾으시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과학적방법론을 새롭게 밝히시었다.

하여 이 력사적서한은 우리 문학예술이 명실공히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적인 참다운 문학예술로서 의 자기 면모를 뚜렷이 하게 하였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높은 사상의식과 문화적소양, 예술적자질을 소유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준비되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통신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시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해 주신것은 문학통신원들이 지니고 있는 군중문학예술발전의 거대한 잠재력과 무한대한 견인력에 대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방침으로 된다.

이것은 오직 우리 문학예술의 새싹, 신진력량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해결하실수 있고 베푸실수 있는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지난 기간 문학통신원들의 스스로의 창작적열성과 적극적활동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군중문학창작은 보다 더 활기를 띠고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세월의 년륜속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우리 군중문학의 20년, 그 기간 우리 문학은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얼마나 많은 새싹들을 소중히 안아키워 왔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창작활동을 벌리면서 군중속에 묻혀 있는 어린 새싹들을 찾아 내어 재능 있는 작가로 키워 내기 위해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작가후비들을 훌륭히 키워 냈다.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단기창작강습,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과 그 평가사업 등 다양한 문학예술의 대중화활동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 시초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중편소설 《첫 교원》, 단편소설 《취재길에서 만난 녀인》, 《땅과 말하는 처녀》를 비롯한 《6월4일문학상》작품들이 수많이 나왔다. 이 작품들은 문학통신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을 심장깊이 새기고 자기 생활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사회적문제성을 종자로 찾아 쥐고 창작한 문학작품들이다. 작품에 반영된 생활감정이 진실하고 성격이 개성적이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참신한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의 새싹들이 가꾼 열매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체문학건설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학의 새싹들이 오늘날에 주체문학건설의 직접적담당자로서 관록 있는 작가들과

어깨를 겨루며 강성대국건설을 고무추동하는 창작활동을 벌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장군님의 력사적서한에서 제시한 과업들이 얼마나 정당하며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된다.

이 땅 그 어디 가든 문학필봉을 높이 든 주체문학의 새싹, 미래의 주인공들을 볼수 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훌륭한 창작조건을 보장 받으며 마음껏 창작의 나래를 펴고 있다.

주체문학의 화원을 꽃 피우자면 주체문학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들이 현실생활속에서 정치적식견과 예술적기량을 부단히 련마하여 완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으로 시대와 인민대중이 요구하

는 참신하고 개성적인 작품,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후비육성사업은 주체문학의 대를 어떻게 잇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자기 작품창작과 함께 작가후비를 키우는것도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라는것을 명심하고 문학통신원들을 맡아 선군혁명문학의 미더운 후비대로 훌륭히 키워내야 할것이다.

주체문학의 새싹들을 키워 온 20년이 보여 주듯이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으며 우리 문학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 내린 새싹들은 오늘 무성한 아지를 펼치며 거목으로 억세게 자라고 있다.

답시

후치령이 전하는 이야기

박태화

새들도 날아 넘다
죽지를 접었다는
후치령, 후치령
구름도 걸터 앉아
한숨 돌려 쉬었다는
후치령 후치령

나라를 빼앗긴
억 막힌 설음들이
피눈물을 이고 지고
많이도 오르내린
아득한 이 고개

눈물 젖은 령길우에
이 어인 웃음인가
령을 뚫아 오르는
한대의 승자동차
물방으로 쏟아 지는 웃음소리에
후치령도 놀라 움썹거리오

파발리총성을 뒤에 남기고
감쪽같이 사라지던
조선혁명군 첫 무장소조
왜놈의 주구가 탄 승합차 뺏어 타고
날개가 돋힌마냥
후치령을 훨훨 날아 오르는중이라오

승합차 뒤좌석엔
어깨를 움츠리고
살려 달라 애걸하는
풍산경찰서 사법계주임
그놈앞엔 들은동마는둥

흐뭇한 눈길로 산천을 굽어 보시는
김형권선생님 앉아 계셔라

파발리의 《오빠시》를 처단한 소식
선생님 통쾌하게 들려 주시자
낮색이 창백해 진 사법계주임놈
경련일듯 입술마저 부르르 떠다
살자니 겨우 고안해 낸 《피》
—마땅히 죽어야 할 놈입지요
저에게도 술한 빛을 남기고 갔습죠 네, 네

비굴한 주구의 꼴에
무장소조원들 배를 쥐고 웃음보 터치는데
김형권선생님 짐짓 정색하여 건넌시는 말
—빛이라... 빛이야 무조건 받아야지
저승에 따라 가서라도 받아 내야 하구 말구
—네, 네, 아니? 그럼 저두?...

또다시 터쳐 지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 호탕한 웃음소리에
승합차가 떠나갈듯 들썹거리고
후치령이 움썹대며 잠을 깨었소
사시나무 떨듯
왜놈세상이 부르르 몸을 떨었소

오, 후치령 후치령
김형권선생님 승리의 웃음소리
오늘도 굽이마다 칭칭 감았소
그날의 승합차를 세월이 몰아 가며
통패한 그 사연을
만대에 전해 가오

우리 님

홍철진

두만강이 출렁인다.

력사의 강, 8월의 두만강이 세차게 출렁인다.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존엄 높은 강으로 이 땅을 품어 안고 유유히 흐르는 이 나라 북변의 장강 두만강!

인류의 자주위업행렬차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시며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대경륜을 안아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가 두만강 푸른 물에 그대로 비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입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앞으로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할것입니다. 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탁월하기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5만여리 대장정으로 세계를 뚫게 하시고 뜻 깊은 올해에는 또다시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에 대한 7천여리 장정으로 지구를 들었다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이 어느분에 의해 세상에 높이 펼쳐 지는가를 두만강은 력사의 증견자로 똑똑히 보았다.

님 잃은 배사공의 노래 구슬프던 두만강, 그러나 어제날의 피눈물은 흘러 가고 기쁨과 환희만이 떠 있는 이 두만강이 바로 오늘날 우리 조국의 모습이다.

피눈물은 흘러 갔어도 우리는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래를 잊지 못한다. 님을 애 타게 찾고 부르던 우리 조국의 수난 많은 력사이기에...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배사공

흘러 간 그 옛날에 내 님을 믿고

떠나던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님이 없는 나루배, 삐걱거리던 임자 없는 그 나루배가 바로 지난 날 우리 조국이었고 피눈물에 노를 박고 시름겹게 저어 가던 그 배사공이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었다.

님 찾아, 조선을 품어 줄 님 찾아 눈물의 아리랑고개 얼마나 많이도 님은 우리 백의민족이던가.

피 흘려 쓰러지면서도 님을 찾았고 기약할수 없는 낮 선 땅으로 떠나가면서도 눈물속에 뒤돌아 보며 우리 님을 찾고 또 찾은 인민.

하늘에서 내려 오라 싶어 무심한 하늘을 향해

소리쳐 찾아도 보았고 이 세상 어느 끝에 있는가 싶어 무정한 땅을 두드리며 안타까이 불러도 보았다. 그 누구보다 몸부림치며 뒤흔들었던 우리 작가들이었다.

하늘과 땅이 맞붙은 곳으로 세상을 뒤지며 님을 찾아 헤맸고 초불같이 타들어 가는 생명이라면 캄캄한 세상에서 님을 찾아 밝히는 초롱불이라도 되고저 했다. 어두운 세상은 우리 작가들을 사정없이 차고 때리고 피투성이로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시대의 불운아들은 붓대를 지팡이처럼 짚고 일어나 다시 노래를 불렀다.

력사는 붓대를 꺾은 세상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도 꺾지 못한 그 붓대를 작가들은 제 손으로 꺾었다. 자기들의 피를 쏟아 그 아무리 붓글에 찍어 보아도 눈물 없는 내 나라, 님이 웃는 내 나라는 찾아 오지 않았다.

목이 쉬도록 부른 노래는 허공중에 산산이 부서졌고 찬바람 부는 산언덕의 진달래처럼 점점이 흩날려 버렸다.

붓대를 꺾고 통탄해 가슴 찢던 한 작가의 목소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세상이 날 외면하느뇨, 내가 세상을 외면하느뇨, 내가 붓을 꺾었느뇨, 붓이 나를 꺾었느뇨... 아, 봄은 대관절 어느 길로 오려느냐...》

님이 없는 내 나라엔 봄이 와도 그것은 빼앗긴 봄이었고 집이 있어도 그것은 대문 없는 집, 주인 없는 집이었다.

바다건너 섬나라 오랑캐들이 백주에 이 땅을 타고 앉아 제 마음대로 칼탕칠 때도 지켜 줄 님이 없으니 설움에 울기만 했던 우리 민족.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도는 신세에 동서남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찬이슬 젖은 잔디에서 쓰러져 울던 그 집 없는 《천사》가 다름아닌 님 없는 내 나라의 불쌍한 우리 인민이었다.

선조의 무덤이 있고 태를 묻은 고향이 있는 정든 땅이건만 정처없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나그네의 설움을 두만강은 낮에 이어 밤에도 끝없이 실어 갔다.

두만강도 울었고 강물에 비끼는 달도 함께 울었다.

강물도 달밤이면 목 메여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 메이는 애달픈 하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망국의 설움으로 가득찬 어제날 두만강의 노래

는 오늘날 추억의 감정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주었다.

님 없는 설움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력사의 진리로 사무치게 깨우쳐 주며...

추억의 옛 노래를 누구보다 아프게 들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에서 울리던 《눈물 젖은 두만강》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아마도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하셨으리라.

우리 조선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오늘도 저 《눈물 젖은 두만강》노래를 부르며 정처없이 떠나가는 나그네신세가 될지 누가 알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고향 만경대를 떠나 광복의 개선문으로 들어 서시기까지 우리 수령님고 헤치신 사선의 고비와 혈전의 언덕들은 그 얼마였던가.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조선의 님을 맞이한 민족의 행운은 반만년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거족적인 사변이였다.

며칠후면 두만강을 건너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에 대한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깊이도 자리 잡은 《눈물 젖은 두만강》, 그것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의 력사였다.

지난해 로씨야련방에 대한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여 두만강을 건느실 때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였다.

피눈물과 설음만이 떠돌던 어제날 그 두만강에 민족의 존엄을 싣고 세상에 시위하며 건느시니 어찌 우리 장군님추억속에 어제날의 두만강노래가 생각나지 않으시랴.

장군님의 추억도 깊었지만 우리 인민의 추억도 깊었다.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오늘처럼 비상히 높아 지기까지 위대한 장군님 헤쳐 오신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한다.

얼마나 준엄한 날이 이 땅에 흘렀으며 얼마나 험난한 길을 우리 걸어 왔던가.

뜻밖에 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에 잠겼던 우리 조국에 고난의 찬바람은 또 얼마나 모질게 불어 왔던가. 공장들이 멎어 섰고 발전소들이 숨을 거두었으며 풍요한 나락으로 설레던 협동벌이 재난으로 허덕였다.

힘들게 숨을 몰아 쉬는 우리 조국에 비렬한 제국주의자들은 고립과 압살의 울가미를 더 바싹 조여 매며 미친듯이 날뛰었다.

악랄한 경제봉쇄, 끈질긴 군사적압력...

우리 조국이 다시 일어 서리라고 생각한 나라는 세계에 그 어느 나라도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선의 운명은 시간문제라고 호언장담했다.

이대로 앉아서 쓰러진다면 우리 인민은 또다시 《눈물 젖은 두만강》노래를 부르며 님 잃고 방황하는 류랑민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지

켜 오신 붉은기가 있고 그 기발을 억세게 틀어 잡고 계시는 위대한 백두령장이 계시였다.

수령님의 위업을 총대로 완수할 결사의 각오를 지니시고 백두산의 영웅남아는 장엄한 선군혁명의 포성으로 결연히 나서시였다.

총대우에 당도 있었고 국가도 있었고 인민도 있었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이 이때부터 이 나라의 산과 들에 굽이굽이 뻗어 갔다.

다박술초소로부터 시작된 선군혁명천만리길에서 우리 인민은 생사기로운 놓였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어느분에 의해 지켜 지는가를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수령과 총대! 뻔해야 뻔수 없는 불가분리적인 이 관계는 조선혁명이 증명한 력사의 진리였다.

조선의 위대한 님으로 우리 인민이 맞이만 우리 수령님은 총대로 백두산을 주름 잡던 그 이름도 빛나는 빨찌산대장이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을 손에 드시고 도탄에 빠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필사의 각오를 엄숙히 다지셨던 우리 수령님의 강인한 모습에서 우리는 총대로 시작된 조선혁명의 력사를 보았다.

그 근엄하신 영상은 우리 장군님께 그대로 옮겨졌다.

세상사가 알지 못하는 최악의 고난을 총대로 물리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이 땅에 창조와 기적의 영웅서사시를 수 놓아 오시였다.

금시 불을 뿜을듯 한 백두산장군의 총대앞에 제국주의자들은 기절초풍했고 고립과 압살의 장벽들은 물 먹은 담벽처럼 허물어 저 내렸다.

백두산총대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 인민과 제일가는 혁명동지가 되였다.

총대를 억세게 틀어 쥐니 발전소도 새로 일떠섰고 공장들도 기운차게 돌아 갔으며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총대를 으스러지게 틀어 쥐니 닭공장, 메기공장들이 줄 지어 일떠섰고 5천년이 알지 못하는 토지정리의 새 력사도 창조되였다.

백두산총대는 이 땅에 살기 좋은 무릉도원을 안아 왔다. 고난을 이겨 내고 우리 인민모두가 승리자가 된 오늘날 우리의 심장을 새삼스레 두드리는것은 총대를 앞세워 선군의 길을 걸어 온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 하는 가슴치는 생각이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정이다.

절세의 영웅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정치실력앞에 세계는 또다시 경탄을 금치 못했다.

령토가 크고 인구가 많아 큰 나라가 아님을 세계는 똑똑히 보았다.

우리 장군님의 권위, 장군님을 모신 우리 조국의 존엄이 얼마나 높은가를 장군님 단행하신 5만여리 장정과 7천여리 장정이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어제날 두만강의 배사공이 오늘의 이 벽찬 현

실을 목격하였다면 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으리.

어두운 세상에서 꺾이운 붓대와 함께 묻혀 버린 그날의 작가들이 오늘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에 겨워 울며 웃으며 소리칠것인가.

아마 두만강물에 붓을 적시고 두만강물이 다 마르도록 그토록 갈망하던 님의 노래를 지으리라.

오늘날 벽찬 시대에 벽찬 현실을 시시각각 온몸으로 접하며 위인찬가를 짓는 우리 작가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은 수령을 잘 만난 조선의 행운이다.

그것도 한 세기에 두분의 위대한 태양을 맞이했으니 우리 인민은 복중에도 가장 큰 복을 타고난 인민이다.

20세기 행운을 21세기로 줄기차게 이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 장군님의 자리길을 따라 돌고있다.

거대한 자석과도 같이 세계를 끌어 당기시는 장군님의 견인력!

우리 장군님을 한번 만나뵈은 사람은 대번에

그 품위가 올라 가고 우리 장군님을 한번 모신 나라와 그 지역은 세상에 유명썩하게 알려 지는 21세기 세계정치흐름.

이번에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을 통하여 세계는 그것을 다시한번 확신했다.

장군님의 로씨야방문 원동지역방문 7천여리 로정을 온 세계가 뚫으며 장군님을 따라 나섰다.

그야말로 장군님 옮기시는 걸음걸음은 세계의 관심사였다.

이제는 우리 님, 조선의 님으로만 될수 없는 우리의 장군이시다.

어느 시인이 말한것처럼 장군님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빛, 온 세계가 우러러 따를 인류의 태양 이시다.

두만강이 출렁인다. 설움많은 나그네의 모습만 이 비겼던 두만강에 오늘은 장군님 안아 오신 세계가 비껴 있다.

님 잃고 헤매이던 《눈물 젖은 두만강》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태양의 빛을 받아 눈부신 두만강은 해빛 밝은 강으로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세차게 출렁인다.

만세의 환호성

문용철

오시였구나
아득한 원동의 먼길
꿈속에서도 마중 가던
우리 아버지
정말로 꿈처럼 돌아 오시였구나

낮에 밤을 이어
한껏 참고 참아 온
천만 그리움의 물결이 뚝을 터친듯
광장과 거리마다 굽이치고 메아리치는
만세의 환호성

뜨거운 눈물속에
세월을 거스르는 추억이여
수만리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 오신
수령님을 우러러 뚫던
그날의 광장이 다시 펼쳐 져는가

길지 않은 나날에
자주존엄의 최절정우에
내 조국을 높이 받들어 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아, 한껏 설레여 파도치라

선군의 장검높이 천하를 주름 잡아
내 나라 내 민족의 운명만이 아닌
세계평화와 인류의 운명을 지킨
전설적령장을 우러러 터치는 감격이여

온 지구의 지점이 이 땅우에 모아 진듯
세계를 밝히고 지구를 이끄는
태양조선으로 그 이름 빛나거니

어찌 저 만세의 환호성
내 나라 지경에만 머무르라
기쁨 안고 파도치는
대동강의 흐름과 함께
아무르의 푸른 물도 굽이쳐 흐르고
설레이는 백두의 밀림과 더불어
원동의 푸른 숲도 설레이여라

아 세기를 이어
이 땅에 다시 울려 퍼지는
만세의 환호성이여
한가슴에 온 세상을 다 안고 돌아 오신
민족의 영웅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만민이 터치는 심장의 메아리여—

장군님의 추억

누구에게나 추억은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장군님의 추억의 세계는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것인가.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 얼마나 심원한 추억의 세계가 간직되어 있는지 다는 모를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어느 날 새벽이었다.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모신 특별열차는 동해선철길을 따라 북방의 청신한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두만강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차창가에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는 오בות한 산간 마을들, 푸른 산과 벌들, 자그마한 실개울들, 집집의 굴뚝마다에서 솟아 오르는 희웁스름한 연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쪽의 그림마냥 아름다운 조국산천의 풍경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었다.

그러는 사이에 열차는 두만강철교에 들어 섰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 그 시원을 두고 장장 천수백리를 달려 온 강, 젖빛안개를 피워 올리며 거세차게 흘러 내리는 두만강을 마주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회는 말할수 없이 깊어 졌다.

그이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두만강이로구만.》

《그렇습니다. 장군님, 두만강입니다.》

동행하던 일군도 그이의 사색을 깨칠가 저어하며 조용히 말씀 드렸다.

두만강!

수수천년 이 땅, 이 민족과 함께 때로는 비분으로 몸부림치기도 하고 희망과 행복으로 끓어번지기도 하면서 굽이쳐 흐르는 력사의 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연 깊으신 눈빛으로 출렁이는 두만강을 바라보시면서 《두만강은 깊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강입니다.》라고 뜻 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두만강의 물결을 거슬러 꿈에도 잊지 못하신 백살구 주령진 오산덕언덕이며 김정숙어머님께서 정든 고향을 떠나 낮 설은 이국땅으로 가시던 눈물 젖은 그날의 나루터를 그려 보시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에게로 몸을 돌리시며 물으시었다.

《동무는 회령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장군님, 가보았습니다. 회령에 가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도 뵈옵고 고향집도 돌아 보았습니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아직 회령에 가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조국에 개선하신후 산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 회령에 가보시자고 여러번 말씀 드리였으나 그때마다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고향집부터 찾아 보겠는가, 후에 시간이 있을 때 가보자고 하시면서 미루시다가 끝내 가보지 못하시었다고 가슴 아픈 추억의 갈피를 더듬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도 어머님이 그리워 질 때마다 회령에 가보고 싶었지만 일감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낼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언제인가 왕채산혁명전적지건설을 지도하려 온성에 갔을 때에도 시간이 없어 회령에 들러 보지 못하였는데 그때 회령을 지나면서 울리는 기적소리가 가슴을 파고 들었다고, 그때의 일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다고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사연 깊은 말씀이었다.

바로 이 강에 민족의 령수를 모시지 못한탓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남부녀대하여 낮 설은 이국의 하늘아래로 뿔뿔이 헤어 져야 했던 곡절 많고 수난 많은 비운의 민족사가 숨배여 있고 저 강 건너 이름 모를 어느 산기슭에 귀중하신 부모님과 형제분들, 친척들과 혁명동지들을 묻으시며 오열을 터치시던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아로새겨져 있는것이다.

뜨거운 추억의 갈피갈피를 펼쳐 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옛날에는 두만강을 원한의 강, 피눈물의 강이라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렇던 두만강이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실 때에는 투쟁의 강, 희망의 강으로 되었고 오늘에 와서는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우리는 **김일성** 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안고 로씨야에 대한 방문의 길에 올랐다고, 출렁이는 두만강의 흐름이 로씨야에 대한 우리의 방문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축복의 인사를 보내는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 같으신 그 미소에 끌려 그이를 따라 행복의 미소를 한껏 짓던 일군의 머리속에는 번개처럼 번뜩하고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일군은 불쑥 저도 모르게 《장군님, 장군님께서 하신 두만강의 력사에 대한 말씀은 하나의 철학

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무릅없이 말씀 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어 일군의 견해를 긍정해 주시면서 두만강은 우리에게 심오한 철학을 안겨 주고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것은 아무리 력사가 유구하고 뿌리 깊은 민족의 넓이 깃들여 있는 강이라고 하여도 그 민족이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가 모시지 못하는가에 따라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되는가 아니면 원한의 강, 피눈물의 강으로 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되기때문입니다.

지난 날의 쓰라린 생활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원한의 강, 피눈물의 강— 락원의 강, 행복의 강, 강성대국건설!

장군님의 말씀을 속으로 따라 외우던 일군은 그제서야 잠전에 뇌리를 치던 그 섬광이 무엇이

였는지 똑똑히 깨달았다.

(령도자의 추억, 그것은 결코 단순히 정치가자신의 지난 날에 대한 회고가 아니다.

령도자의 추억에는 반드시 민족의 넓과 피가 뛰고 자기 인민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헌신, 부강한 래일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담겨야 하며 그런 추억을 지닌 정치가만이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 인민의 수령으로 력사에 빛나는것이다.

참으로 우리 장군님의 추억은 이 땅과 우리 민족이 겪어 온 그 모든 희로애락뿐아니라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의 휘황찬란한 래일까지도 비껴담은 이 세상에 단 한분밖에 안 계시는 천출위인의 심원한 정신세계이다.)

렐차는 이미 두만강을 건너 봇나무 뻗뻗한 이 국땅의 무연한 수림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추억은 푸른 물결과 더불어 더욱 부강번영할 우리의 래일이 약속된 조국으로 끝없이 나래져 가고 있었다.

가을이여

박상민

가을하늘에서
따사롭게 내리는 햇빛
그 햇빛은 별만 익혔던가
나도 자래우며 찾아 온 가을이여

그 햇빛 이 가슴에
줄줄이 금선으로 가득차
사랑의 노래를 연주하는가
저 멀리 들끝에서
밀려 오는 이삭파도소리에
나도 민요 한가락 넘기고 싶다

빼기빼기 주름 많던 땅
끝 없는 대지로 넓어 지고
노력의 땀 이삭으로 맺혀
농민의 마음 끝간데 없이 펼쳐 진
저 별처럼 흐뭇한 이 가을

기쁨이 출렁이는 가을이여!
너는 추억의 창문이던가
오곡을 익히며 왔건만
굶주림이었고 피눈물이었던
어제날 할아버지가슴을 파고 들던
그 여윈 가을이 이 가슴에 옛말처럼 살아 있다

수령님덕분으로
땅의 주인이 된 우리 집 대문으로

인심 좋은 만머느리처럼
가을은 웃으며 성큼 들어 섰고
상처투성이 할아버지가슴을
엄마약손같이 살뜰히 아물쿠며
살찐 오편 들판이 안겨 주었다더라

그 가을은
천리마회장을 가슴에 달고
별을 달리던 아버지의 트랙토르
적재함우에 실려 있었고
해종일 낫을 놓을줄 모르던
어머니의 땀 젖은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아 수령님사랑의 햇빛은
땅에 명줄을 걸고
대대로 땅과 함께 숨 쉬며 산 우리 가문에
행복과 기쁨을 무르익혀 준
진정한 가을이였다
그 햇빛은 장군님사랑으로 이어 저
무릉도원으로 변모된
선군시대의 가을을 안아 왔다

이삭이 무르익는 계절만이라
농민의 마음도 함께 익는 가을이여서
머리 들어 가을하늘 바라보니
이 가을을 꽉 채우며 안겨 오는
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여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빛내신 위인의 빛나는 형상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에 대하여—

장희숙

우리 민족의 운명과 역사에 거대한 자욱들을 아로새겼던 20세기! 허나 우리 인민은 20세기의 추억을 지나간 역사의 한페이지로 가볍게 번져놓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사변들이 역사의 흐름속에 격류를 일으키며 솟구쳐 올라 우리 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세계에 떨치었던가.

주체87(1998)년 8월 31일도 바로 그런 잊지 못할 역사의 날들중의 하나이다.

류레없이 간고하고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준엄한 시기, 온 지구를 진감하는 퇴성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을 뿜어 올리며 《광명성 1》호가 하늘높이 치솟아 올랐다.

우리의 위성에서 울려 나오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을 짝 채우던 역사의 그 순간,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분출하였던 거세찬 격정의 파도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리동구)는 우리 조국을 주체과학의 높은 봉우리로 나래쳐 오르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이 역사적사변속에 깃들여 있는 거대한 의미를 진실하고도 무게 있게 해명하고 있다.

민족의 위대한 아들의 열화같은 심장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는 활화산 같은 조국애로 가슴을 불 태우시는 민족의 위대한 아들—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심장에 대한 열렬한 송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일찌기 통남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이실 웅지를 역사의 맹세로 다지실 때 그이께서 그러 보신 조선—그것은 과학문명의 봉우리에서 위용을 펼치는 찬란한 조국의 모습이였다.

그러나 장편소설에 형상되어 있듯이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수준에 오르자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했다.

세계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

고 가속화되어 바야흐로 정보산업시대로 불리울 새 세기에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던 때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정은 과학기술분야에도 커다란 난관과 암초를 조성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과학기술봉쇄, 종래에 맺어 졌던 과학기술협정을 외면해 버리는 동유럽 나라들의 배신행위, 나날이 어려워만 지는 경제형편, 거기에 우리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과학홀시사상, 세계적수준을 지향한 높은 목표 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는 과학자, 기술자들...

이 모든것들은 최첨단과학기술로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치시려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서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난국을 뚫고 나갈것인가?

실로 무거운 역사적과제가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에 지워 져 있었고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편소설에서는 당시 이러한 환경을 사실주의적으로 펼쳐 보이면서 중중첩첩 가로 놓여 있는 장벽들을 기어이 뚫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비약시키신 그이의 산악 같은 의지와 철의 신념, 비상한 령도력에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있다.

장편소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자들과 협의회를 하시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금 일부 단위들에서는 우리 녀성들이 손발을 얼구며 캐낸 조개와 힘들게 딴 송이버섯을 몇 톨의 외화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식탁에 웅당 올라야 할 조개나 송이버섯이 팔리는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깁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이 메어 말씀을 더 이을수 없으시였다. 청중은 숨을 죽이였다. 말씀의 마디마디에 흐르는 절절한 심정이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도 지킬수 없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확고한 결심을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이신가.

위대한 장군님은 정치가이시기전에 우선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민족의 참된 아들이시였다. 하기에 협의회참가자들은 과학기술이 뒤떨어 진 탓에 훼손 당하는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놓고 그토록 가슴 아파 하시는 그이의 통절한 말씀을 과학기술발전과 관련한 روشن상의 문제를 제시하시는 정치가의 연설로서가 아니라 뜨거운 민족애로 가슴을 끓이시는 진정한 애국자의 열화 같은 고백으로 받아 들였던 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이처럼 그이의 심장에 차넘치시는 열화 같은 애국심이 바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비약시키신 신념과 의지, 탁월한 령도력의 밑바탕에 맥맥히 굽이치고 있음을 감명깊게 형상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애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소동에 대한 단호한 립장에서 력력히 표현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자기들의 독점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무기로 발전도상나라들을 착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 그대로 일본놈들은 이미 계획하였던 티탄합금가공설비수출을 《코뮌》에 걸어 거절한다.

그러면서도 티탄합금원자재를 들여 보내면 가공하여 주겠다는 자세로 우리 나라의 현 공업실태를 은근히 비웃는 것이다.

양영복박사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의 가슴은 얼마나 거세찬 분노의 불덩어리로 달아 올랐던가.

일본놈들은 식민지통치를 하던 어제날의 총칼 대신 오늘은 과학기술을 무기로 착취와 압박을 꾀하고 있다. 저들은 영원히 《두뇌국가》로 군림하고 우리는 영원히 《몸체국가》로 남아 저들의 손발노릇이나 하라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끓어 오르는 민족적분노를 한가슴에 안으신채 심장속으로 결연히 부르짖으신다. (우리는 반드시 과학기술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버릴 것이다!)

하여 그이께서는 과학기술발전문제를 민족의 존엄을 건 과학기술대결장으로 보시였고 조선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주체의 방법론을 과학자들에게 제시하시어 놈들의 《제재》장벽을 돌파할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를 안겨 주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속에 비끼 이러한 무한한 애국심의 승고한 세계를 형상하면서 장편소설에서는 장군님께서 무엇을 그리도 믿으셨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추켜 드시고 과학기술의 세계적도약이라는 기적을 이룩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믿으신것 — 그것은 오직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뛰여 난 두뇌와 슬기, 창조적 재능이었다. 과학기술경쟁에서 앞선것을 능히 따라 잡을수 있는 뛰여 난 두뇌와 지적능력,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 과학자들에게 있다는것을 그이께서는 확신하고 계시었다.

그이의 이런 신념은 교육과학사업을 맡아 보는

책임일군인 고중환부부장과 과학원부원장 립수봉, 금속공학연구소 초급당비서 황석태 등의 사상적립장과의 대조속에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 일군들에게서 나타난 사상적결합의 공통성은 우리 과학자들의 실력이 어리다고 보면서 그들의 창조적지혜를 믿지 못하고 발전된 나라들의 기술수준에 압도 당한데 있었다. 결국 자기 인민을 믿지 못하다니니 최첨단과학을 목표로 한 방대한 과제앞에서 고민하고 동요하고 주춤거리었던 것이다.

고중환부부장은 높은 목표로 제시된 과학기술과제의 일부를 조절하여 줄것을 제의하며 당시 평양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를 놓고도 승산이 없는것으로 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과학원부원장 립수봉은 주체적립장이 뚜렷이 서있지 못하다 보니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큰 오류를 범하며 황석태는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는것만으로도 지금의 실정에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직권으로 양영복박사를 누르고 모방의 길을 택한 박치영을 적극 두둔하고 내세우는 파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문 일군들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사상적립장의 심각성을 꿰뚫어 보시는 장군님의 심리는 너무도 무거우시였고 총격적이었다.

파연 그들의 생각대로 우리 과학자들의 능력이 첨단과학기술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말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단호히 이를 부정하신다. 인류발생의 려명기로부터 이 땅에서 가장 문명한 문화와 과학을 창조하면서 살아 온 우리 인민들이다. 더우기 오늘날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령도를 받고 있으며 주체사상이 꽃 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우리 과학자들이 아닌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추동될 때 그들은 순차와 단계를 뛰어 넘어 기어이 세계적인 발명을 하게 될 것이다.

장군님의 이 열렬한 애국심과 믿음에 떠받들려 수재교육의 원종장인 평양제1고등중학교(당시)가 보통강반에 일떠섰고 이 학교의 나어린 박상수학생은 세계적인 두뇌경쟁이라고도 할수 있는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선민족의 영예를 과시한다. 석홍범, 양명심도 초고압프레스를 제작하여 국제시장에서 금상을 수여 받으며 양영복박사는 최첨단기술인 초소성 티탄합금가공설비제작에 성공하여 《별빛》연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이러한 생활화폭들을 통하여 빛나는 과학적성과의 밑바탕에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믿으시는 장군님의 뜨거운 애국심이 이글거리고 있음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열렬한 조국

에, 민족애의 세계를 형상함에 있어서 작가는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장편소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리세계가 강한 극성을 띠고 열렬한 감정속에서 묘사되어 있다.

장군님께서 체험하시는 극 그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그이의 신념과 의지에 도전하고 있는 온갖 장벽들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극에 토대한 그이의 심리세계를 극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면서도 높은 지성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것은 지성적인 분석이 위주라고 하여 논리적인 사유과정을 추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증오가 명백하고 열렬하신 장군님의 감정정서의 용암속에 굴절시켜 격이 있게 분석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폭 넓은 사색과 심오한 분석으로 일관된 장군님의 심리가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가슴 뭉클한 정서적물결속에서 독자들의 심금을 강하게 울리고 있다.

이처럼 장편소설에서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고동치는 가장 위대한 애국자의 열화 같은 심장이 있어 《광명성 1》호가 발사되는 세계적인 기적이 창조되었음을 소리높이 노래하고 있다.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 이는 민족의 위대한 아들이 지니고 계시는 뜨거운 민족애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이다.

보석도 빛을 받아야 반짝인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이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은 직접적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상에 추동되고 어떤 지도를 받는가에 따라 그 능력과 재능의 성격이 달라 지고 한계가 그어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믿으신바와 같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천성적으로 남만 못지 않은 두뇌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남보다 뒤떨어 서 있던 사회력사적조건과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으로 하여 선진과학기술도입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된 현실적 사정은 우리 과학자들속에 일종의 주저와 동요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것은 과학자들속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수준에 비한 우리 나라의 실태를 놓고 그 차이에 위축되어 자신심을 잃는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사상상태야말로 장군님께서 가장 우려하시고 가장 마음 쓰시는 문제였다.

사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높은 사상적각오와 창조적능력을 믿으시고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 도약을 설계하신 그이가 아니신가.

그런데 그 주인들이 자신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 잘못된것이었던 말인가. 장군님께서 겪으시는 마음속고충은 참으로 심각하였고 극적인것이였다.

소설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인 박치영과 석홍범, 오랜 과학자인 양영복박사의 운명선과 체험과정을 통하여 우리 과학자 한사람한사람이 어떻게 그이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창조적지혜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는가 하는 력사의 진실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박치영, 그는 그 누구보다도 과학기술적관단과 추리가 명민하고 예리한 젊은 과학자이다.

그러기에 양영복박사는 《별빛》연구에 절실한 티탄합금가공설비수입문제로 외국에 갈 때 그를 동행시켰던것이다.

현지에서 설비의 기술적성능과 작업과정을 한히 꿰뚫어 보는데서 그의 총명한 두뇌와 밝은 눈이 큰 은을 내리라는 기대때문이었다.

그러나 박치영은 외국의것을 초월하여 새로운 창조를 지향한 양영복박사의 주장을 현실성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모방의 길을 택한다.

그가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한 압착가공방법에 매여 달린것은 하루빨리 성공하여 명예를 얻자는 공명심과 소충명도 작용했지만 보다는 다른 나라의것을 뛰어 넘을수 없다는 사상적관점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로 알려 져 있는 압착가공방법을 그대로 모방한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닌가. 그의 내심적주장은 바로 이것이었다.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연구하는 석홍범 또한 다른 측면에서 장군님의 마음을 아프게 자극한다.

과학자로서의 원대한 포부를 안고 기계공업위원회에서 과학원으로 진출한 그였다.

그러나 연구사업이 성공하지 못하자 우리의 공업수준으로는 자기의 고도기술개발에 필요한 제작재료를 보장할수 없다고 원망하면서 마치도 실패가 응당한것처럼 울분을 토했던것이다.

석홍범의 이러한 자료를 보고 받으신 장군님의 심중은 참으로 착잡하였고 아프시였다.

아껴 주고 싶은 마음과 노여움이 엇갈리는 모순된 감정속에서 그이께서는 깊이 사색하신다.

그이께서는 석홍범을 부르신 자리에서 아픈 마음을 애 써 누르시며 준절하게 타이르신다.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 졌다고 해서 자기 조국을 원망하는것은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요. 조국이란 뭘겠소? 우리자신들이요. 실상 알고 보니 동무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했소. 동무에겐 과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소.》

인간에 대한 사랑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은 옳은 사상을 심어 주고 인생길을 바로 잡아 주는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사상이고 그 사상에 의하여 인생의 모든 좌표가 결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일생의 자그마한 파오라도 저지르지 않

게 옳은 사상을 가르치고 인생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상 인간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여 인간생활에는 스승이 있는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의 참된 스승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들에게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사상적신념을 안겨 주시고 남의 것을 굶어 볼수 있는 주체의 방법론을 터워 주시였으니 정녕 그이의 사랑은 참된 스승의 위대한 사랑이었던것이다.

그 사랑의 품에서 우리 과학자들은 자기 령도자를 알고 조국을 알고 민족을 아는 진정한 과학자들로 자라났으니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 절절한 웨침속에는 실생활체험으로 깨달은 그들의 진실한 생활적감정이 깃들어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형상하면서 장편소설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재보로 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감명깊이 펼쳐 보이고 있다.

박치영은 자신이 주장했던 압착가공법이 실패를 거듭하자 고민하던 끝에 자진하여 부업농장으로 내려 가버린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아신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의 처사를 비판하시면서 안타깝게 타이르신다.

과학연구를 하다가 범한 파오를 다른 파오와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파오는 대신할수 있는 사람의 파오이지만 과학자들의 파오는 대신할수 없는 사람의 파오이기때문이다. 그러기에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연구사업을 계속 하면서 파오를 시정시켜야 한다.

과학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정이 마디마디 흐르는 그이의 말씀을 전해 듣고 박치영이가 어찌 혼치 않은 사나이의 울음을 폭발적으로 터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석홍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모험적인 초고압실험을 하다가 폭발을 일으켜 안전부에 구류된다. 비록 성공했다고 할수 있으나 당시 안전부에서는 폭발시에 있는 얼마간의 손실을 크게 보고 책임을 추궁하는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달리 문제를 분석하신다.

재능 있는 과학자인 그의 생명은 나라의 귀중한 재보에 속한다.

그가 실험하다가 잘못되길라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나라의 손실인가...

장군님께서서는 물질적손실이 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놓고 모험을 한 그 《죄》를 더 크게 보시며 그를 《처벌》하고 싶어 하시는것이다.

당시 평성시 안전부장에게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무모하게 모험적인 실험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희생성이나 충실성으로 보려는 과학자들은 누구를 물론하고 동무네가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

야 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시는 그이의 깊은 마음이 뜨겁게 가슴을 치는것이다.

나라의 재보중에서도 가장 큰 재보는 과학기술인재들이다. 그러니 그 재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빛이 나게 닦아 내세워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지론이였다.

금방석에 그들을 앉히고 싶어 하시는 장군님의 이 사랑과 믿음의 대하속에서 석홍범은 장군님의 《처벌》로 가족휴양을 떠나게 되고 어성버성하던 가정의 행복도 되찾게 되는것이다.

박치영 또한 자기의 파오를 깨닫고 늦게나마 양영복박사의 연구사업을 도와 나서며 금이 갔던 양명심과의 사랑도 다시금 아름답게 가꾸게 된다.

그 사랑과 믿음의 해발속에서 양영복박사는 자기 나이에는 실현할수 없는것으로 완전히 포기하였던 티탄합금가공기술을 주체적방법으로 개발하는 세계적발명을 하며 석홍범과 양명심은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제작하여 국제축전에서 금상을 수여받고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치는 성과를 이룩한다.

보석도 빛을 받아야 반짝이는 법이다.

그들이 과학계에서 아무리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이였다고 하더라도 장군님께서 사랑의 해빛을 주고 믿음으로 닦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과학계의 별들로 빛날수 있었겠는가.

대하와도 같이 무한하고 태양과도 같이 뜨거운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과학자 한사람한사람 모두가 주체과학의 주추돌로, 기동감으로 자라났으니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품이야말로 그들이 가없이 높고 푸른 과학의 대공을 향하여 힘껏 나래쳐 오를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장편소설은 바로 이 생활의 진리를 감동적인 서사시로 읊조리고 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생활의 이러한 진실을 형상함에 있어서 과학자들의 각이한 인물선을 장군님의 령도선과 밀착시켜 립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사실이 장편소설에 형상되어 있는 티탄합금가공설비제작과 관련된 양영복, 박치영의 선과 초고압유압프레스를 제작하는 석홍범, 양명심의 선, 수학올림픽과 관련한 정금화의 선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 지는 별개의 선들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산만해 지고 주체분열이 일어 날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 인물들의 초기성격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명백히 규정하고 그들의 성격발전과정의 주요계기들을 장군님의 형상과 밀착시켜 중점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장군님의 령도선이 뚜렷이 부각되면서 각이한 인물선들이 조화롭게 교차되어 작품의 립체적구성미를 보장하고 있는것이 바로 작가가 탐구한 이러한 형상적기교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사랑과 믿음은 충성을 낳는다.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는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과학자들사이에 맺어 진 영원한 사랑과 믿음, 충성과 동지애의 영원한 서사시이다.

매혹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에 매혹된 우리 과학자들의 다함 없는 숭배의 찬가이다.

위인에 대한 숭배는 인간적매혹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인의 사상에 흐르는 진리성에 공감되기 앞서 그 위인이 지닌 참된 인간적품모에 매혹되어 먼저 인간을 따르고 후에 그 사상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신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이 체험한 력사의 진실이라고 할수있다. 민족수난의 그 시기 조선의 혁명가들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리해하기에 앞서 우선 그이의 참된 인간적품모에 매혹되어 무조건적으로 따라 나섰고 후에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동지로 되었던것이다.

장편소설 《비약의 나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과학자, 기술지도일군들의 절대적인 숭배심이 바로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었는가를 깊이 해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이의 위인상을 격이 있게 형상하고 있다.

우리 과학자들의 가슴을 경탄의 환희로 끓게 한것은 과학기술에 정통하신 그이의 비상한 과학적예지와 실력이었다.

흔히 정치가의 실력은 정치적령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은 탁월한 정치가이시면서도 동시에 과학기술분야에 정통하신 뛰어난 실력가이시였다.

인류의 과학발전력사와 현대과학발전추세에 대한 그이의 지식은 얼마나 방대하고도 폭 넓으며 그에 대한 사색과 분석 또한 얼마나 깊이 있고 과학적인것인가.

그 방대한 지식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실 새로운 길을 명확히 제시하시고 수재교육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중심고리를 명백히 짚어 주실 때, 새로운 과학기술심의체계를 세워 주시고 3개년기술발전계획과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을 조직하여 주실 때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그이의 과학적예지와 실력앞에 머리를 숙이었던것이다.

과학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들도 대번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해당하는 방략을 세워 주시는 최고의 지성을 지니신분에 대하여 어찌 우리 과학자들이 경탄의 환희를 터뜨리지 않을수 있으랴.

우리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그이에게 온넋이 끌리도록 매혹된것은 또한 참된 인정미에 끌린때문이었다.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정미는 참으로 뜨거웁고 섬세하면서도 웅심 깊다.

오래동안 같이 일하는 일군인 고중환의 고독한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정금화교원과 인연을 맺도록 웅심 깊은 사랑을 돌려 주시는 생활, 그와 소탈하게 콧강냉이구이를 하시면서 아득히 흘러간 옛 어린 시절의 친우 함치복을 애뜻하게 회고하시는 추억의 세계, 앓고 있는 양영복박사를 따듯이 위로하여 주시는 생활, 국제축전에서 금상을 받은 석흥범과 양명심을 친히 승용차에 태우시고 소탈하게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생활 등 소설에서는 그이께서 천품으로 지니고 계시는 참된 인정미를 감동적화폭으로 그려 내고 있다.

하여 우리 일군들과 지식인들이 온 심장을 바쳐 그이를 숭배하고 따르는 열화 같은 충실성의 숭고한 감정속에 흐르는 인간적매혹의 세계를 진실하게 부각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적인 매력— 그것은 사랑과 증오가 명백하고 열렬하신 성격미에도 있었다.

장편소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적품모를 형상하면서 이러한 성격미에 특별히 모를 박고 정의인, 열의인으로서의 성격적특질을 잘 살려 나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에 대하여 그토록 격분하시여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는분, 석흥범과 박치영의 파오를 놓고 가슴이 아프시지만 격분하신 심정 그대로 준절하게 꾸짖으시는분, 《광명성 1》호가 우주로 날아 오르던 그날에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수령님을 먼저 생각하시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고 성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간 양영복박사를 애석해 하시며 목 메여 하시는분...

이렇듯 장군님께서 체험하시는 기쁨과 슬픔, 걱정과 환희, 격분과 분노의 모든 감정들은 항상 명백하고 열렬한 정서로 충만되어 독특한 성격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몽쿨하게 하는것이다.

우리 장군님도 인간이시다.

작가는 바로 장군님을 형상함에 있어서 그이의 이러한 성격적특질을 잘 살려 묘사함으로써 장군님의 위인상을 진실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우리 과학자들이 그이를 그토록 따르게 된 생활적감정을 잘 형상하고 있다.

령도자이시기전에 우선 참인간이신 그이께 우리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심장을 통채로 내맡기었던것이다.

위대한 인간에 대한 열렬한 숭배의 찬가!

장편소설은 진실한 생활의 선물로 이를 확증하고 있다.

장군님 계시여 새 세기에도 우리의 과학과 기술은 최첨단의 봉우리로 더 높이 날아 오를것이다.

일요일 저녁녘이다.

푸르른 대동강물과 어울려 조화를 이룬 록음길은 유보도는 예보다 더 흥성거린다.

싱그러운 선들바람에 흐느적이며 춤 추는 수양버드나무아래로 산보객들의 흥그러운 걸음이 한결 더 잦아 진다.

여늬 때보다 좀 늦어 진 나는 서둘러 낚시터로 향하였다. 저녁먹이를 찾아 노니는 살찐 고기를 낚는 맛을 무엇에 비기랴.

톡톡 조심스레 미끼를 쫓는 보이지도 않는 놈을 살살 얼려 가느라 숨마저 죽이고 신경을 한껏 모으던 끝에 획! 순간에 낚시를 물려 놓고 승벽내기를 하면서 진땀을 빠질빠질 흘리는 긴장속에 젖어 드는 쾌감! 드디어 푸들쩍거리는 큼직한 잉어를 두손으로 감아 쥐었을 때의 기쁨! 그것이면 한주일동안 사색과 론쟁속에 영키였던 피로를 말끔히 씻어 내는듯 싶다.

하기에 그 흥취에 끌려 약속은 없었지만 이맘때면 문우로서 구면지기인 소설가 리선생도 어김없이 나타나곤 한다.

낚시줄을 푸른 강반에 드리워 놓은채 문단에서 중진으로 활약하면서 근간에도 좋은 소설을 창작하여 호평이 자자한 그와 나누는 달변은 저녁정서에 한껏 더 취하게 한다. 하긴 마냥 즐거워진 마음이 부풀어 올라 이야기에 취중하던 나머지 때로는 큼직한 고기를 놓칠 때도 있지만... 그게 대수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앉곤 하던 낚시터에와 보니 비어 있어 나는 은근한 조바심에 싸여 두리먼거리였다. 했으나 키가 성큼한 그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줄낚시 세틀을 강심에 던져 넣고 담배를 한대 피워 물었을 때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허. 미안하이. 오래 기다렸나?》

《지각생소리를 듣지 않으려거든 빨리 오게.》

그를 돌아 보던 나는 저절로 눈이 커졌다.

언제 봐야 회색 등산모에 맵시 나는 누런 낚시가방을 메고 로숙한 낚시군의 품위를 돋구던 그가 딴 모습이었다. 가쁜한 잠바웃차림에 큼직한 러행가방까지 든 그의 대답 역시 뜻밖이었다.

《지각생? 허, 생활에서는 지각생이 될수 있어도 창작에서야 지각생이 될수 없지.》

《아니 어디 출장 가나?》

하긴 봄내 여름내 뛰어 다니며 새 작품의 구성안을 무르익혔으니 이제는 우산장창작실에 가서 수확해야 할 때도 되었다.

그가 언제인가 붉은 꽃을 반기는 처녀들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사색을 즐기는 사나이들의 계절이라고 뇌이던 말이 생각 키운다.

《그래 출장길이네만 자네가 기다릴것 같아 차 시간보다 한걸음 먼저 나오다 들렀네.》

《우산장에야 새벽차로 떠나기마련인데 부디 이 좋은 일요일 저녁에 부산 피울건 뭐가?》

《실은 자강도에 다시 걸음하게 됐네. 내가 덜 통하다 보니 보충취재를 할수밖에 없지.》

(보충취재라니? 아예 자강도사람이 될것처럼 몇달째나 현실체험을 하고 돌아 온것이 얼마전인데?)

의혹에 찬 나를 사려 깊은 눈길로 지켜 보던 그는 퍼그나 진중해 진 어조로 말했다.

《실은 이번에 우리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네.》

생각 깊은 그의 말에 나도 은연중 점점 깊어 끌려 들었다.

...이번 방문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정이 매우 긴장한 가운데서 그곳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주시고 실태를 깊이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소물스크-나-아무레를 방문하시면서 그곳 조선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대륙의 세찬 비바람이 불어 치곤 하였다. 배무이공정을 일일이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직장의 생산공정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기 위해 백개나 되는 가파로운 원형철계단을 오르시였다.

시간이 긴장한 속에서도 굵은 날씨에도 지어는 철계단과 손잡이가 원만하지 못했어도 선박건조의 어느 한 기술공정을 부감하시며 세심히 료해하시기 위해 가파로운 원형철계단을 한계단 또 한계단씩 백개나 되는 높은 곳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상앞에 수행일군들과 조선소일군들은 물론 수행기자들까지도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료해로 이어진 그 걸음걸음에 대해서...

《백개나 되는 높은 계단에 오르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그려 보느라니 저절로 감동이 커졌데. 아니 그것만이 아니네. 큰 감동속에 자신을 새롭게 비쳐 보며 미흡했던 창작생활의 빈 자리를 스스로 찾게 된것이네.》

흔히 생활에서도 백이라면 큰 수량을 상기시킨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백날을 기념해 주고 또 백뿔상을 큰 경사로 여기는것이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딛고 오르신 백개의 계단을 상상해 보느라니 백이라는 수자적인 개념이 점점 더 크게만 여겨 졌을뿐아니라 보다는 새로운 의미로 새겨 졌다.

《조선소의 어느 한 직장 선박건조기술공정 하나를 료해하시기 위해 가파로운 원형철계단을 따

라 우리 장군님께서 걸음걸음 높이 오르셨던 그 백개의 계단에 떠받들려 하나를 위해 더높이 올라 더 넓게 보고 더깊이 파악해야 한다는 고귀한 철리를 다시금 새겨 넣게 되었네.》

백!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들에게 백을 알고 하나를 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가. 작가는 누구보다 더많이 알고 써야 하나의 형상속에도 백의 의미를 담을수 있다는 고귀한 가르침속에 깃든 깊은 뜻을 새롭게 깨우쳐 보게 되었던것이 다.

생각이 깊어 질수록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의 깊은 뜻에 자신을 따라 세우지 못한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이번 현실체험과정을 꼼꼼히 더듬어 보면서 스쳐 보냈던 하나의 작은 고리가 마음에 무겁게 실리었다.

《사실 나도 이번 현실체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착실하게 하였다고 은근히 자부하였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빈 구석을 새롭게 찾게 되네.

주인공인 리당비서만이 아니라 주요인물들의 원형들과도 이제는 허물없이 조언을 주고 받으며 친지처럼 친숙해 졌다는데 만족했었네.

하지만 작품에 한두번 비껴 지게 될 염소사양 공처녀만은 먼 덕지에 방목을 가서 만나보지 못했네. 이제 가면 방목지에서 돌아 왔겠는지... 실사 돌아 오지 않았다고 해도 먼 덕지에까지 찾아갈 생각이네.

그 사양공처녀를 새 세기의 새 세대의 참신한 전형으로 부각시킬 생각을 앞세우면서 말이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도 《하나를 위해 백을! 그 하나에 백의 의미를!》 다시금 음미해 보며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머나먼 로씨야를 방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세계가 21세기 자주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셨다고 찬탄을 금치 못하지 않나. 또 온 나라가 력사적인 방문 열기로 들끓고 있을 때 나도 더 좋은 작품을 더 빨리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굳어 졌네.

우리 작가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충실한 방조자로,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 주시는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갈 하나의 생각으로 신들메를 매었네...》

나는 먼 길 떠나는 그를 뜨겁게 바래주었다.

부디 기대하건대 그도 이번에 새 세기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날로 높아 가는 지향에 맞는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게 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원동지역방문으로 환기된 열기로 창작적열정을 불 태우면서 백에서 놓쳐 버린 그 하나마저 끝까지 찾아 가며 하나에 백의 뜻을 담으려고 진지한 탐구를 기울이는 그였기에...

사색의 바다를 헤쳐 기쁨과 고뇌가 엇갈려 가며 힘차게 노를 저어 가는 그의 《창작의 배》에는 환희의 돛폭이 한껏 부풀어 오르게 될것이다.

멀리 사라지는 그를 손 저어 바래주던 나의 생각은 한뼘으로 이어 진다.

내 여적 가본 일은 없어도 우리 장군님께서 한 계단 두계단 힘 있게 오르셨던 꿈소몰스크-나-아무레조선소의 그 직장의 백개나 되는 가파롭고도 높은 원형철계단을 우렷이 그려 본다. 그 뿐 아니라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시며 머나먼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의 기나긴 길우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방문로정이... 그 자욱마다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뜻이 담겨 저 있겠는가를 새겨 보면서 나는 세찬 환희에 휩싸였다.

불과 5일동안에 연연 7천여리 장정을 이어 가신 위대한 장군님을 매일 매 시각 한없이 그리던 우리 인민, 진정 전 인민적인 감정으로 승화된 그리움이 힘과 지혜로 솟구쳐 조국의 방방곡곡에 서는 날마다 새로운 위훈이 나래졌다....

나는 자리에서 신뜻 일어 섰다.

세계가 절세의 위인으로 칭송하는 만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을 통해 그이의 위대성을 더 높이 노래할 일념으로...

어느새 해는 서산에 잠기었으나 그 후광은 노을로 붉게 퍼졌다.

붉게 타는 그 노을을 가슴 가득 안으며 나는 걸음을 다그쳤다.

세계성구속담

지식

학자의 하루는 무식자의 한생보다 귀중하다.(아랍)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은 높은 산을 정복할수 있고 거만하여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은 평지에서 도 길을 헛갈린다.(중국)

옷에 감탄 말고 지식에 감탄하라.(몽골)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은 보물고의 열쇠.(로므니아)

강변에 살아야 물고기성질을 알고 산밑에 살아야 새소리를 안다. (월남)

전사의 길

— 한 전쟁로병의 추억 —

조승찬

1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한꺼번에 송환해 오던 주체89(2000)년 9월 초 나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도시의 어느 한 러관에 류숙하고 있었다. 계약상대국대표와의 연일 계속되는 면담으로 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해 오는것을 실황중계한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자 하던 일을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제정된 그 시간에 텔레비존앞에 마주 앉아 전원스위치를 넣었다. 그러자 방송원의 목소리가 장안을 들썩하게 흔들며 형광막에 손에손에 꽃다발을 든 수많은 군중들로 운집되어 있는 판문점의 꽃바다광경이 펼쳐 졌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 젖어 올랐다. 한때 세계에서는 28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국가수반까지 하였던 만델라의 일화로 법석 떠든적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송환해 오는 통일애국투사들은 그 대다수가 만델라보다 옥중투쟁년도가 훨씬 더 오래인 세계 최대의 비전향장기수들이었다.

그러자 나는 몇해전 신념의 화신인 리인모로인을 송환해 오던 때를 회상하였다. 삼륜차에 앉아 일어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리인모동지의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나의 가슴은 허물어 저 내리는듯 했고 속에서는 그를 폐인으로 만든 원수들에 대한 증오와 격분으로 피가 끓었다. 얼마나 고문이 악착했으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말인가.

《천하에 죽일 놈들!》

옆에 있던 안해도 옷자락으로 눈굽을 훔치었다. ...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무렵 별안간 방송원의 목소리가 내 귀전을 우뢰처럼 후려 쳤다.

《지춘호동지는...》

(지춘호라니?)

나는 흠칫 몸을 떨며 저도 모르게 몸을 반쯤 일으켜 텔레비존앞으로 다가갔다. 지춘호라고 불리운 비전향장기수의 모습이 형광막우에 얼핏 비쳤다가 사라졌다. 그 모습은 내가 아는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판판 달랐다. 머리는 반나마 벗어 지고 귀밑에 몇오리 남아 있는 머리카락마저도 눈처럼 하얗게 세었는데 얼굴모양도 별로 기름하고 살폭도 빠지였다. 다만 작고 룽룩찮아 보이던 넓적한 코만이 어딘가 이전날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다. 그나마 너무 짧은 시간에 스쳐

간 모습이어서 깊이 살펴 볼 기회도 없었다. 도로 자리에 주저 앉아서야 나는 가슴이 후두두 뛰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춘호일가?)

믿어 지지 않았다. 내가 아는 지춘호는 이미 반세기전에 락동강가에서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환생하여 비전향장기수로 돌아 올수 있다는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환상이다.

나는 머리를 저었다.

(그럴리 없어! 그 사람이 살아 돌아 오다니?)

나는 속으로 몇번이고 부정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하는 한가닥 미련을 버릴수 없었다.

그러자 추억은 창공높이 나래쳐 올라 오래전에 흘러 가버린 불구름 몰아 치던 전장의 그날로 나를 거침없이 실어 갔다.

2

내가 전사 지춘호를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1950년 8월 락동강도하전투를 앞두고서였다. 6월 25일, 그 잊을수 없는 일요일 새벽부터 시작된 전투의련속은 전쟁 달반동안에 중대의 구성을 몰라보게 변화시켰다. 전쟁전 은파산전투며 송악산전투때부터 용맹을 떨치던 경험 많은 로병들은 대부분 부상을 입어 후방병원으로 실려워 갔거나 전사했고 또 어떤 동무들은 새로 편성되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승급되어 갔다. 나 역시 분대장을 하다가 갓 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신 그 자리를 메꾼것이 후방에서 실려 오는 신입병사들이었는데 그날도 중대에는 몇명의 신병들이 보충되어 왔다. 우리 소대에도 세명의 신입병사가 배치되어 왔다. 그중의 하나가 전사 지춘호였다. 우둥통한 얼굴에 넓적한 코, 두툼한 입술, 어디라없이 덜통해 보이는 그의 첫 인상은 그닥 호감이 가는형은 아니였다. 그래도 번듯한 이마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억센 턱, 가끔 예리한 빛을 뿜는 정기어린 작은 눈에서는 룽룩찮은 기상이 풍기고 있었다.

《반갑소. 소대장 문동현이요.》

《전사 지춘호, 많이 배워 주십시오.》

그는 나의 손을 두손으로 덥석 거머쥐며 기운차게 대답했다. 순간 나는 쇠집게에 집히운것 같은 억센 손아귀힘에 어지간히 놀랐다. 입대전 공장에서 단야공으로 일해 온 나도 손탁 세기로는 그 누구에게도 짝지지 않을것이라 자부하고 있었

는데 분명 책상물림의 신입병사가 틀림 없을 지춘호에게서 예상밖의 경우를 당하고 보니 나는 저지기 의아해 졌다.

《동무의 손탁맛이 꽤 참구만. 마치 장알 박힌 오랜 노동자의 손 같소.》

나는 얼얼한 손을 슬며시 거두며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습니까?》

《입대전엔 뭘 했소?》

《학교에 다녔습시다.》

《그래?》 하며 내가 잘 믿어 지지 않는 눈길로 그를 치며 보자 지춘호가 넉적한 코끝을 씩 문지르며 벌쭉 웃었다.

《권투를 좀 했습시다.》

《권투를?》

그러구 보니 코끝이 넉적하게 내려 앉은것이 우연하지 않는듯 했다. 아마 권투훈련시 대방으로부터 어지간히 얻어 맞아 그렇게 된듯 싶었다.

땀구멍이 송송한 얼굴가죽이며 안으로 약간. 휘여 든듯한 두어깨, 나이에 비해 껍 숙성해 보이는 굵은 목대 등 그 모든것이 웬만한 주먹에는 끄떡도 안할 매집 좋은 친구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흥, 피짜로군!)

나는 속으로 웃으며 그와의 첫 상봉을 이런 말로 맺었다.

《동무는 차라리 정찰병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걸 그랬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권투를 했다니 하는 소리요.》

《아니게 아니라 저도 군복을 처음 입을 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뭐랍니까. 까짓거 정찰이든 뭐든 미국놈 잡기야 마찬가지겠지요. 전 중대로 온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긴 동무말이 옳소. 병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병사구실을 똑바로 하면 되는거요.》

나의 이 기대에는 이틀후 뜻밖의 사건으로 하여 어두운 그늘이 던져 지게 되었다. 이 시기 전선은 락동강일대에 고착된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고 있었다. 대구, 부산일대로 물리워 간 적들은 일본과 팔도, 하와이, 미국본토로부터 끊임없이 급파해 오는 보충병들을 들이밀며 발악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아군은 막대한 희생을 내며 락동강을 도하해 보려고 몇번이나 시도해 보았으나 놈들의 발악적인 저항으로 좀체로 대안에 발을 붙일수 없었다. 그렇게 되말리기를 그 몇번... 드디어 부대에서는 우회로를 선택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후 그곳을 기점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 갈 결심을 내렸다. 이 책임적인 어려운 전투임무가 중대에 떨어 지자 우리는 주변에서 통나무를 얻어다 폐목을 못는 한편 신변기재로 구명대를 만들며 도하준비에 바쁘게 돌아치고 있었다. 이때 적의 그라망편대가 갑자기

날아 들어 산기슭을 살살이 뒤흔들며 도로와 주변 마을에다 로케트포탄과 기관총을 마구 퍼부었다.

그러자 통나무를 날라 오던 지춘호가 웅덩이에 웅크리고 앉아 적기를 향해 연방 총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덜컥하여 한달음에 달려 가 그를 끌어 안고 웅덩이에 납작 엎드렸다. 적기에 발견되면 그는 물론 소대가 만회할수 없는 피해를 입을수 있었다.

《정신 있소?》

《왜 그러니까?》

《발견되면 어찌자는거야. 누군 뭐 쏘고 싶지 않아 가만 있는줄 아오?》

나는 불만스레 쳐다보는 그를 꼭 눌러 버리고는 적기의 동정을 살피었다. 그때에는 벌써 적기들이 포탄을 다 퍼붓고 기수를 돌려 남쪽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다.

지춘호는 다 쏠지 못한 분노를 삭일수 없는듯 잔뜩 불이 부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전투의 첫 시작부터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벼치는 그의 덜통스런 성미가 언짢게 느껴져 다시한번 그를 흘겨 보았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 나의 이 우려에 키질해 주는 불미스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그날 중대는 강반으로 나가 출발진지를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도하지점에 이르니 웃쪽 여울목에서는 허위도하를 하는 아군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적들이 예견하지 못한 하류쪽으로 도하를 시작하였다. 그때 물속에 들어 섰던 지춘호가 겁에 질려 주춤거렸다.

《왜 그러오?》

나는 그를 돌아 보았다.

《소대장동지, 전 해염을 전혀 칠줄 모릅시다.》

《뭘요?》

당장 도하를 앞둔 이 시각에 와서 수영을 못한다니 나는 기가 막혔다. 그는 권투를 했다고에 수영쯤은 능히 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딱하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만을 떨거 두고 도하할수도 없었다.

《개험도 못치오?》

《예...》

《고향은 어디요?》

정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질문을 어떻게되어 부지불식간에 내뱉았던지 나로서도 알수 없었다.

《중산입니다.》

《중산엔 해자나 개천도 없소? 우리 나라는 어디 가나 강과 호수가 있는데 권투까지 했다는 사람이 수영을 못 배우다니... 옛소, 이걸 잡소.》

나는 내가 준비하였던 신변기재인 다이야쥬브로 만든 구명대를 그에게 넘겨 주었다. 그리고는 그 구명대에 끈을 매서 한끝을 나의 팔목에 감

아 쥐었다.

《그럼 소대장동지는?》

《난 다행히도 동무처럼 물속에서 돌맹이는 아니요! 구멍대를 꼭 붙잡소.》

사실 나는 수영을 꽤잘게 했다. 8.15광복 3돐을 맞는 48년도에는 부대에서 진행한 2백미터 수영경기에서 단연 1등을 하여 소문을 낸적도 있었다.

그때 많은 동무들이 날더러 해군으로 가야 할걸 병종을 잘못 선택했다고 우스개소리로 뽕담을 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만 놓치면 끝장이요.》

나는 그에게 주의를 주고는 물속에 몸을 던지였다. 사처에서 도하하는 동무들의 모습이 언뜻 언뜻 눈에 띄웠다. 허위도하장에서는 여전히 콩북듯 하는 자지러진 총성과 포소리가 쉬임없이 들려 오고 있었다. 조명탄이 매달렸는지 그쪽 하늘이 불그스름한 화광에 물들어 있었다.

이쪽 대안은 아직 조용했다. 대안 건너편 산중턱에 걸려 있는 탐조등불빛이 이따금씩 강반을 핏으며 빗질해 갔다. 그 여광에 지춘호의 허여멀쭉한 얼굴이 얼핏 드러나곤 하였는데 숨이 차서 인지 아니면 피로와서인지 낮은 몹시 찌프리고 있는듯 했다.

강북편까지는 아무 저항없이 순조롭게 전진하였다. 그래도 숨은 몹시 찼다. 옷을 입은채 무거운 장구류와 함께 지춘호가 매달린 구멍대까지 끌고 가자니 나에게는 힘이 곱절이나 들었다. 팔다리가 뻗뻗해 지기도 하였다. 지춘호도 힘에 겨운듯 숨이 차서 헐떡이며 침병거렸다.

《소리를 내지 마오. 손으로는 구멍대를 꼭 붙잡고 발로 물을 차오.》

나는 물속을 침착히 헤엄쳐 나가며 그에게 귀속말로 속삭였다. 바로 그때 건너편 룡선에서 탐조등이 확 켜지며 칼날 같은 불빛이 강반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불빛은 도하하는 중대의 머리우를 거쳐 얼핏 스쳐 가는가 싶더니 인차 되짚어 돌아왔다. 그러자 그 불빛아래에서 강을 도하하는 수십명 사람들의 꺼먼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적진에서 아우성이 터졌다.

적들은 차마 우리가 배 한척 없이 도하에 가장 불리한 하류로 건너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듯 당황하여 꺾꺾 고아 대며 사처에서 기관총사격을 가해 왔다. 탄알이 비발치듯 쏟아져 내리고 조명탄이 연이어 터져 올랐다. 사위는 대낮처럼 밝아 졌다.

일각이 새로운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더 지체할수 없었다. 한초라도 더 빨리 강안에 닿아 불질하는 놈들의 화력을 제압해야 했다. 그렇지 않다가는 온 중대가 강 한가운데서 적의 화력에 전멸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춘호로 하여 마음대로 헤엄속도

를 높여 나갈수 없었다. 그 순간엔 헤엄을 칠줄 몰라 짐이 되는 그를 데리고 떠난것이 얼마나 후회되었는지 몰랐다. 차라리 떨궈 놓았더라면... 앞에서 뒤에서 물기둥이 치솟아 오르고 비발치듯 내리쬐히는 총알이 아츠러운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손에 감아 쥔 노끈을 활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눈앞에는 처음 중대에 왔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많이 배워 주십시오.》라며 넉적한 코날개를 벌름거리던 그 덜퉁한 모습이 불쑥 떠올라 차마 그렇게 할수 없었다. 더구나 나는 그의 직계상관인 소대장이었다. 순간적으로나마 떠올랐던 그 배신적인 생각으로 하여 나는 몹시리를 치며 강잉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는 벌써 강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아군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지원포사격을 해주고 있었다. 적진에서는 연거퍼 포탄이 터지고 작렬하는 화광이 밤하늘을 별절게 물 들이며 불 태우고 있었다.

《소대장동지, 어서 그 끈을 놓고 먼저 건너 가십시오.》

뒤돌아 보니 지춘호가 피로운듯 구멍대에 매달려 울상을 하고 있었다.

《무슨 소릴... 죽어서는 안돼. 끝까지 싸워야지.》

그러자 지춘호는 두팔을 부지런히 놀리었다. 했으나 맥이 빠졌는지 그는 안타깝게도 자꾸만 떨어졌다. 하는수없이 나는 되돌아서 그의 등을 밀어주었다.

《기운을 내오. 우리 끝까지 살아서 이 땅을 지켜야 할 장군님의 전사요.》

벌써 몇번 물을 먹은 지춘호는 물속에 잠기면서 또다시 혼신의 힘을 모아 따라 왔다.

우리가 대안에 이르렀을 때 옷쪽에서는 벌써 앞선 전우들이 적진을 향해 육박해 가고 있었다.

우리는 곧 전투준비를 해가지고 그들과 합세하여 공격으로 넘어 갔다. 강건너편에서 쏘아 대는 아군포들의 맹렬한 포화력이 련속 적진을 들부셨다.

《소대장동지, 고맙습니다.》

일단 숨을 돌리고 나자 지춘호가 옆에 와 엎드리며 더운 입김을 내 불따귀에 끼었었다.

나는 언짢게 그를 흘겨 보았다.

《그런 말은 전투나 끝난 다음에 하오. 돌격앞으로!》

나는 앞장서 내달리며 적진을 향해 연거퍼 총탄을 퍼부었다. 지춘호도 내뒤통을 따랐다. 그는 물속에서는 돌맹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일단 물에 나오니 표범처럼 날랐다. 얼마후 적진으로 육박해가는 돌격의 1선에는 지춘호가 서있었다.

3

그랬던 지춘호가 범 같은 용맹을 떨쳤던것은

우리가 차지한 계선에서 방어전투를 벌리고 있는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중대가 차지한 계선은 련대지휘부에서 얼마 멀지 않은 칼룡선의 주먹 고지였다. 고지앞에는 넓은 개활지대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개활지대를 리용하여 적들이 파도식으로 반격해 오곤 하였다. 도하전투와 반격해 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백여명이 넘는 중대의 인원은 펍 줄어 들었다.

성한 사람은 거의나 없었다. 그만큼 전투는 치열하였다. 하지만 후방에서는 더 이상 보충병이 오지 못하였으며 탄약과 식량, 군수물자보급도 두절되었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그때는 이미 전선정황이 달라져 인천으로 기여 든 미군이 서울까지 점령한 뒤여서 전군에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명령이 내린 뒤였으나 락동강너머의 최전방에서 싸우던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후퇴 명령도 뒤늦게야 받았다. 파도식으로 공격해 오던 적들은 나중에는 땅크까지 앞세우고 방금 부산항으로 기여 든 미군부대를 들이밀었다. 으름 으름 땅을 뒤흔들며 한치한치 육박해 오는 괴물 같은 적땅크의 위압적인 기세에 나는 가슴이 서늘해 졌다. 전사들모두가 긴장되었다. 그 긴장한 눈길은 곧 지휘관인 나에게로 쏠려 왔다. 38도선에서 락동강까지 나오는 천여리길에서 여러차례의 전투도 치러보고 불의의 조우전도 당해 보았지만 지금처럼 당황해 지기는 처음이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땅크를 까부실만 한 포화력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있다는건 오직 몇개의 반땅크 수류탄뿐이었다.

《수류탄 투척준비!》

나는 반땅크수류탄을 거머쥐며 소대에 명령을 내렸다. 전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자면 우선 자신이 먼저 저것을 까부셔야 했다. 그래서 땅크라는 괴물도 용감한 병사앞에서는 결코 맥을 추지 못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했다.

내가 전호박으로 막 뛰쳐 나가려는데 누군가 곁에 와 엎드렸다. 지춘호였다.

《소대장동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동무가?》

《그래도 수류탄투척명중률에서는 제가 좀 나을 겁니다. 저야 곧추치기명수인 권투선수가 아닙니까?》

《응?!》

《넌려 마십시오.》

지춘호는 레의 그 넉적한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씩 웃어 보이고는 나는듯이 전호벽을 뛰어 넘었다. 역시 지춘호는 땅우에선 펍펍 날았다.

《춘호동무!》 내가 소리쳐 부르자 이번에는 좌측에서 2분대장이 수류탄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왔다.

나도 전호벽을 넘었다.

우리들 셋은 7~8미터사이를 두고 각각 땅크 한대씩 맡아 전진해 갔다. 첫 땅크는 지춘호가

말았다. 땅크가 30여미터 가까이 접근했을 때 지춘호가 옷몸을 벌떡 솟구치며 수류탄을 날려 보냈다.

순간 땅크의 기관우에서 요란한 폭음이 일고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다. 명중이었다.

(장한데!)

나는 지춘호의 용감성에 새삼스레 감탄하였다.

덜퉁한 성미와는 달리 싸움에선 확실히 남다른데가 있었다. 그것은 대담성과 누구도 따를수 없는 민첩한 행동이었다.

그 찰나 두번째의 땅크에서 기관총의 연발사격이 가해 졌다. 몸을 솟구쳐 일어 서던 2분대장이 수류탄을 성급히 던지며 모로 쓰러졌는데 수류탄은 땅크에 채 가닿지 못하고 터졌다. 선불맞은 땅크는 더욱 포악해져 2분대장에게 미친듯이 달려 들었다. 그때 첫 땅크를 까부셨던 지춘호가 다시 몸을 일으켜 두번째 땅크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폭음이 일고 서서히 연기가 사라지는 속에서 사슬이 끊어진 땅크의 시꺼먼 형체가 드러났다. 나는 세번째 땅크를 까부셨다. 그러는데 사슬이 끊어진 두번째 땅크에서 룽크가 열리더니 그속에서 잔등에 불이 달린 미군 한놈이 기여 나왔다. 지춘호가 나는듯이 달려 가 놈의 대갈통을 총탁으로 후려 쳤다. 어찌나 호되게 후려 갈겼던지 구척 같은 장신의 미군놈이 꺾소리도 못 지르고 저쪽에 나동그라졌다. 그다음 지춘호는 열려진 룽크안으로 수류탄을 집어 넣고 날째게 몸을 날리었다. 땅크안에서 폭음이 일었다. 마술사와 같은 그의 날랜 전투행동에 나는 진정으로 탄복하였다.

그무렵 중대동무들이 만세를 부르며 일제히 반격해 왔다. 적들의 공격은 좌절되었다. 그후부터 병사들은 누구도 땅크를 두려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지춘호는 복부에 부상을 당하였다. 언제 어디서 당했는지 그도 미처 느끼지 못했었다. 상처는 그닥 깊지 않았어도 체때에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수 있어 우리는 그를 후송시켰다. 헤어질 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하였다.

《분합니다. 소대장동지. 꼭 남해끝까지 나가자고하였는데... 내 이제 치료 받고 인차 되돌아 오겠습니다.》

《걱정마오. 승리한 날 한나산에서 다시 만나지요. 그러니 딴 생각 말고 어서 떠나오.》

우리의 전투사기는 이렇듯 드높고 량만적이였다.

그는 떠나갔다.

그다음 나는 지춘호에 대하여 더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지춘호는 싸움판에서 열핏 만났다가 헤어져 버린 수많은 대원들중의 한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기억속에 약간이나마 류다른 인상으로 남아 있다면 처음은 어딘가 덜통해보였고 미덥지 못했다면 싸움에서는

예상외로 용감하고 대담했다는, 그래서 그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좀 더 싸울수 있었다면 보다 큰 영웅적위훈을 세웠을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였다. 그리고 락동강을 도하할 때 그가 너무도 짐이 되어 하마트면 췌버리고 올번 하였다는, 그 때문에 내 스스로 은근히 량심적가책을 받군 한 동무였다는 생각이 그에 대한 인상의 전부였다.

4

내가 그를 다시 만난것은 그때로부터 이들이 지나서였다. 그 이틀간은 나에게 있어서 20일, 두달과 맞먹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이였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반격해 오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차지한 계선을 끝까지 사수하는것은 순간순간이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전의 연속이였다.

그 전투로 중대의 인원은 또다시 반나마 줄어 들고 탄약마저 떨어 저 육탄으로 결사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게다가 통신선이 두절되고 무전기가 파괴되어 우리는 대대나련대와의 아무런 련계도 못 가지고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나니 락동강너머로 퇴각하라는 상급의 명령도 하루 늦어서야 받게 되였다. 련락 오던 대대장련락병이 중상 당하여 쓰러졌기때문이였다.

명령을 받았을 때 정황은 대단히 위급하였다. 옆에도 뒤에도 린접에는 아군이 없었다. 그런데다 검질기게 달려 들던 적들은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올무렵 또다시 힘을 모아 마지막공격을 가해 올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심중한 론의끝에 중대를 은밀히 철수시키는 한편 만약의 경우를 타산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결사조를 무어 고지에 떨구기로 하였다.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경우 다문 얼마라도 지체시키기 위해서였다. 목숨을 내대고 수행해야 할 그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에게 떨어지자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과업을 받아 안았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우리를 도왔다. 중대가 떠난 다음 나는 조원들에게 수류탄을 있는대로 꺼내 두세개씩 한데 묶으라고 지시한 다음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금시 반격해 올듯이 땅크발동소리를 요란스레 울리며 으르렁대던 적들이 갑자기 잠잠해 졌다. 10분, 20분, 30분 종이 기다렸으나 적들에게서는 아무런 기미가 느껴 지지 않았다.

웬일일까. 날이 저물어 오니 오늘의 공격은 포기하였는가.

우리는 좀 더 기다리다가 적들의 공격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것을 확인하고서야 그곳을 철수하였다. 중대가 제 시간에 가닿았다면 지금쯤은 이미 락동강반에 이르렀을것이였다. 중대를 따라 잡자면 서둘러야 했다.

고지에서 내려 얼마쯤 걸어 오니 골안은 캄캄

하게 어두웠다. 그날 따라 서천하늘에 걸려 있는 갈구리 같은 초생달이 푸르스름한 빛을 뿌리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산란케 하였다. 피로 개척하였던 그 땅을 놈들에게 스스로 내주고 떠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이곳에 피를 뿌리고 쓰러졌던가. 더구나 이곳은 남해가 지척에서 바라보아는 조국땅 한끝 최남단이였다.

우리가 락동강대안에 거의 다달았을 때였다.

앞서 가던 박동무가 우뚝 걸음을 멈추며 적정이 나타났다고 신호하였다. 나는 급히 앞으로 나갔다.

《사방이 온통 적입니다. 벼랑우에도 골짜기에도 적들뿐입니다. 아마 우리를 우회하여 적들이 이미 이 일대를 다 차지한것 같습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하였다. 그러구 보면 적들이 갑자기 공격을 중지하고 잠잠해 있던것이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우리는 완전히 적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퇴각명령을 제때에 받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사태는 빚어 지지 않았을것이였다.

《빠져 나갈데가 없겠소?》

《한가지 방도가 있을것 같습니다. 벼랑중턱을 타고 빠져 나갑시다. 적들도 이곳에 금방 들어선것만큼 위험한 곳에는 서둘러 내려 설것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밤을 새우면 그 길도 막힐수 있습니다.》

《가보기요.》

나는 조원들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고 박동무와 함께 벼랑 가까이로 다가갔다. 어둠속에서도 벼랑이 높고 험하다는것이 알렸다. 그우에서는 전지불이 무시로 번뜩거리며 돌아 가는것으로 보아 적들의 력량이 어지간히 많은듯 싶었다. 아래 골짜기에도 적들은 우글거렸다.

나는 이 길로 빠져 나가리라 결심하고 조원들에게 가려고 돌아 섰다. 그때 어둡속 멀지 않은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왔다. 우리는 놀라 멈춰 섰다. 그리고는 숨을 죽이고 소리나는쪽에 귀를 기울였다. 툴림 없는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인적 없는 이 외진 곳에서 신음소리가 난다는것은 아군일것이다. 어떤 사람일까, 혹시 앞서 간 중대동무들중에서 누군가가 부상을 입고 떨어 진것은 아닐가.

이런 의혹이 들어 나는 소리나는 곳으로 조심조심 다가갔다. 했을 때 나의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 졌다. 어슴푸레한 달빛아래에서 누군가가 한치한치 배밀이해 기어 오고 있었는데 그의 등에는 또 한사람이 업혀 있었다. 신음소리는 등에 업힌 사람에게서 새여 나오는듯 싶었다. 《동무들, 누구요, 응?》

나는 급히 다가가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붙들어 일으켰다.

《아군입니까?》

부상자를 업고 오던 병사가 힘겹게 물었다.

《그렇소. 아군ियो.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소?》
하고 내가 다시 묻자 기진없이 늘어졌던 그 병사가 불안간 몸을 반쯤 일으키며 《소대장동지가 아십니까?》라고 격동에 넘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누구요, 지춘호동무가 아니요?》

《예, 지춘호입니다. 맞구만요! 소대장동지가 맞구만요!》

지춘호는 나에게 와락 매달리며 반가와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도 그를 마주 끌어 안았다.

《동무는 왜 아직 여기에 있소. 동무야 이틀전에 후송되지 않았소?》

《후송도중 적들의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 바람에 후송책임자였던 군의랑 간호원이 희생되고 대부분의 부상병들도 잘못되었습니다. 다섯사람이... 겨우 살아 남았더랬는데... 오는 도중 또 두명이 숨졌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난 여기까지 오면서도 헤염을 칠줄 몰라 아군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더랬는데... 소대장동지를 만나 이젠 됐습니다.》

그는 마치 만사름이 다 덜어 지기나 한 것처럼 나에게 몸을 기대며 벌렁 나가 누웠다. 달빛에 하얀 이가 병곳 드러나는것으로 보아 안도의 웃음을 짓고 있는듯 싶었다.

나는 억이 막혔다. 그를 다시 만났다는 반가움은 순간이고 어떻게 벼랑을 극복해 나가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나를 만나 그리도 기뻐 하는 지춘호에게 나의 마음속 고충을 드러내 보일수도 없었다.

《사실 이 동무는 전쟁전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력사학자입니다. 나라에 아주 귀한 인재이지요.》

생사의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의 인재요 뭐요 하는 지춘호의 말이 나에게서는 우습게 여겨져 《동문 뭐 인재가 아니요. 동무도 한다하는 권투선수였다면서?...》 하고 하마트면 시카스트는 말을 내뱉을번 하였다. 그러나 정황이 정황인지라 인차 자기를 수습하고 나는 또한 동무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아참!》 지춘호는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대한 생각이 난듯 옷몸을 벌떡 일으키며 《저기 30여메터밖에 있습니다. 내 이제 곧 가서...》 하다가 응-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두손으로 아래배를 움켜쥐었다. 아마 나를 만났다는 기쁨에 그 생각은 깜빡 잊었던 모양이었다. 그러구 보면 헤엄치는 덜통스런 그 성미는 여전하였다.

나는 얼른 그를 돌려 눕혀 상처를 들여다 보았다. 배밀이해 오는 동안 배에 감았던 붕대는 밀리우고 터져서 한쪽 구석으로 쏠려 가 있는데 시꺼멓게 드러난 상처가 어둡속에서도 험상하다는 것이 알리었다. 이 몸으로 부상자를 업고 이곳까지 배밀이해 왔다는것이 나로서는 놀랍기 그지없었다.

《이런 몸으로 이 동무를 업고 왔소?》

《전 일없습니다.》

지춘호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우린 이 밤중으로 벼랑을 극복해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영영 길이 막히게 되오.》

《벼랑 말입니까?》

《그렇소. 벼랑우에도 아래도 온통 적ियो.》

나는 박동무에게 담가나 들것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

지춘호는 무슨 생각인지 골몰하고 있었다.

《참 춘호동문 고향이 증산이라고 했던가?》

《예.》

《고향에는 누가 있소. 부모님들은 뭘 하고?》

《부모님들 말입니까? 없습니다.》 지춘호는 갑자기 시무룩해 졌다.

《없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왜정때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술하에서 자랐는데 그 할머니마저 전쟁이 터져 3일만에 미국놈의 기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래서 전 비행기만 보면...》

아하, 그래서였구나!

락동강도하전투를 앞두고 통나무를 끌어 내리던 날 맹습해 오는 적기를 향해 총을 마구 쏘갈기던 지춘호의 분기어린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첫 전투부터 물덤벌술덤병한다고 나무람하기만 하였지.

《그럼 고향엔 가족친척이 아무도 없소?》

《고모사촌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고모사촌누이라고는 해도 우리는 할머니손에서 함께 자라서 친누이나 다름 없습니다. 제가 전선으로 떠나올때 그 누이가 역까지 따라 나와 배태워 주었는데... 이름은 로체숙이라고 합니다.》

그는 누이의 이름과 집주소까지 대주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박동무 일행이 돌아 왔다.

《어떻게 됐소. 들것을 구했소?》

《변변한것이 없습니다. 다 찢어 진 개인비옷을 하나 얻었는데 여기에다 막대기를 꿰서 들고 가야할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소. 그것으로라도 들것을 만들어 저 동무를 눕히오. 지춘호동무는 내가 데리고 가겠소.》

그리하여 우리는 박동무를 길잡이로 선두에 세우고 그다음은 부상자를 눕힌 들것을 든 조원들, 맨 마지막으로 내가 지춘호를 부축하고 벼랑길을 톱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길은 험하고 가파로웠다. 우죽삐죽 돌들이 솟아 있는가 하면 몇길씩 되는 밋밋한 너럭바위도 있었다. 아차 실수하면 바위를 들이받던가 너럭바위밑으로 미끄러져 내릴수 있었다. 우에서도 아래에서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은밀히 빠져 나가야 하는 우리의 돌파길은 한결음한결음이 가슴을 조이는 숨가쁜 순간의련속이었다.

우리가 벼랑길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불안간

앞서 가던 박동무쪽에서 푸드득 하는 소리에 놀랐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신경을 도사렸다. 다행히 적진에서는 아무 기미가 없었다. 등골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소대장동지, 미안합니다. 전번 강도하때에도 큰 짐이 되었던데… 그때 다시는 병사구실을 못해 남에게 짐이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또 이렇게 소대장동지만 고생시키는군요.》

《쓸데없이 무슨 그런 말을 하오. 잠자코 있소.》
나는 귀속말로 엄하게 나무라고는 다시 힘겹게 걸음을 옮기었다. 옆에 찬 수류탄이 거칠거려서 걸음을 내딛기가 말썽였다. 나는 그것을 떼내어 지춘호에게 넘겨 주며 꼭 붙들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얼마간 갔을 때 이번에는 뒤쪽에서 파궁— 하는 야무진 총성이 밤공기를 찢며 날아왔다. 뒤돌아 보니 사처에서 벌둥지를 쏘서 놓은듯 적들이 법석 떠들며 자동총을 마구 갈겨댔다. 누군가 포위망을 뚫고 나오다가 적들과 불의에 조우한 모양인데 이따금씩 맞붙질하는 기관단총소리도 뚜루룩뚜루룩 울려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총성은 우리가 은폐하고 있는 벼랑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벼랑우에서도 아래에서도 꺾꺾 고아대는 적들의 귀 설은 말소리가 울리고 번뜩거리는 전지불이 이쪽으로 쏠려왔다. 그 불빛은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적들에게 발견되면 모두가 끝장이었다.

나는 성급히 지춘호를 내려 놓고 적의 움직임에 예리하게 살피었다. 여차하면 나 하나를 바쳐서라도 전우들을 위험속에서 빠져 나가게 해야 했다.

순간 눈치를 챈 지춘호가 내 손을 잡았다.

《소대장동진 안됩니다. 소대를 이끌어야 할게 아닙니까. 내가…》

《어찌자구 그래.》

나는 놀랐다. 했으나 그는 한사코 나를 막아섰다.

《소대장동진 살아서 장군님전사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전사의 본분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나를 뒤로 힘껏 밀었다. 그리고는 제 먼저 벼랑으로 떨어졌다. 그는 방금 내가 생각한 것을 먼저 실천에 옮기었던 것이다.

(춘호!) 소리쳐 부를수도 없어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나는 아프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놈들아! 인민군대가 여기 있다!》 벼랑 저 아래쪽에서 지춘호의 목소리가 들려 온것은 잠시후였다.

우리에게 쏘려 오던 적들이 《저쪽이다!》 하고 와당랑거리며 쏘려 갔다.

어지러운 총소리가 뒤섞인 속에서 가끔 맞붙질하는 기관단총소리도 간간이 들리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쿵하고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지춘호가 던진 수류탄이었다. 그 소리는 얼마후 또 한번 크게 울리었다.

(아, 춘호가!)

나는 벼랑턱 바위를 꼭 움켜 쥔채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던 아래쪽을 내려다 보며 어깨를 떨었다.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이 나의 랑볼을 적시고 있었다.

전우들도 뒤늦게야 지춘호의 소행을 깨닫고 숙연한 생각에 잠겨 묵묵히 벼랑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이렇게 보내다니, 춘호!)

나는 말없이 가슴을 찼다.

5

나는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 세해가 되어 오던 주체45(1956)년 봄에 제대되었다. 나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증산에 들러 읍책방 도서관을 한다는 로채숙이란 녀성을 찾아 보았다. 로채숙은 까만 치마에 하얀 당목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몸매가 버들잎처럼 호리호리하고 꽤 이쁘게 생긴 20대초반의 외태머리처녀였다. 고모사촌누이라더니 지춘호와와는 생김새가 판판 달랐다. 그는 내가 지춘호와 함께 싸운 소대장이라고 하니 어찌나 반가와 하던지 한달음에 달려 나와 나를 뒤방으로 안내하였다. 사무실 겸 침실로 쓰는 방이었다. 처녀는 나를 기대와 선망에 찬 눈길로 쳐다보며 행여나 해서 나의 이야기만 기다렸다.

나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볼수 없어 슬며시 눈길을 피하며 지춘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녀의 눈빛이 차츰 실망으로 흐려지더니 나중에는 슬픔에 젖어 고개를 꼭 숙이었다. 그리고는 어깨를 떨며 조용히 흐느꼈다. 그 울음에는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과 비애가 짙게 비껴 있었다.

나는 눈앞이 뿌연게 흐려 졌다.

《지춘호동무는 참으로 마지막까지 희생적으로 잘 싸웠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채숙동무를 찾아 와 이런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것입니다.》

《고마워요. 저는 전사통지서를 받고도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몰랐했어요.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애는 나라에서 손 꼽히는 권투선수가 되었을거예요.》

《그래요?》

그가 권투를 했다는 소리는 나도 이미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나라에서 손 꼽힐 정도의 그런 수준의 선수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난 그저 학교에서 권투를 했다가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요.》

《그렇거예요. 그 애는 워낙 자기 자량은 모르는 애예요. 한집에서 사는 저도 그가 그렇게도 전도 유망한 권투선수라는것은 몰랐으니까요. 그

런데 전쟁이 일기전인 5.1절 전국권투경기에 출전하여 그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타왔더군요. 그래 온 군이 얼마나 떠들썩하였는지 몰라요. 군당위원장아저씨는 이제야 쇠떡골(우리 고향마을이예요.)에서 인물이 하나 났다고 어깨가 으쓱해 돌아 갔는걸요. 그 며칠후엔 국가팀 권투지도원(감독)이란 사람이 내려 와 그 애가 앞으로 국제경기에 나가서도 선수권을 보유할 세계적인 선수로 될 전도유망한 후보선수라면서 학교만 졸업하면 곧 소환해 가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한창이던 51년 여름이었어요.

하루는 웬 낫 모를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 와 춘호에 대해 묻더군요. 그가 군대에 나가 전사했다고 하니 몹시 아쉬워 하며 지금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으로 전선에 나가 있는 전국의 체육선수들을 몽땅 소환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훈련을 하고 있다지 않겠어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요?》

《그럼요. 춘호가 살아 있다면 전선 어디에 가 있는 당장 소환해 오는건데 아까운 권투선수를 잃어 버렸다고 얼마나 통분해 하던지... 알고 보니 그가 국가선수단의 권투지도원(감독)이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 내가 희생되었다고 아쉬워 한 전사 지춘호는 단순히 훌륭한 병사만이 아니었다. 병사이기전에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끼고 내세워 주려던 나라의 귀중한 인재였다.

그러자 락동강반의 벼랑길앞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등에 업고 온 병사를 두고 전쟁전에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력사학자라면서 《나라의 귀한 인재이지요.》라고 하던 그의 말이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 올랐다. 인재가 인재를 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생사의 운명을 알수 없던 그 순간에 인재요 뭐요 하는 그의 말이 나에게서 등에 닿지 않는 말로 여겨 저 《동문 뭐 인재가 아니요. 동무도 한다하는 권투선수였다면서?》라고 속으로 혼자 시카스르기까지 하였다.

때늦게나마 이런 귀한 보배덩이를 잃어 버렸다는 자책으로 하여 내 가슴은 쓰라렸고 처녀앞에서 얼굴을 들고 앉아 있기가 죄스러웠다. 얼마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가 탄 우승메달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있어요. 폭격에 집이 무너질 때 다른것은 다 잃어 버렸지만 그것만은 찾아 제가 정히 보관하고있어요.》

로채숙은 일어 나 옷칠이 벗겨 진 낡은 농 짝을 뒤져 나무박속에 들어 있는 메달을 꺼내 보여 주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지춘호가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을 그 미래를 상상하였다. 틀림없이 지춘호

가 살아 돌아 왔다면 지금쯤은 국제무대에 나가 패권을 쥐고 조국의 명예를 떨칠수도 있었을것이었다.

(내 어찌다가 이렇듯 귀한 나라의 보배덩이를 영영 잃게 하였는가?)

쓰린 가슴을 안고 지난 날을 더듬어 보던 나는 깊은 자책에 잠겨 이렇게 말했다.

《제 책임이 큼니다. 그때 어떻게 하든 제가 먼저 벼랑으로 떨어 저 내렸어야 하는건데...》

《무슨 말씀하세요. 대오를 책임진 지휘관이 전사들을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거예요. 그것때문에 소대장동무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양심이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전 피로합니다. 아마 오늘 내가 채숙동무를 찾아 와 이런 소식을 전해 주는것도 실상은 나자신의 피로운 마음을 덜어 보려는 일종의 참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로채숙과 깊이 사귀게 되었고 후날 그는 나의 안해로 되었다. 그때부터 여러해가 지나 1960년대 초의 어느 해 여름이었는데 (그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기관의 책임부원을 하고 있었다.) 한번은 갖은 《로동신문》을 펼쳐 보다가 5면 하단에 실린 기사에 눈길을 박은채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한것은 그 기사에 전쟁시기 지리산빨찌산에서 싸운 남조선혁명가의 옥중투쟁소식을 실었는데 그 혁명가의 이름이 지춘호였기때문이였다. 그 순간 나는 한때 나의 소대 전사였던 지춘호의 덜통스런 모습이 불쑥 떠오르며 혹시 이 남조선혁명가가 그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어 속이 후두두 뛰었다. 하지만 나는 인차 고개를 저으며 서글피 웃었다. 이 세상에 동생동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춘호는 이미전에 락동강가에서 자폭하고 전사하였다. 그런 사람이 지리산빨찌산에 들어 가 싸웠다는것은 억측도 너무 비약된 엄청난 억측이였다.

그후에도 나는 몇차례 지춘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은근히 뒤따라 가 확인해 보곤 하였는데 한번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지춘호와 너무도 신통하여 이름을 알아 보기까지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해는 어이 없어 하며 허거른 웃음을 지었다.

《됐어요. 당신이 그런다고 죽은 애가 다시 살아 오겠어요?》

안해의 충고는 옳았다. 내가 그런다고 희생된 지춘호가 살아 올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회고할 때면 가장 준엄했던 락동강전투때의 일이 잊혀 지지 않았으며 추격해 오던 적들의 눈길이 우리에게 미쳐 올 위험에 처하자 스스로 벼랑턱을 미끄러져 내려 적을 유인해서 자폭하던 지춘호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라 깊은 명상에 잠기곤 하였다.

그랬었는데 오늘 비전향장기수들중에서 지춘호라는 이름을 가진 통일애국투사가 조국의 품—위대한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 왔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 졌다...

6

이들후 나는 지방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안해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보, 그제 판문점을 넘어 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텔레비존으로 봤소?》

《봤어요.》

《거기에 낫 익은 이름이 없었소?》

《예?!》

안해는 얼떠름한 기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혹시 알만 한 이름이 없던가 말ियो?》

《글쎄요...》

《지춘호라는 이름이 있잖았소.》

《뭐라구요?》 안해는 아연해 하더니 픽 웃으며 돌아 앉았다.

《당신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전쟁시기 잘못된 애가 어떻게 살아 오겠대구?》

《그때는 그랬었지. 그런데 그제 그 이름을 듣고 보니 정신이 얼떨떨해 지면서 가슴이 설레더라 말ियो! 혹시 그 사람이 살아 돌아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게...》

《실없는 소리 말아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 온단 말예요. 그건 당신이 한때 그 애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 집착해 있었기때문이에요. 공연히 쓸데 없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웃기지 말아요.》

안해의 우려는 한갓 로파심이 아니었다.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공연히 객기를 부려 비전향장기수들이 류숙하고 있다는 고려호텔이라도 찾아 갔다가 아니라면 얼마나 멋적은 일인가. 그러면서도 한번 떠오른 그 미련은 좀체로 버릴수 없어 줄곧 나의 마음속을 괴롭혔다.

그런데 마침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절호의 기회가 생기었다. 전쟁로병으로서 내가 비전향장기수들과의 방송야회에 참가하게 된것이였다.

나는 정장을 하고 가슴에는 20여개나 되는 훈장을 한가득 패용한 다음 일찌감치 모임장소로 갔다. 모임장소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한결음만 늦었다라도 자리 하나 변변히 차례지지 못했을것이였다. 그만큼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관심과 존경의 마음은 뜨겁고 열렬했다.

그로부터 30분후 개막을 올린 모임에서는 다시금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었다.

그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옥중투쟁년도를 소개할 때 나의 가슴은 또다시 설레이며 두근거렸다. 드디어 기다리던 《지춘호동지!》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석줄로 된 무대좌석의 중간쯤에서 머리 벗어난 반백의 로인이 일어 나 객석을 향해 인사하였다.

너방송원이 그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지춘호동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락동강가의 벼랑에서 굴러 떨어 저 적을 유인한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한 로인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어...》

(맞구나, 맞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이름도 나이도 그의 고향도 간단한 경력도 내가 알고 있는 전사 지춘호와 꼭 같았다.

《많이 배워 주십시오.》

중대에 배치되어 오던날 그 넘적한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나의 손을 으스스리게 틀어 잡던 그 날로부터 《부탁합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벼랑으로 굴러 떨어 지던 때까지의 그 잊을수 없는 가지가지 추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어느덧 나의 불로는 두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는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예순일곱살의 《총각》이였다.

방송원의 소개가 끝나고 몇몇 비전향장기수들의 발언과 그들을 축하하여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가족친척들과 전우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이 있던 뒤 드디어 지춘호가 마이크앞에 나와 섰다.

나는 무대우로 뛰쳐 올라 가 《춘호, 날세. 소대장 문동현이야!》라며 그를 얼싸 안고 돌아 가고 싶었다. 그러나 한창 행사중이여서 그렇게 할수도 없었다.

그는 로인에 의해 구출된후 어떻게 지리산빨찌산에 들어 갔으며 40여년간에 걸치는 기나긴 옥중투쟁속에서 어떻게 신념을 지켜 왔는가에 대해 말했다.

《...저는 전사의 본분을 다하기전에는 죽을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사담게 끝까지 싸우려는 일념이 신념으로 굳어 졌습니다.》

(장하다. 전사 지춘호!)

이 순간 나는 내 한생에 받아 안은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영광을 통채로 그에게 안겨 주고 싶었다. 그렇게 한대도 나는 조금도 유한이 없을것 같았다. 그렇지만 가장 엄혹한 험로를 헤쳐 온 그의 가슴에는 《조국통일상》 메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자 나의 궁지로 자부로 느껴지던 내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과 메달들의 의미가 무색해 졌다. 적어도 비전향장기수들의 위훈앞에서는 내달 공로가 못된다고 나는 진정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들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앞에 수많은 훈장들을 절령거리며 나와 앉은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 졌다.

방송야회가 끝나자 나는 《전사 지춘호》를 찾아 응접실로 갔다. 해당 일군을 만나 사연을 말했다니 그 일군은 다행히도 흥분한 나의 기색에서 류다른 기미를 눈치채고 지춘호와의 상봉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의 상봉은 격동적이었다. 근 반세기만에 만나는 상봉이었지만 우리는 몰라 보게 변한 그 모습에서 50여년전의 옛 모상을 서로 찾아 보며 얼싸 안았고 얼굴을 비볐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얼마만입니까. 소대장동지!》

그는 나를 얼싸 안았다가 다시 확인해 보려는 듯 저쯤 떠밀었다가 거듭 끌어 안으며 목 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도 목이 메었다.

《동무도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만!》

《있다니요. 옥중에서 지나온 생애를 더듬어 볼 때면 종종 소대장동지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돌아 오자 소대장동지부터 찾았는데… 참 그 력사학자선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네가 업고 왔던 그 병사 말인가. 그 선생은 사회과학원에서 박사, 교수로 있다가 몇해전에 작고했네. 그 선생과 만나면 가끔 자네 이야기를 했었지. 아무튼 고마우이. 자네는 큰 위훈을 세우고 조국으로 돌아 왔네. 난 이런 영웅이 된 자네를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 자네는 아직 총각이라지?》

어째서 내가 반세기만에 만나는 상봉의 시각에 그런 사랄적인 이야기부터 끄집어 냈던지 몰랐다. 아마도 그 한마디속에 그가 바쳐 온 희생의 전부가 응축되어 있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게 그렇게도 중합니까?》

《물론 그런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프더구만. 내 이제 객석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는줄 아나? 자네를 만나고 보니 여직 내가 받아 안은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영광을 자네에게 통채로 안겨 주고 싶더구만.》

《고맙습니다.》

지춘호는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조국에 돌아 오니 모두들 저희들더러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라며 그 무슨 굉장한 위훈을 떨친 영웅들처럼 떠받들어 주고 있는데 부끄럽습니다. 실상 옥중에서 희생된 사람들중에는 우리보다 몇배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우리에게 안겨 주는 이 영광, 인민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열렬한 마음은 당의 뜻을 받들어 통일애국운동에 한목숨 바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조국의 평가라고 말입니다.》

(전사 지춘호!)

나는 뜨거워 오르는 격동속에서 전쟁시기 부르

던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며 한 없는 마음으로 그를 아득히 쳐다보았다. 우리 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의 진속을 안다는것은 쉽지 않다는 의미일것이다.

나는 지춘호의 그 몇마디 말속에서 그가 겪어 온 순탄치 않은 50년세월을 투시해 보았으며 그 참다운 인간미에 고개가 숙여 졌다. 그렇다.

그는 참된 인간적량심과 의리가 있어 역경에 무릎 꿇고 주저 앉아 배신하는것을 수치로 여겼으며 만남을 이겨 내고 오늘은 영광의 이 단상에 오를수 있었다.

문득 리인모동지가 한 말이 생각난다. 《정말이 예요?》 하고 묻던 안해의 그 눈빛을 잊을수 없었기때문이라던 그 말… 그러자 얼마전에 풍문에 들은 한 일화가 상기된다. 반세기만에 만난 비전향장기수의 안해가 자기의 얼굴에 주름이 많아 남편 대하기 부끄럽다고 하니 비전향장기수가 했다는 말이다.

《무슨 소릴 하오. 그 주름살 하나하나가 나를 기다리느라 생긴것이겠는데 뭐가 부끄럽소. 난 도리어 그 주름살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이전보다 열배는 더 사랑하겠소.》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을 당의 참된 인간으로 키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수령을 알고 조국을 알고 인민을 아는 참된 인간으로 준비시킨다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지춘호를 비롯한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야말로 인간중의 인간들이었고 량심과 도덕의리에 배신을 모르는 결국한 사람들이었다.

한때 중대에서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를 평범한 전사 지춘호가 오늘은 어찌하여 온 나라가 다 아는 우리 당의 참된 전사 통일애국투사로 거목처럼 솟아 올라 내앞에 나타날수 있었는가.

그는 투사이기전에 참된 인간이었다!

참된 인간이 되라! 우리가 세상에 으뜸가는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자는것도 결국은 사회의 풍부한 물질문화생활과 함께 사람들을 참된 인간으로 준비시키자는데 있는것이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에는 당일군도 있고 행정경제일군들도 있으며 과학자, 예술인과 같은 지식인과 로동자, 농민들도 있는것이다. 자기의 능력과 취미에 따라 사람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직종은 바꿀수 있어도 누구나 의리를 지킬줄 알고 배신을 모르는 참된 인간으로 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참된 인간!… 나는 고결하고 순결한 그 마음에 또 한번 크게 감동되어 지춘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며 목 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고맙네. 전사 지춘호동무!》

장군님과 봄

박순옥

분홍수건 날리며
처녀들 휘－휘－
회초리로 몰아 가는 하얀 염소떼
푸른 풀판 몽실몽실 젖빛구름떼는
봄날의 따스한 아지랑이는 아닙니까
봄아지랑이는 아닙니까

시내가 잠 자는 버들개지
흔들어 깨우며
우렁우렁 들려 오는
발전소동음소리는
봄을 알리는 우뢰소리는 아닙니까
봄우뢰소리는 아닙니까

이 봄날 아침도
먼 길을 다녀 오신듯
찬 이슬 내리는 야전승용차에서 내리시어
조국의 봄들판을 마주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여라

－보시오, 동무들!
얼마나 좋은 봄이요
우리 인민은 끝끝내
사나운 겨울을 이겨 내고
봄을 불러 왔소
승리한 사회주의봄을!

그때라 하늘가로 나래쳐 오르는
두루미떼의 날음소리
아득히 펼쳐 진 드넓은 벌엔
파릇파릇 움 트는 감자밭 밀보리밭
발 가는 트랙틀의 우렁찬 발동소리

새로 꾸린 양어못가에 정겨운 눈길도 보내주시며

해빛처럼 웃으시는 장군님
잊으셨는가 봄니다
자강땅을 찾아 강원땅을 찾아
넘고 넘으시던 험한 령 굽이굽이
야전복옷덮을 파고 들던 그 눈바람은

눈비에 젖으시던 그 옷자락
자신의 체온으로 말리시던 그 옷자락아래서
추위를 이겨 낸 이 봄씩 움 터 오른줄
감자꽃 피우는 대흥단의 이랑이랑이 알고
3모작 움 트는 자강땅의 비탈밭이 다 아는데
그이만은 그것을 잊으신듯 모르시는듯

정녕 모르시는가 봄니다
저 해발과 마주 웃으시며
저 들과 마주 웃으시며
알찬 이삭들을 영글어 안아 올릴
가을날의 설레임을
벌써 다 안아 보시는 장군님

우리의 가슴속엔
인민의 가슴속엔
장군님의 밝으신 그 눈빛이 보여 오고
따뜻한 미소, 벌을 잠 깨우시는 그 음성
아, 장군님자신이 그대로 봄이신데
조선의 영원한 봄
사회주의봄이신데

아, 모르시는가 봄니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세상이 다 아는 이 봄
시내가의 버들개지초차
감격에 젖어 반짝이는
이 봄맞이기쁨이 어디서 어디서 오는것인지...

수령님추억속에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우리 삼촌은 어려서부터 바람벽도 문이라고 차고 나가는 남아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형권삼촌 하면 먼저 라개죽사발에 대한 일화가 생각난다. 내가 만경대에 있을적 일이니 삼촌의 그때 나이가 아마 열한살 아니면 열두살쯤 되었을것이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저녁마다 수수라개죽을 먹었다. 수수라개죽이란 수수를 껍질채로 망에 갈아서 끓인것인데 맛도 없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운것은 삼킬 때마다 수수껍데기가 목구멍을 따끔따끔 찌르는 것이였다. 나도 라개죽은 질색이였다.

그런데 하루는 형권삼촌이 밥상앞에 마주 앉았다가 할머니가 갖다 놓은 뜨거운 라개죽사발을 이마로 받아 넘겨 엎질러 놓았다. 어떻게나 세게 받아 넘겼던지 죽사발은 봉당에 날아 가 떨어 지고 삼촌의 이마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흘렀다. 아직 철이 다 들지 않은 때이니 죽으로 끼니를 잇지 않으면 안되는 가난에 화가 나서 라개죽사발에 분풀이를 한것이다.

할머니는 <네가 밥다발하는걸 보니 사람구실을 하기 글렀다.>고 하면서 삼촌을 보고 되게 욕하였지만 뒤에 돌아 앉아서는 눈물을 지었다.》

입당청원서

장은하

엄숙한 입당심의의 분위기속에
내 정중히 그리고 숙연히
입당청원서를 펼쳐 드나니
어찌면 이리도 무거우나
한장의 입당청원서

초소의 눈비속에서
총대처럼 굳히고
박달나무처럼 다져 온
병사의 두팔이건만
천만근으로 무겁구나
입당청원서

전화의 그날
가슴으로 화구를 막은
우리 중대 열아홉 꽃나이전사
열화의 그 가슴속에
입당청원서를 품고 갔더라

피 젖은 그의 입당청원서
전우들의 손에 손에
무겁게 들리울 때
아, 전사는 갔어도
우리 당 붉은 기폭은
그를 감싸안고 있었더라

입당청원서 그 앓은 한장 종이우에
소박한 글 몇자
목숨으로 써놓고 간
전사의 그 웨침이
오늘도 이 가슴 두드리누나

그처럼 삶의 자욱을 새기지 않고서는

당이어 내 감히
그대 품에 안길수 없어
병사생활의 순간순간을
군모의 오각별처럼 빛내온 이 마음
걸음걸음 그 품에 다가선 이 마음

아 그대의 붉은 심장에
이 몸의 붉은 피줄을 잇는
내 생의 시작과 끝이 다 있는
나의 입당청원서를 받아 다오

병사생활의 순간순간
격발된 방아쇠마냥
런발하는 총신마냥
정확하고 격렬하리라
총대로 시련을 헤쳐 락을 안아오고
죽음을 길들여 삶을 따르게 하리라

당이어 어머니이시여
그대를 받드는 길에
한점 티라도 있다면
그대를 따르는 준엄한 그 길에
잠시라도 쉬여 가려 한다면
채찍을 들어 다오
사정없이 매질해 다오

달리는 살수 없는 이 몸
내 절해고도에 서 있어도
그대앞에 다진 선서 끝까지 지키리라
만약 돌아 오지 못한다 해도
당이어 어머니이시여
나의 입당청원서를
내 인생의 자서전으로 부디 받아다오!

그리움의 북두칠성

신경애

《엄마, 밥 가져 왔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다...》

갑자기 나타난 딸애로 하여 의아해 하는 내앞으로 딸애는 밥보자기를 내보였다. 그것을 받아 들고 딸애를 쳐다보니 얼굴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 뿜쳤다.

원동에 가계시는 장군님을 생각하며 아침출근도 더 빨리 하고 밤은 밤대로 늦게까지 일하느라 공장이 들끓고 온 나라가 밤을 몰랐다. 요새는 모두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잊고 살다싶이 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것도 모르고 일하는 엄마를 찾아 딸애가 온것이다. 그도 아마 엄마의 마음에 자기의 작은 마음도 보태고 싶어 밥까지 지어 가지고 온 모양이었다.

퇴근길에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싱그런 바람결이 나의 불을 살듯이 애무해주는듯 했다.

《엄마, 저기 저 별 좀봐.》

나는 딸이 가리킨 먼 하늘가를 올려다 보았다.

드넓은 하늘가엔 은구슬이 뿌려 진듯 반짝반짝 별들이 충충했다.

별, 별, 바라볼수록 추억을 불러 주는 별이다. 별들이 어떻게 생겼을가, 달이 만들어 놓았나 우연히 만들어 진것일가 싱갱이질하던 아이의 추억, 유치원에서 가슴에 달아 준 별을 달고 언제먼저 하늘의 별을 다 따올수 있을가 엉뚱한 생각을 무르익히던 유년시절의 천진한 꿈이 실린 별, 별처럼 아름답게 빛날 인생을 약속하며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고 커가는 자식들의 착한 마음에 달아 주던 별이기도 했다.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저 있는 저 하늘의 은하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깝다고 할수 없는 저 별은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원과 희망, 념원을 담아 보기도 하던 별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성표의 하나인 고구려시기의 《석각천문도》와 1395년에 만들어 진 《천상열차분야지도》.

먼 옛날옛적 신비로운 은하계와 가까이 지려는 념원으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은하수의 자리길을 이 땅위에 새겨 놓았다. 우리 선조들의 념원이 어린 별들의 자리길은 세월의 흐름속에 희망과 그리움의 자리길로 새겨 지지 않았던가.

우리 인민은 그토록 념원하던 위대한 태양, 수천년 묵 마르게 기다려 처음으로 맞이한 인민

의 우리 수령님을 캄캄한 밤하늘에 솟아 오른 새별에 비기였다. 또 한분의 위대한 장군의 탄생을 두고서는 백두광명성에 비기였다.

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그 별을 우러러 살아 왔다. 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한 대상으로, 그리움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그 별을 우러러 절해고도에서도 수령님의 영상을 그려 보던 항일의 투사들, 그 녀을 이어 북두칠성 우러러 전화의 날 험준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고 넘어 기어이 최고사령부를 찾아 온 50년대 영웅전사들.

그 별을 가슴에 안고 그 별처럼 아름답게 산 60년대의 태성할머니, 90년대 김광철, 정성옥영웅...

오늘도 장군님을 그리며 수천수만의 《안영애》들이 저 별을 보고 있는 이 밤.

북두칠성이 못별들속에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저 별이 북두칠성이라지요. 그럼 원동에 계시는 장군님께서 저 북두칠성을 보고 계실까요?》

엉뚱한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딸애가 가리킨 별이 자연과목에서 배운 별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애도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에서 저 별을 가리켰으리라. 지금껏 철부지아이라고만 여겼던 딸애의 급격한 성장을 보느라니 어머니로서의 자부로 가슴 뿌듯해 졌다.

《그럼, 장군님께서도 저 별을 보고 계실거야.》

순간 나의 가슴은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걱정으로 파도쳐 설레었다.

지금 이 시각도 원동의 어느 한 지방에 가계실 장군님께서도 저 별을 보시며 깊고 깊은 사색의 심연속에 잠겨 계시리라 생각하니 가슴 뭉클 젖어 들었다.

8월의 무더위속에서도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낮과 밤을 보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 한번 잊어 본적 없으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 계실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렸다.

불현듯 나의 귀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동행했던 한 일군의 이야기가 되새겨 졌다.

어느 해인가 외국방문의 길에서 수령님결을 떠난지 이제 엿새밖에 안됐는데 퍼그나 오래 된것 같다시며 수령님이 못내 그렇다고 동녘하늘가를 바라보셨다던 우리 장군님.

지난해 로씨야련방방문의 길에서도 조국을 떠난지 열흘밖에 안되었는데 조국인민들이 못 건디

게 그림다고, 조국인민들이 커다란 생산성과로 나에게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이번 방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먼저 한 일군을 보내시며 조국에 가는 동무가 정말 부럽다고, 어서 가서 인민들의 생활을 돌봐 주라고 부탁하셨다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가슴에 뜨겁게 흘러 들었다.

우리 장군님 그날처럼 수령님의 조국, 수령님 말기고 가신 인민들생각으로 잠못 이루시며 이 밤도 달리는 렬차안에서 저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계시리라. 그이께서 보시는 북두칠성엔 사랑하는 인민들의 정다운 모습이 차례차례 비껴 지리라.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가는 선군의 총대 동지들의 믿음직한 모습, 정보산업시대의 미개척지를 향해 새로운 탐구의 밤을 밝혀 가는 과학자들의 슬기로운 모습이며 고난의 시기 장군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강계와 라남, 대흥단의 미더운 모습도 지하막장의 탄부들과 광부들의 모습도 그려 보시리라. 그리고 장군님을 그리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무하는 학생소년들의 취주악소리도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세쌍둥이들의 고고성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리라.

장군님께 있어서 그리운 인민은 뻘수 없는 자신이였고 한생토록 없고 살 마음의 하늘이었거니.

이 밤 조국인민들의 새 소식앞에서 쌓이고 쌓인 피로를 가시고 수령님께서 사랑을 기울여 키우고 말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인민의 아들, 인민의 총복으로서 그 기대에 보답할 좌우명을 더욱 굳히실 우리 장군님.

일찌기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수령님뜻 이어 세계에 조선을 떨치시려는 불 타는 맹세를 시에 담아 읊으시고 그 맹세 안고 선군혁명의 길을 개척하신 우리 장군님.

하가네 이 밤도 우리 조국인민과 동지들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애정을 가슴깊이 묻어 두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수령님 바라시던 강성대국으로 빛내시려고 우리 인민을 더 잘 살게 하시

려고 끊임 없는 사색과 로고, 헌신의 머나먼 장정의 길을 이어 가시는것이 아닌가.

장군님의 그 뜨거운 애국애족애민의 마음 인민이 잘 알아 우리 인민은 장군님 기다리는 이 하루하루를 천날맞잡이로 값높이 사는것이고 어른이건 아이이건 할것없이 자나깨나 장군님 한분만을 그리며 그이와 숨결을 같이 하고 심장의 박동을 맞춰 가는것이다.

장군님과 인민사이에 오가는 그리움의 세찬 맥박! 이 맥박이 이 땅에 흐르는 용암과도 같은 거대한 힘을 지니고 이 세상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그 마음들로 이루어 졌기에 저 하늘의 북두칠성이 저리도 령롱한 빛을 뿜는것만 같았다.

장군님과 인민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을 엮어 보는 저 북두칠성!

정녕 저 별은 자연계의 별만이 아니다.

북두칠성! 저 별은 원동이 아득히 멀어도 지척인듯 가깝게 해주는 마음의 별, 장군님은 인민을, 인민은 장군님만을 그리는 혼연일체의 크나큰 별, 장군님과 인민의 마음을 이어 주는 그리움의 별이기도 하다.

태양을 중심으로 쉼없이 돌고 도는 은하계의 북두칠성!

저 별들속에 나도 있고 내 딸도 있고 우리 인민모두가 있으며 장군님 따르는 인류의 마음과 마음이 있는것이다. 우리 장군님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기에.

《아야, 저 북두칠성도 장군님 그리며 사는 너와 나, 우리모두의 마음속생각을 장군님께 전하여 줄거야.》

《그래요 어머니, 나도 매일 북두칠성을 보며 장군님과 이야기를 나눌테예요!》

장군님을 그리는 어린 딸애의 마음이 이러할진대 장군님께서 부디 안녕히 다녀 오시기를 바라는 인민의 마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북두칠성아, 언제나 그리움에 사는 이 나라 인민의 간절한 마음 어서 장군님께 전하여 주렴!

북두칠성 유난히도 빛나는 그리움의 밤, 그리움에 잠 못드는 조국의 밤은 진정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그리움의 나라 이 세상 그 어디 또 있으랴!

명언해설

《창작은 심장으로 하는 일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문필기량이나 예술적기교가 높아도 창작가의 불 타는 창작적열정이 없이는 창작이 이루어 질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창작은 순수 잔재간으로 하는것이 아니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의 단순한 문필기량이나 예술적기교의 산물이 아니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창작가들이 주체문학예술의 건설자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으로 가슴 불 태우며 높은 창작적열정과

꾸준하고 인내성 있는 탐구를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창작될수 있다.

수령님 추억속에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형권삼촌은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었다. 1936년 초이니 내가 2차 북만원정을 끝내고 부대와 함께 남호두지방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그때 삼촌의 나이가 서른한살이었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동생도 가고 삼촌마저 가니 혁명을 위해 뼈를 깎고 살을 저미던 나의 혈육들은 다 가고 없는셈이었다. 나는 그때 산에서 삼촌이 사망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지 않고 살아 남아서 망국의 한을 품은채 고국의 이름 모를 언덕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 있는 삼촌의 원수를 갚고 기어이 나라를 찾으리라고 결심하였다.

...

형권삼촌은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에야 수감자들에게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하였다.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죽치고 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 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 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 보곤 한다.》

우리는 낮 선 사이가 아니다

림공식

가렬처절하던 격전터에
씨앗은 뿌리를 내렸구나
내 언제나 잊지 못하던 고지여
백발을 머리에 이고 찾아 온
옛 전사 나를 보고
저렇듯 푸른 잎새들이 진정 못함은 무엇때문인가

저기 있었지
중대의 엄폐호며 전호는
바람에 수림이 설레는 소리는
전우들의 멸적의 함성인듯 이 가슴 치고
내 중기관총좌지에 쌓였던
탄피우에도 씨앗은 뿌리 내려
저리도 밀림은 더 푸른것 아닌가

어디나
육박전의 보병삽을 갈던 바위는
조국을 지켜 흘린 피가 젖은 땅이기에
새 생명은 억세게 자라 푸르청청하구나
새 생명은 나를 낮 설게 보지 않는구나

그 생명이 뿌리를 내린 곳이
어찌 흙이라
그것은 우리가 바친 붉은 피며
고귀한 생명

아, 그우에 뿌리를 박고 있어
조금도 시들지 않고 푸르싱싱함을
너무도 잘 아는 이 로병이기에
살점 같은 이 땅의 모든것은
나에게 하나도 낮 설지 않구나

고지여
너는 흙이 아니다
나와 나의 전우들의 피에 젖은 땅
너는 나의 조국
그 피를 준 어머니를 어찌 잊으랴
그 생명인
어머니와 어떻게 헤어져 살랴
아, 우리는 낮 설지 않구나

영원한 삶의 노래

— 한 정치일군의 수기 —

김상현

개천—태성호물길시험통수식날, 물길 따라 철철 흘러 넘치는 생명수, 그 물결위에 잇을수 없는 한 일군의 모습이 어리여 왔다. 그는 우리 려단의 엄호삼시공참모였다.

물길공사장에 탄원하여 나섰을 때의 엄호삼시공참모의 나이는 예순다섯살이었다. 도농업설계사업소에서 설계원으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 가 있던 그가 공사장에 탄원했을 때 누구나 놀라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였다. 일군들은 말할것도 없고 혈육친지들까지도 대다수가 청장년들인 돌격대원들속에서 제 한몫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를 만류하였다. 하지만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탄원하여 당조직의 지지를 얻어 공사장에 달려 나왔던것이다.

전투장의 시련속에서 고락을 같이 하여 왔기에 그를 잘 알고 있는 나는 그에 대한 추억의 몇토막을 적어 사람들에게 이 수기를 남기려고 한다.

1

려단이 일에 착수한지 얼마 안된 어느 날, 측량작업을 하다가 실참에 우리는 산릉선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정치부장동무, 경성대대가 문제입니다. 인원의 90프로가 보육원, 교양원, 수예공, 판매원으로 힘든 일이란 못해 본 처녀들이지요. 거기에 또 문제는 두달기한으로 교대하기로 하고 온겁니다. 장정로력으로 인원을 보충 받던가 해야지 공사를 해낼것 같지 못합니다.》

비구름이 낮게 드리웠다. 마가을 비바람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월일리 호수가 발치아래로 내려다보였다. 호수쪽을 바라보는 엄호삼의 그늘 짙은 얼굴은 며칠새에 펴 죽어 갔다.

나는 속이 언짢아 저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려단시공참모라는 사람이 동원된 공사인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일에 착수한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인원보충을 제기하다니...

《시공참모동무, 애로조건으로 말하면 모든 대대들이 어슷비슷합니다. 우리는 조건타발하는 대대지휘관들의 말은 듣지부터 말아야 합니다. 물론 경성대대장 채철산이가 대원들을 두고 약한 소릴해서 하는 말씀이야 아니겠지요?》

《예, 경성처녀들이 일하는걸 보고 제 느낀 심정 그대로를 말씀 드린거지요.》

나는 지신을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말을 이었다.

《문제는 우리 지휘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머리속에 있지요. 우리 스스로가 맥을 놓거나 자신심을 잃는겁니다. 우리는 제 힘으로 할수 있다는 결심을 품고 달라붙으면 장정로력을 보충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제 기일에 끝낼수 있습니다.》

마른 풀대를 쥐고 만지작거리는 엄호삼의 얼굴이 서서히 달아 오름을 나는 보았다.

《우리 지휘관들은 높은 요구성을 제기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공사의 기술적요구를 지키고 하루과제는 밤이 아홉이라도 끝 마친다는 주인다운 자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엄호삼의 손에서 풀대가 꺾어 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자책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부장동무, 제 또 마음이 약해 졌겠습니다. 지휘관구실을 똑바로 한다는게 정말...》

자신을 다잡은듯 엄호삼의 두눈에 아까는 볼수 없었던 정기가 흘렀다.

《시공참모동무, 우리 함께 방도를 모색합시다. 어떻게 하면 전투원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하도록 하겠는가를... 지휘부의 일군들모두가 한개 대대씩 맡아 나갑시다.》

엄호삼은 기꺼이 응하였다.

《부장동무, 저를 경성대대에 보내주십시오.》

가슴이 달아 오른 나는 엄호삼의 손을 뜨겁게 감싸 잡았다.

《우리자신들부터 자각해야 합니다. 이번 공사장에서 사람금새가 정해 진다는것을...》 하고 나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꼭 다물었다. 엄호삼의 눈빛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마음의 결의를 읽었기때문이었다.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 지기 시작했다. 찬비가 불을 때렸지만 우리는 비를 그을 생각도 잊고 가슴들이 후더워 진채 손을 마주 잡고 오래도록 서있었다...

병실에 돌아 와서도 나는 시공참모와 나는 이야기를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경성처녀들을 안착시키고 전투사기를 불러 일으킬수 있을것인가. 방도가 없이, 구체적인 작전이 없이 일반적인 해설담화나 계획하고 시공참모를 내려 보낸다 하여 해결될 문제인가?!

잠들지 못하고 사색에 사색을 이어 가던 나의 뇌리에 얼핏 좋은 궁리가 떠올랐다.

옳지, 노래와 시라는 위력한 무기가 있지 않는가.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원추의 가슴팍을 꿰뚫을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왜 미처 깨닫지 못했던가.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로써 정치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노래로써 경성대대 처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물길제방쪽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공사를 마감 지어 장군님께 기쁨 드리고야 말겠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자.

청년들의 정서심리에 맞는 군중문화사업—이것이 바로 급선무다.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나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자정이 넘었지만 시공참모가 잠들지 않았으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다.

언제 비가 왔더냐 싶게 밤하늘은 씻은듯이 개이고 별이 총총했다.

엄호삼의 병실에 불빛이 어려 있었다.

물길설계를 하느라고 밤을 패고 있구나. 저렇게 밤 새워 일하고 낮에는 낮대로 무거운 측량기를 메고 산발을 오르내리고…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이 젖어 들며 나는 방문을 열었다.

《밤이 깊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의아한 낯색을 지으며 그가 자리를 권하였다.

《좋은 공리가 떠올라서 왔습니다.》

나는 엄호삼에게 방금 생각해 낸것을 말하였다.

《그 참 명안입니다. 전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풀머릴 앓고 있었는데… 참 그럴듯 합니다.》

엄호삼은 무척 기뻐 하였다.

《처녀들 생활을 담은 시도 짓고 노래도 지어서 공연준비를 시킵시다. 우리가 우선 한편씩 써봅시다. 자신 있습니까?》

《글쎄요.》 난처한 기색을 짓던 엄호삼이 《저두 젊어서 한때 시인이 돼보겠다고 시를 써서 들고 다닌적이 있습니다. 맘 먹구 달라붙으면야 한편 써내лез지요.》 하고 정색하며 말하였다.

《작품들이 되면 잘 준비시켜 김정숙어머님탄생 기념일날려단이 모인에서 공연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활기 있게 대답하는 엄호삼의 두눈에 예전에 볼수 없던 영채가 어렸다.

방에 돌아온 나는 이 밤으로 가사 한편을 꼭 지어 내야겠다고 마음 먹고 원주필을 들었다. 아마도 고향사람들은 내가 노래를 짓는다면 누구나 웃을것이다. 시와 노래를 짓는거야 젊은 시절부터 취미와 소질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예순나이에 가깝도록 정치일군이나 해본 사람이 될법이나 한 일인가고…

하지만 나는 가사를 써야 했다. 물길노래를…

혹한속에서 시련을 맞받아 뚫고 나아갈려단의 용감한 젊은이들을 노래로써 고무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가사를 쓰도록 추동하였다.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가는 다시 쓰고… 고심 어린 가사창작으로 나는 밤을 꼬박 지새웠다.

이른 아침, 현장에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밤새 쓴 가사를 읽고 또 읽으며 좋은 문구를 찾아 내려 애 쓰고 있었다.

가벼운 손기척소리, 빙긋이 웃음 지으며 들어선 엄호삼이 나에게 종이장을 내밀며 말했다.

《부장동무, 이걸 좀 보십시오. 되겠는지…》

《벌써 시를 썼습니까?》

나는 시가 적힌 종이장을 받고 나서 내가 쓴 가사 《물길노래》를 그의 손에 들려 주었다.

《영원한 삶의 노래!》 시의 제목부터가 크고 심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듯만 싶어 나는 경건해 지는 심정으로 읽기 시작했다.

언제 가면 물길이 열릴가
갈 길은 아득해만 보이는데
병실에 들어 와 난만 잠으면
나를 바래주던 어머니생각

—유치원애들과 나비춤이나 추던 네가
꽤 건디여 내겠느냐
원장선생님도 말씀하더라
교대 시켜 주겠다고…
힘들면 지체없이 오너라—

공사장의 난관을 이겨 내기 힘겨워 집생각을 하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애 어린 처녀의 심리를 잘 그리지 않았는가. 공사장이란 허허벌판뿐이다. 집도 없다. 집을 지을 공구도 못 가지고 배낭 하나만 지고 떠나왔다. 하나부터 열까지 없는 것뿐이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다. 추위가 들이닥쳐 손발이 얼어 들어와 밤이면 잠도 못들고 우등불을 피우고 지새운다.

하지만 처녀는 이 모든것을 이겨 내고 새삶의 터전을 닦으려 일떠선다.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려는 머리속의 《적》과 대결한다.

—용해공의 딸이 라는걸
어디에 가나 잊어서는 안돼
백살구꽃 만발하는 회령고향집
가슴속에 안고 사는 녀성들 슬기롭고
어머님모습 그대로 닮으려는 처녀들
억척같이 굳세고 마음썬 비단 같아
너도 그런 처녀가 아니냐!—

약해 지는 마음 다잡아 주는
아버지의 근엄한 눈빛
그 엄숙한 목소리
회령집 냇을 심장깊이 새기며
어머님 숨결로 호흡하며
신념과 의지 열정을 키운다
서정적주인공의 사색의 바다는 어디로 흐르는가

회령고향집 어머님께서
 처녀들 품에 안고 미소하신다
 녀장수들이라고
 불사신들이라고
 다정하게 치하의 말씀 주신다

아 백배로 용맹은 솟구치나니
 우리를 어찌 나비춤 추던 처녀라 하라
 금실은실 수줍 놓던 처녀라 하라
 산도 바위도 강추위와 눈보라도
 불사신들앞에 활로를 열어 주거니

시를 받아 안고 기뻐 하며 격동된 심정으로 읊어 나갈 경성처녀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앞에 안겨 왔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환희의 걱정이 끊어 올랐다. 나는 자신을 잊고 소리를 내어 시의 결구를 읊었다.

내 한몸 그대로 한줌 흙으로
 물길제방쪽에 보태 진다 하라
 내 심장의 피 깡그리 쏟아
 물길의 흐름에 보태진다 하라
 내 한몸 그대로 물길이 되어
 무궁할 조국의 벌 적시리라
 영원한 삶의 노래되어
 자자손손 길이길이 전해 가리라

나는 엄호삼의 손을 덥석 잡고 축하하였다.

《참 잘 썼습니다. 이 시가 경성처녀들뿐아니라
 려단청년들 모두를 감동시킬것입니다.》

《원 부장동무두, 지나친 말씀입니다. 정서가 짙게 써야 할텐데 생경한 론리만...》

엄호삼의 얼굴에 무척 쑥스러워 하는 빛이 어렸다. 자신 없어 하는 그에게 나는 거듭 말했다.

《내 평이 진짚지는 두고 봅시다. 시의 생활력이 얼마나 큰가를 두고 보잔 말입니다.》

그리고 당부하였다. 시 《영원한 삶의 노래》는 독시로 랑송하도록 하고 시 한편을 더 써서 합창시로 읊게 하자고... 내가 쓴 《물길노래》는 수정가필해서 경성처녀들중 곡을 붙일만 한 능력이 있는 동무에게 작곡을 시키되 음악가동맹 맹원인 직맹위원장이 그를 돕게 합의하였다. 시와 노래이야기, 채담, 토막극 등도 시랑송과 노래들사에 넣어서 경성대예술포럼을 특색 있게 준비하도록 대대장, 정치지도원에게 따로 과업을 주겠다고 나는 말했다.

《앞으로 경성대예술포럼공연이 성공하면 전 려단 모든 대대에 일반화합시다. 모두가 시를 읊고 노래 부르고... 온 공사장이 시와 노래로 차넘치게 합시다.》

《정치부장동무,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밤을 꼬박 새운탓으로 피발이 선 엄호삼의 두 눈에 밝은 광채가 어리었다.

현장으로 떠나자고 재촉하는듯 부르릉거리는 《갱생》의 발동소리가 들려 왔다.

3

저녁총화가 끝나자 나는 다른 일들을 미루고 경성대대에 나갔던 시공참모부에서 만났다. 그는 활기에 찬 밝은 얼굴로 대대장 채철산이와 경성 처녀들이 얼마나 반가와 하며 려단정치부의 계획을 받아들였는가를 자세히 보고하였다...

아카시아나무로 곡괭이자루를 깎고 있던 채철산의 너부죽한 구리빛얼굴이 대번에 확 밝아 졌다.

《그것 참 멋 있습니다. 역시 정치부장동지가 머릴 쓰는군요. 방도를 찾아 놓고 보면 간단한것 같지만 우린 여태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대대장 채철산은 오전 설참에 대원들을 모아 놓고 예술소품공연에 대한 정치부의 사업방향을 포치하였다. 시랑송은 선동원이 말고 《물길노래》는 직맹위원장의 지도를 받아 청년동맹비서가 맡아서 작곡하게 된다는것을 알리었다. 온 대대가 지혜를 합쳐 공연준비를 잘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처녀들의 눈들이 환희와 생기를 머금고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조용히 말없이 흙마대를 메고 다니던 그들이 금시 만 처녀들이라도 된듯 활기로와지고 떠들썩해 졌다...

《시공참모동무가 큰 일 했습니다. 그 시 한편이 얼마나 큰 실효를 나타내는가를 시일이 증명할겁니다. 그때는 아마 참모동무자신도 놀라와 하게 되리라 봅니다.》

엄호삼의 얼굴을 마주 보던 나는 그의 두눈에 젖던 피발이 아침보다 더 넓게 번져 진것과 물질이 생겼다가 터진 자리인듯 아래입술에 검은 피더덕이 엉켜 붙은것을 가려 보았다.

나는 그의 건강을 돌봐 주지 못한 자책감에 잠기며 강경하게 말했다.

《오늘까지 밤을 패면 자리에 눕고 맙니다. 참모장을 대리하는,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시공참모인데 앓아 누워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꼭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러나 엄호삼은 정치부장의 권고조차 듣지 않고 이날 밤도 밤 깊도록 일하였다. 물길도안을 뜨고 공사기일을 앞당길 방도를 찾은 새 설계를 작성하고 구조물들에 들어야 할 자재를 타산하여 문건을 만들고... 낮에는 공사현장을 돌며 시공 지도를 하고 밤에는 낮에 해도 못다할 문건들을 깡그리 정리하여 놓느라 꼬박 새우다싶이 하였다.

지휘부의 일꾼들모두가 엄호삼의 이러한 의지와 열정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탄생기념일 날 시랑송 《영원한 삶의 노래》와 녀성중창 《물길노래》를 포함한 경성대대의 예술소품공연은 려단전투원들의 심금을 울렸다.

물길전투장, 물길이 뻗어 갈 우묵진 곳에 려단

전투원들이 둘러 앉고 제방턱이 될 높은 곳이 무
대로 정해져 경성대대 성원들이 출연하였다.

엄호삼이 쓴 시를 읊는 선동원처녀는 예전에
볼수 없던 활기와 희망에 넘친 아름다운 모습이
였다.

회령고향집 어머님께서
처녀들 품에 안고 미소하신다
녀장수들이라고
불사신들이라고
다정하게 치하의 말씀 주신다

아 백배로 용맹은 솟구치나니
우리를 어찌 나비춤 추던 처녀라 하라
금실은실 수줍 놓던 처녀라 하라
산도 바위도 강추위와 눈보라도
불사신들앞에 활로를 열어 주거니...

선동원이 시랑송을 마치자 열광적인 박수가 터
졌다. 엄호삼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자기가 쓴 시가 경성
처녀들의 가슴을 울리고 이제는 전체 려단성원들
까지 고무하고 있으니 어찌 환희롭지 않으랴.

시와 노래가 엇바뀌는 과정에 이번에는 처녀들
의 합창시가 나왔다. 다섯 처녀가 읊고 있다. 나
는 그들이 읊는 시구절을 듣기보다 그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나는 엄호삼이 들려
준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하며 그들의 마
음속 어느 구석에도 주저와 동요의 어두운 그늘
이란 볼수 없이 깡그리 자취를 감추었음을 확신
하고 기쁨에 넘치였다.

문득 나는 처녀들의 시의 세계에 잠겨 들었다.

뜨거이 어려 와라
우리 장군님 이 길 여시려
달리는 야전차에서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새 물길도면 보아 주시며
지새이신 밤과 새벽을
천리 최전연길 돌아 보시던
4월의 그 봄날에도
이 물길쪽 지나시며 하신 말씀
오늘도 온 공사장에 메아리쳐라
-거저 덕을 보는 공사지!...

아 중부산악지대에서부터
대평원 서해기슭 한끝까지
물길 따라 철철 넘칠 생명수
그날의 사연 출렁이는 물결에 실어
외진 논밭에도
일망무제의 간석지벌에도
환희의 새 물노래 주리
그리운 장군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처녀들의 뜨거운 감정이 시의 분출로 터쳐 지고

있는것이 아닌가.

완공을 앞당겨 아버지장군님을 통수식장에 모
실 그날의 감격이 이번에는 노래에 담겼다.

맑은 시내가에 버들꽃 피는
화창한 이른 봄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초소에 오셨네

앞줄에 선 처녀들의 노래에 이어 뒤줄에 섰던
채철산대대장을 비롯한 남성대원들의 뜨거운 격
정의 노래가 우렁차게 화답했다.

아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뜨거운 그 사랑에 두볼을 적셨네

경성대대의 모범은 곧 일반화되어 려단의 모든
대대들이 명절계기때마다 예술소품공연을 진행
하게 되었다. 온 려단에 시와 노래창작기풍이 서
고 전투원들모두가 《시인》으로, 《가수》로 되
었다.

시와 노래의 힘이 어떠한가를, 시와 노래가 사
람들의 자신심을 북돋아 주고 사기를 불러 일으
키며 희망찬 미래에 대한 락관을 심어 주는데서
얼마나 큰 실효를 나타내는가를 나는 이곳 생활
체험을 통하여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시련을 이겨 내지 못하여 핑계를 대고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제기하는 대원이 한명도 나
타나지 않았다. 모두가 안착되고 지휘관들의 사
업권위가 높아 졌다. 려단정치부는 성과가 있는
대대들에 우승기를 수여하고 우승기앞에서 대대
집체사진을 찍고 사진을 해당 시, 군당위원회에
보내주어 시, 군 영예게시판에 붙이도록 하였다.
혁신자들의 영예사진도 찍어 보내면서 반영편지
를 쓰고 긍정자료를통보를 해주어 공장과 인민반,
부모들에게 소개선전하도록 하였다.

반영이 좋았다. 고난을 이겨 내지 못하고 갔던
사람들이 공사장으로 다시 왔다. 일은 몹시 힘
겨워도 노래와 함께 락관에 넘친 생활을, 희망찬
미래와 결부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어찌
환희와 자책을 안고 돌아 오지 않으랴!

우리는 이렇게 제일 어려운 고비를, 50년래의
혹한과 암담해 보이던 공사정황을 이겨 냈다. 공
사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다는 자신심을
누구나 가슴마다에 드림없이 간직하게 되었다.

신문기자들이 찾아 와서 전투원들의 영웅적투
쟁과 락관적인 생활을 담은 기사들을 써내려 신
문에 보도하였다. 촬영가들도 마감단계에 이른
우리의 물길구간과 생활을 화면에 담았다.

직맹의 해당 일군은 우리 려단이 군중문화사업
에서 모범이라고 하며 전투원들이 창작한 시와
가사작품들을 현상응모작품으로 추천해 주었다.
그리하여 엄호삼의 서정시와 내가 쓴 가사는 당
선되어 직총중앙위원회로부터 상장과 메달을 수

여 받게 되었다.

이날 엄호삼은 나에게 속마음을 터놓았다.

《부장동무, 인생말년에 다달아서야 저는 우리의 생활을 알게 되는가 싶습니다. 이 증서와 메달을 받고 보니 깨달아 지는바가 큼니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에 와서 저는 다시 젊어 지는것만 같습니다. 경성처녀들을 위한 작은 시편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큰 제목을 달았었지요. 이제 물길공사를 끝내고는 꼭 우리 리더생활과 저의 느낌을 담은 서사시를 써볼까 합니다. 그 서사시에는 <영원한 삶의 노래>라는 제목이 어울릴수 있겠지요.》...

그는 열정의 인간이었다. 시인 아닌 열정의 《시인》이었다고 나는 그를 추억한다.

4

직총중앙위원회로부터 상장과 메달을 수여 받은 날 엄호삼이 한 말의 의미를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들었었다.

...나는 인생말년에야 우리 생활을 알게 된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에 와서 나는 다시 젊어지는것만 같다. 공사를 끝내고는 리더생활과 나의 느낌을 담은 서사시를 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호삼이 왜 것처럼 환희에 겨워 하였던가를, 그의 가슴속에서 어떤 마음의 충동이 끓고 있었던가를 나는 미처 몰랐었다. 썩 후에야 그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강쇠인가, 떡쇠인가는 불속에 넣고 달구어 버려보아야 알듯이 인간도 역시 시련의 불길속에서만 그 의지와 신념의 굳기가 검증되는 법이다. 엄호삼이 역시 레외로 될수 없는 인간이었다.

어느 날, 화성대대현장에서 발파사고가 생겨 발파공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나한테 전해졌다. 사고현장에 다달은 나는 엄호삼의 불찰로 일어 난 사고임을 알게 되었다. 생명에 위협을 주는 치명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상이었다. 부상자는 구급처치되어 곧 병원으로 실려 갔다. 리더장, 참모장의 수표가 있는 발파문건을 갖춘 다음에야 발파하게 된 규정을 어기고 엄호삼이 독단적으로 승인하여 발파하다가 사고를 저질렀다.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엄호삼의 정상은 말이 아니었다. 그 가공한 정상을 보고서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어 나는 피로운 심정을 안은채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때마침 험레벌떡 달려 오던 대대참모장이 내앞에서 멈추어 섰다.

《어떻게 된 일ियो? 참모장동무.》

《제가 현장에 있어야했던걸... 모두 제 잘못입니다. 오전에 발파계획이 없는줄로 알고 그만... 오후에 문건비준을 받아 가지고 두꺼비발파 세방 하자고 의논했던건데 발파공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시공참모한테 졸랐다고 합니다. 오전중에 발파하도록... 처음엔 딱 잘라 매고 승인해 주지 않았답니다. 하도 졸라 대니까 할수없이 승

인했지요.》

락심천만해 하는 참모장의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답답해 왔다. 참모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다고 하여 시공참모의 오유로 인한 발파사고라는 명백한 사실을 가리울수는 없는것이다.

나는 이 사고가 엄호삼의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예견하고 있어야 하였다.

나는 참모장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발파규정을 더 잘 지켜야 하겠소. 발파가 예견되는 날엔 참모장은 절대로 현장에서 뜨지 말고...빈 총도 3년에 한번씩 총알이 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소.》

심각한 표정으로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참모장은 《알았습니다.》 하고 거수경례를 붙였다. 나는 리더지휘부로 발길을 돌렸다. 부상자에 대한 치료부터 관심을 돌려야 했던것이다.

엄호삼에 대한 좋지 않은 반영들이 들어 오기 시작했다.

리더참모회의때에도 대대지휘관들이 리더시공참모의 말을 반박하는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엄호삼이 발파사고를 낸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

...결론권도 없는 시공참모가 너무 나선다. 리더장, 참모장이 있는데 뭇때문에 시공참모가 다 맡아 나서서 그러는가. 도가 넘게 군다. 화성의 발파사고가 그것을 실증하지 않는가. 리더지휘부는 앞으로 엄호삼참모가 제 직권에 한한만큼 제할 일을 맡아 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한다.

대대들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리더지휘부에 올라 왔다. 심각한 문제였다.

시공참모의 사업권위는 땅바닥에 떨어 졌다.

엄호삼의 일을 두고 나는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요즈음 의기소침해 진 그를 대할 때면 활력에 넘쳐 있던 전날의 그와 대조되어 더욱 마음이 무거워 지곤 했다. 어떻게 하면 그가 활기를 되찾고 마력을 내어 일하도록 할수가 있겠는가. 묵과할수 없는 오유를 범한 그를 무턱대고 옹호하여 나설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생각하다 못해 대대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나이 많아 가지고도 공사장에 한원하여 나선 시공참모를 믿어 주어야 한다. 그가 일을 잘해나가도록 인간적으로 잘 도와야 한다고 설복하였다. 발파사고를 낸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엄호삼은 밤이 깊어 나를 찾아 왔다.

낮빛이 컴컴하게 질려 있었다. 웬일인가고 묻자 법기관에서 그에게 사고조서를 씌우고 지장을 받았다는것이였다. 가족이나 발파사고를 내어 사업열의가 식어 가는데 사고조서까지 받아 갔으니 더욱 의기소침해 저 일을 잘못할것은 뻔한 리치였다. 나는 그를 위로해 주느라고 원심을 썼다.

...달리 생각할건 조금도 없다. 행정일군인만큼 사람이 상했으니 추궁을 좀 받는거야 응당하지 않은가. 발파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

로 시공참모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쯤한 일을 가지고 너무 머리 쓰지 말고 공사를 더 힘껏 밀고 나가야 한다. ...

이렇게 말해 주는데도 엄호삼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밤은 고요하였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드디어 엄호삼이 고뇌의 빛이 려연한 어두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부장동무, 제 오늘은 아무래도 실토해야겠습니다. 부장동무가 절 돌봐 준걸 생각하면... 그 고마움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제 일을 더 잘해 보자던건데... 이젠 아무래도 시공참모를 탄 사람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전 뒤바라지나 하겠습니다. 전 원체 재목감이 못되는데 주제 넘게 중책을 맡았었습니다.》

엄호삼의 뜻밖의 실토정에 놀란 나는 끝까지 들을수가 없었다.

《시공참모동무, 그건 무슨 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당조직이 동무를 믿고 임무를 준거지 그 누가 동무의 직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수가 있단 말입니까. 본인자신이 그렇게 말한대도 참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젠 당조직을 믿지 못하고... 당조직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봅니다.》

격분한 나의 말에 엄호삼의 얼굴이 삽시에 굳어졌다. 그는 한참동안 말을 못하고 손에 쥔 원주필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에게 모진 매를 안겼지만 그의 심리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의 굳어진 표정이 서서히 풀리며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두눈에 물기가 어리었다. 그의 음성은 격해졌다.

《고맙습니다. 정치부장동무. 믿어 주어서... 전 사실 나라앞에 죄 지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몇몇치 못한 아버지때문에 저의 앞길에 지장이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항상 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죄 지은 사람의 아들을 누가 좋게 볼수 있단말인가, 이것은 저의 편견이었지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건만 당에서는 저를 조금도 차별없이 키워 주었습니다. 농업전문학교를 졸업 시켜 어엿한 농업기술자로 복무하도록 해주었지요. 하지만 전 그 은공을 몰랐습니다. 죄 지은 아버지문제때문에 위축되어 가지고 늘 피동적으로 남의 뒤꼬리나 차지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아들이니 결코 누구도 용납해 줄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신을 속박하며 살아 왔지요.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중뽀나게 나서지 말라. 사람은 제 값을 알고 살아야 한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에 든다는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구 년로보장나이가 되자마자 제격 직장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큰 파오없이 졸업한것만두 다행으로 여겼었지요.》

나는 듣기가 피로왔지만 참고 들을수밖에 없었다. 무엇때문에 묻지도 않는 그런 말을 꺼내어 가슴을 저미는것인가. 당에서 그에 대하여 다 알고 중임을 맡겼는데 일을 잘할 대신에 각성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다니... 언짢은

생각을 누르며 나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년로보장을 받고도 생활은 걱정이 없었지요.

기술도 있고 외국어도 몇개 알고 있으니 저를 찾는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늘 량심가책속에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생에 제 한 일이 너무도 없으니...

이런 때 우리 집안에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군대에 나간 아들이 당에 들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로친네가 더 기뻐했습니다. 저의 《좌우명》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당원인 아들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 보게 되더군요.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몇몇치 못한 한생이었으니까요.

셋째 아들의 소식은 저의 《좌우명》을 시공창에 처박았습니다. 군대에서 배를 타던 셋째는 동지들을 구원하고 바다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장하게 간 아들로 하여 너절하게 살아 온 이 애비의 가슴에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이 안겨 졌을 때 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식들앞에 몇몇한 아버지로 살아야겠다는 때 늦은 자각때문에 몇밤을 꼬박 새우며 모대졌습니다. 드디어 한생을 고쳐 살 결심을 세웠지만 방도가 없었지요. 바로 이때 전당, 전군, 전민을 개천-태성호물길공사에로 부르는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했습니다. 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누구도 저의 청을 받아 주려 하지 않았지요. 당조직에서만이 저의 소원을 알고 성취시켜 주었습니다.》

목이 갈린 엄호삼은 고뿌에 물을 따라 한모금 마시었다. 그의 진정이 뜨겁게 안겨 와 나의 생각은 깊어 졌다. 직총중앙위원회의 상장과 메달을 수여 받은 날 그가 하던 말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련상되었다.

새 결심을 품고 장군님께서 불러 주신 전투장에 펼쳐 나선 엄호삼을 당당히 내세우고 떠밀어 주지 못할 근거가 무엇이랴. 인생말년에 진리를 찾고 자식들의 기억속에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게 하려고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그를 고무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를 참된 정치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나는 대대지휘관들도 다 참가시킨 려단참모회의에서 시공참모의 사업권위를 보장할데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엄호삼의 갈린듯 환 음성은 펍 낮고 부드러워졌다.

《정치부장동무, 시공참모직책을 그만 두게 해달라고 한 제 말을 꼭해하지 마십시오. 저때문에 너무도 마음 쓰는 부장동무를 보다 못해 그랬던겁니다. 앞으로 정신을 더 바짝 차려 다니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일하겠습니다.》

나는 격동된 심정으로 그의 손을 으스러지듯 감싸잡으며 말했다.

《우리 돌격선에 선 병사의 심정으로 삽시다.

원췌의 가슴팍을 겨누고 총창을 비껴 든 병사가 뒤를 돌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나 자신을 다잡는 말이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비상만 결의를 담고 엄호삼의 음성은 떨리었다.

5

엄호삼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 저 가고 있었다. 공사기일을 앞당길 새 설계를 창안했을 때에는 지휘부참모회의에서 합의한후에 중앙지휘부의 승인을 받고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여 술한 공사 자금과 자재, 로력을 절약하곤 하였다. 그의 눈빛은 자신만만해 지고 웅심 깊어 졌으며 두려움을 모르고 예리하게 번쩍이었다. 젊은이들마냥 씩씩 걸어 그의 걸음걸이를 보며 전투원들은 모두 《엄아바인 공사장에 와서 10년은 젊어 졌다》 고들 말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왕성한 정력으로 일하는 그를 보니 나의 마음도 즐거워 졌다. 이따금 대대지휘관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생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가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일하도록 떠밀어 주곤 하였다.

어느 날 나는 중앙지휘부에 모임이 있어 갔다가 때 늦게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대절토구간에 있어야 할 화성대대의 굴착기가 화성의 흙물길구간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러단참모회의에서는 화성, 길주대대 굴착기를 비롯한 몇대의 굴착기들과 모든 중량차들을 대절토구간에 집중하기로 토의결정하였었다.

누가 감히 참모회의결정을 무시하고 대대본위주의를 쓰며 러단의 규률을 문란시키고 있는가.

분격하여 화성대대현장에 다달은 나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굴착기를 대절토구간에 돌리라고 지시하는 시공참모 엄호삼이와 맞서 화성참모장이 큰소리까지 탕탕 치며 대들고 있는것이 아닌가.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고 옆에 둘러 선 대원들도 참모장과 한쪽인듯 말리지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시공참모와 참모장의 논쟁에 주의가 끌린 그들은 내가 곁에 다가서는줄도 모르고 있었다.

《참모장동문 자격이 없소. 난 동물 처벌하자고 제기하겠소.》

엄호삼의 벽력 같은 목소리에 참모장은 더욱 기를 돋구었다.

《담대로 하십시오. 처벌 같은건 난 무섭지도 않소. 몇바가지만 더 뜨고 인차 보낸다구 그렇게 사정하는데... 아바인 인정머리가 없다니까요.》

《그게 어디 나한테 사정해서 된 일인가. 러단참모회의결정을 어떻게 흥정한단 말이요.》

엄호삼은 딱 잘라 매머 손을 핵 내리긋고 굴착기운전공에게 지시했다.

《운전수! 빨리 차를 몰라구. 대절토구간으로!》

자기 참모장의 눈치를 보며 운전칸으로 오르려는 운전사에게 참모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 동문 누구 지실 받는거야?! 직속상관 말은 안 듣구...》

운전사는 흠칫하며 못 박힌듯 서버렸다. 손상당한 자존심과 모욕감으로 하여 엄호삼의 낮빛이 질리는데도 아랑곳 않고 참모장은 게두덜거렸다.

《장대 뻗쳐 백살나마 살것 같은 모양이지. 그 나이에 공사장에까지 와서 큰 소릴 치다니 원.》

엄호삼의 두눈에서 번개 같은 불꽃이 펴듯 이는듯 하더니 인차 꺼지고 얼굴이 해쓱해 졌다.

나는 더 듣고 있을수가 없어 두사람앞에 나섰 다.

《왜들 이러우? 나이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엄호삼은 멧적어 하며 물러 서는데 참모장이 오히려 불만을 터뜨렸다.

《아바이두 어찌나 꼬쟁인지 굴착길 조금만 더 쓰구 보낸다는데두 저렇게...》

나는 참모장에게 그가 옆에 놓았던 삽을 들려 주며 익살을 섞어 나무랐다.

《경우를 보니 참모장이 물리게 됐구만. 경우에 물리면 우둘렁거리기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리지.》

그리고는 어쩔줄 몰라 서 있는 운전사에게 눈짓했다. 운전칸으로 뛰어 오른 운전사가 굴착기를 대절토장으로 몰아 가기 시작했다.

엄호삼은 굴착기의 뒤로 두벽두벽 걸어 가고 있었다. 전 같으면 치욕감으로 하여 어깨가 축 처져 얼굴을 쳐들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걸으려만 지금의 그는 당당한 자세로 고개를 쳐들고 걸어 가고있었다. 때맞추 내가 나타난것을 그가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겠는가. 하지만 그는 아무 감정도 나타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듯 천연스레 걸어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의 뒤모습을 바래우고 난 나는 참모장을 꾸짖기 시작했다.

《참모장동무, 동무의 행동과 발언은 결코 묵과할수 없소. 동문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정하오?》

참모장은 얼굴이 검붉어 진채 대답을 못했다.

《사내대장부답게 말해 보오. 동무 잘못을...》

한순간 잠자코 있던 그가 얼굴을 번쩍 들고 활달하게 대답했다.

《러단참모회의결정을 어기구 대대의 리속을 차린것입니다.》

《물론 대대본위주의를 한것도 나쁘오. 하지만 더욱 엄중한 문제가 있소.》

《다음은 제가 엄아바이 인격을 모독한것입니다.》

《웁소, 바로 그것이요. 나이로 보나 직위로 보나 동무가 어찌면 그럴수 있소?! 아무런 엄아바이가 된장 한단지라도 더 축낸 사람일테지?! 그런데 동문 그런 선배를 존경할 대신 전직도 없는

년로보장자로, 비당원이라고 숙보았던거요. 그런 사람이 지나치게 간참한다고 시끄러운 존재로 여겼을거요.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그를 모욕하는 발언이 나온거구... 어쩡소? 내 말이...》

《옳게 보았습니다. 정치부장동지.》 하고 자인하는 참모장의 긴장한 얼굴에 진지한 빛이 어리었다. 그의 이마에 내뿜은 땀방울이 나의 비판을 받아 들이려는 성실한 태도를 알수 있게 하였다.

《참모장동문 엄호삼참모를 그렇게밖엔 생각 못하지만 려단의 모든 지휘관들, 전투원들은 그를 혁명선배로 존경하고 있소. 왜 그런가? 그것은 엄호삼동무가 책임성이 높은,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지휘관인데도 있지만 동무같은 새 세대 일군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전인 50년대, 60년대에 벌써 혁명과 건설을 위해 헌신했기때문이요. 알겠소?》

《알았습니다. 정치부장동지, 시공참모동지 혁명선배로 존경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럼 됐소. 시공참모한테 사죄하십시오.》

나는 썩 개운해 진 마음으로 참모장의 경례를 받으며 떠나갔다. ...

며칠이 지난 뒤 나는 엄호삼의 이런 말을 들었다.

《정치부장동무, 화성참모장이 나한테 잘못을 빌더군요. 내가 술을 못한다는걸 알구 고구마람 꽃강냉이랑 삶아 놓구 권하면서... 그날 부장동무한테 진담을 뿜었다면서요!》

나는 엄호삼의 이야기에 마음이 즐거워 저 유쾌하게 껄껄 웃었다.

엄호삼은 공사의 그 바쁜 나날에도 남 다른 인정미를 지니고 아래사람들을 돌봐 주곤 하였다.

경성대대의 잠관굴착작업을 하던 7월 어느 날, 감랑속에서 여러날 일하다보니 경성청녀들의 몸에 종치가 나서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나는 대대장 채철산을 만났다.

《걱정 마십시오. 정치부장동지, 시공참모동지가 좋은 약물을 가져다 주어서 그걸 바르구 다 나 있습니다. 엄아바이가 거의 매일이다싶이 물약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아바이가 손수 만든 약물인것 같습니다.》 하고 채철산이 감탄조로 말했다.

엄호삼의 인정미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한두가지랴. 화성대대의 한 모범전투원이 려단참모부의 참모처녀와 눈이 맞은것 같다고 나에게 제일 먼저 귀띔해 준 사람도 엄호삼이었다. 피 땀은 청년들의 투쟁과 삶이 있는 우리 공사장에 청춘들의 사랑이 없어서야 되겠냐며 환히 웃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처녀와 총각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것을 안 다음부터 나는 화성대대에 사업포치할 일이 생기면 참모처녀를 보내곤 했다.

그들의 사랑이 나날이 두터워 지는것을 보고 누구보다 기뻐 한 사람이 엄호삼이었다.

함박눈 내리던 어느 날, 나는 자정이 넘도록 려단장과 함께 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고 있었다. 가벼운 손기척소리와 함께 방에 들어선 엄호삼은 중앙지휘부에 올려 보낼 설계문건을 내놓으며 말했다.

《좀 봐주십시오. 최대한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향에서 설계했습니다.》

대머리를 어루쓸며 한동안 문건을 보고 있던 려단장의 얼굴이 대번에 확 밝아 졌다.

《수고했소. 래일부턴 이대로 공사에 착수하거요. 그러자면 무엇보다 해야 하겠소?》

《대대구간마다 표시기부터 꽃아 주어야겠습니다.》 하고 엄호삼은 려단장이 묻기 바쁘게 제격 대답하였다. 나는 탄복하여 마지 않았다. 엄호삼의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탐구심, 비상한 열정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것이 아닌가. 사업토의는 끝났는데도 그는 무엇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얘기할게 또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는 품속에서 편지봉투 한장을 꺼내여 내놓았다.

《로친한테서 편지 왔습니다. 령감을 자랑스럽게 내세워 졌다구 고마와 합니다.》

나는 속지를 펼쳐 들었다. 글자들의 획은 고르롭지 못해도 보기 좋게 토박토박 박아 쓴 소박한 필체였다. 나는 려단장이 듣게 소리내여 읽었다.

《...어제 동당위원회에서 불러 갔더니 려단정치부에서 보낸 편지와 사진을 주더군요. 려단장, 정치부장어른들이 당신 량팔을

끼고 찍은 사진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웠수다. 한생을 헛산것만 같다고 한탄하던 령감이 아닌가요. 그 심정을 생각하니 더욱 눈물이 비 오듯 해서... 난 아무 말도 못했수다. 편지는 집에 와서야 읽었지요. 직장에서 나와 값없이 살던 령감이 그런 복을 누리다니요. 려단이 맡은 물길공사기술문젠 푸는데서 당신이 제일 큰 몫을 맡아 하고 있다니 난 그저 죄 지은 심정뿐이웨다. 공사장에 탄원해 나설 때 싣듯 찬성해 나서지 못했던게 뉘우쳐 지요. 령감의 사진이 영예게시판에 나고 회의주석단에까지 앉고...

그런 일이야 어디 꿈엔들 생각해 봤겠나요.

령감님, 일을 잘해서 장군님께 기쁨 드리구 돌아 오는 그날 난 령감을 <개선장군>처럼 맞아 들이겠수다. 큰 절을 올리면서 잘못을 빌겠수다. 령감이 언제 오늘처럼 돈보인적 있었나요. 난 려단정치부에서 보내온 령감소식을 우리 애들한테도 인민반에도 크게 소문내고 있수다.

구역당에서 령감사진을 영예게시판에 내걸어 그러지 않아도 소문나고 있지만... 부디 앓지 말고 건강하여 <개선장군>으로 돌아 오기를 손 꼽아 기다리겠수다....

읽기를 마쳤지만 누구도 말이 없었다. 젊은 시절을 되찾은듯 열정과 희망에 넘쳐 살고 있는 엄호삼부부를 축하해 줄 말들이 가슴속에는 차고

넘쳤지만 가볍게 선뜻 입박으로 흘러 나오지 않았다. 러단장도 같은 심정인듯 두눈을 슴뻑이는 엄호삼의 행복에 겨운 얼굴을 바라볼뿐이었다.

드디어 러단장이 물었다.

《그래, 회답은 보냈소? 엄아바이.》

《차츰 써보내지요.》

엄호삼의 레사로운듯 한 말에 나도 한마디 권고했다.

《늘그막 정이 더 깊다는데 어서 회답을 해야지요. 공사를 앞당길 새 설계를 완성했다는 소식도 전하십시오.》

《그러지요.》

엄호삼의 두눈에는 보람찬 새삶을 찾은 희열의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함박눈이 솜이불마냥 공사장을 뒤덮었다. 지휘부의 일군들모두는 새 설계작전에 따라 표시기를 쫓으려고 대대마다에 내려 갔다.

나도 분담에 따라 화성대대로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경성대대로 나가기로 했던 엄호삼이 웬일인지 바꾸어 나가지고 제기했다.

얼핏 화성참모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참모장이 꽃강냉이와 고구마를 삶아 놓고 권하면서 사과를 했다는것, 정치부장한테 진땀을 뺏고서야 그가 오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던 엄호삼의 말이 려상됐다.

나는 별생각없이 그의 제의에 동의하였다.

내가 대대장 채철산이와 함께 눈을 친 자리마다에 표시기를 쫓아 나가고 있는데 직맹위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내앞에 다가섰다. 꺼떻게 기가 죽은 얼굴, 고뇌와 슬픔에 찬 눈빛... 불안한 예감으로 나의 가슴은 떨렸다. 드디어 목이 멘듯한 직맹위원장의 비애에 찬 음성이 울렸다.

《정치부장동지, 시공참모동지가... 엄아바이가 돌아 갔습니다. 화성참모장을 구원하고...》

나는 쓰러질듯 휘청거렸다. 켜기였던 마음의 금선이 툭 끊어 지며 온몸의 맥이 쑥 빠져 버렸다.

(시공참모가 죽다니... 펄펄한 아바이가...)

갑자기 호흡장애가 오고 심장의 아픔을 느꼈다.

(안해의 편지를 받고 것처럼 기뻐 하던 아바이가 죽다니...)

채철산이 나를 부축하였다.

《정치부장동지!》

나는 자신을 다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였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화성에 그를 공연히 보내가지고... 내가 갔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가.)

전말을 알리는 직맹위원장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자책의 모지름속에서 벗어 날수 없었다...

밤새에 내린 진눈이 원인으로 되었다. 화성대대질토구간의 비탈면에서 굴러 내린 커다란 눈덩이가 암반우에 드러나 있던 동이보다 더 큰 바위들을 때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러개로 갈라 진

눈덩이들과 함께 바위들이 굴러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참모장은 밑에서 허리를 굽히고 표시기를 쫓느라고 직통으로 쓴살같이 날아 내리는 바위들의 위협을 못 느끼고 있었다. 몇발자국 떨어 진 곳에 있던 엄호삼이 먼저 이것을 발견하고 《피하라— 참모장!》 하고 웨침과 동시에 몸을 날렸다. 참모장은 구원되었으나 엄호삼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고 쓰러졌다.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람들이 달려 왔을 때 엄호삼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숨을 토폴며 하는 말이 더욱 사람들을 울리었다.

《참모장, 정치부장한테 전하라우. 날 대신해서... 로친한테 회답편지 써달라구... 령감은 여한이 없이 간다구... 단지 장군님께 기쁨 드리지 못하구 가는게...》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그와 함께 지내온 나날의 그 모든 정회가 가슴속에 살아 났다. 그의 안해의 편지구절이 떠올라 더욱 가슴이 찢기였다.

《개선장군》으로 돌아 올것을 믿는 안해앞에 무슨 면목으로... 어떻게...

엄호삼은 흰 눈우에 잠든듯이 누워 있었다. 물길쪽우에 꽃혀 진 화성대대의 붉은 기폭이 흰 눈빛과 대조되어 진홍색으로 더욱 선명하게 불 타며 거센 나래마냥 펄럭인다.

채철산이 눈물을 견잡지 못하며 참모장의 손을 더듬어 잡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참모장, 진정하라우. 마음의 준빌 갖춰야지.》

나도 눈물을 흘리며 맘속으로 부르짖었다.

《참모장, 우린 시공참모와 영결해야 해. 영결식을 잘하자구. 아바이의 고결한 죽음이 영원한 삶으로 빛난다는걸 세상에 알리자구.》

비보에 접한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러단장, 참모장, 참모부와 정치부의 일군들, 대대지휘관들, 러단의 모든 전투원들이 고인을 중심으로 모여서 고개들을 떨구고 눈물을 뿌린다.

경성의 선동원처녀가 고인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뒤로 잇닿은 경성처녀들... 감탕속에서 잠판공사를 할 때 종처가 난 처녀들을 치료해 주느라고 약물을 만들어 보내준 인정 많은 엄아바이! 경성처녀들을 위해 밤 새워 시를 쓰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었던가!

선동원처녀가 읊던 아바이가 쓴 시구절이 처녀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어 있는데야 그들이 왜 저토록 슬퍼 하지 않으랴!

내 한몸 그대로 한줌 흩되어

물길 제방쪽에 보태진다 하라

내 심장의 피 깡그리 쏟아

물길의 흐름에 보태진다 하라

내 한몸 그대로 물길이 되어

무궁할 조국의 별 적시리라
영원한 삶의 노래되어
자자손손 길이길이 전해 가리라
엄호삼동무는 이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

물길 따라 생명수가 넘쳐 흐른다. 넘실대는 그
물결 위에 엄호삼시공참모의 모습이 비낀듯만 싶
어 가슴이 젖어 든다. 그와 함께 보낸 나날의 잊
지 못할 추억들이 감회도 새롭게 떠오른다. 근면
하고 소탈하고 열정적인 한 인간의 참모습이 흐

르는 물결과 더불어 더욱 친근감을 불러 온다.
인생말년에야 우리의 생활을 알게 되었다고,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에 와서 다시 젊어 젊으
니 공사를 완공하여 장군님께 기쁨 드린 후에는
꼭 서사시 《영원한 삶의 노래》를 써서려단생활
과 자기의 느낌을 담겠다고 하던 엄호삼동무의
열렬한 소원은 성취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별처
럼 빛나는 최후를 마친 그의 한생이 곧 시로 되
여 저 푸른 물결과 더불어 길이길이 남을것이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 함경북도려단에서)

하늘이 뜨겁다

서봉재

백두의 푸른 하늘아래
높이 솟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항일의 총대로 탑신을 세워
오늘도 격전의 그날을 불러 오는듯
불을 뿜은 저 총구 하늘을 덥힌다

하늘에 치솟은 저 총대
일제의 아성을 뒤흔든 저 총구에서
민족재생의 숨결을 이어 주던
아, 그날의 대홍단의 총소리
수령님의 총성으로 삼천리를 울리던 총소리

백두의 하늘가에만 머무른것 아니구나
20대의 청년장군 우리 수령님
—일제침략자들을 모조리 소탕하라!
추상같이 원수를 징벌하시던 그 모습
내 승엄히 우리러 바라보니
빨찌산 김대장의 그 명령
쿵쿵 천만 가슴을 두드린다

굳게 잡으신 저 쌍안경엔
달려 드는 침략의 이리떼들을
홍단벌의 수령창에 꾸겨 박은
천출명장의 예지가 비껴 있고
일제의 숨통을 찌르시는 저 손길에선
멸적의 화염이 쏟아져 이 땅을 달구었다

중중첩첩 고난을 헤치시며
한흠의 미시가루사랑으로 대오를 이끄셨고
찬 얼음 깨무시며 장진한 그 증오

싸움의 전장마다 승리를 펼쳐
온 조국강산에 희망의 하늘로 열어 주신
수령님의 불멸의 총성이여

짓밟힌 강산에 타오르던 대홍단의 그 불길
총대만이 민족을 구원하고
총대만이 조국의 광복도 안아 올수 있음을
온 세상에 투쟁의 철리로 울려 주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일성장군!

항일의 옛 전장 높이 솟은 기념탑아래
예대로 철쭉꽃은 만발하고
아름드리 이깔숲엔 정적이 흘러도
총대의 진리와 총성의 그 깊은 의미를
혈전의 언덕을 넘으며 새기셨기에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혁명의 총대를
기념비의 탑신으로 하늘높이 세워 주신것 아닌가

아, 저 총대의 가차 없는 불로
세월이 흐를수록 증오의 화약은
원수를 향해 한계없이 장악된다
그 불 이 땅의 천만 총폭탄에 재워
대홍단의 총성은 오늘도 조국땅에 울려 가나니

항일의 싸움터에 높이 솟은
저 총대의 불길에 합쳐져서
군민의 심장에 불이 일고
온 조국강산이 불을 품은
저 하늘은 위대한 령장의 뜻으로 붉다
내 바라보는 우리의 하늘이 뜨겁다!

내 노래는 한곡조 외 2편

백하

내 깊은 산중에 도끼날 날릴제
흰 머리에 흥건히 젖은 땀 문지르며
산길을 굽어 보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네
사무치게 그리운 장군님 노래

내 산골짜기의 달빛을 홀로 밟을제
머나먼 평양하늘 밝은 별 우러러
지새도록 절절히 노래를 불렀네
목숨이 다하도록 내가 부를 장군님 노래

기뻐도 피로워도 내 노래는 한곡조
멀리서도 내 노래는 한곡조

다른 노래 나는 몰라라
내 한몸 부서지면
한치한치 기어 가서
어버이품에 얼굴을 묻고
행복에 겨워 노래 부르리
아, 숨지면서도 내가 부를 장군님 노래

나의 갈망

자나깨나 나의 온 심혼은
하나의 갈망으로 불 탄다
투쟁의 길을 해불같이 밝힐
좋은 시를 써 장군님은혜에 보답하고자

내 한생 아늑한 서재에서
시를 쓰지 않았다
건설장의 불보라를 맞으며 시상을 익히고
용해장의 쇠물속에서 시어를 버리었다

장군님을 받들고 나선 첫날부터
내 얼마나 많은 시를 썼던가
허나 부끄러워라 머리 회도록
좋은 시 한편 삼가 드리지 못했구나

하늘 같은 은덕을 몸에 지니고
인간의 도리조차 못 지켰으니

았으나 서나 나의 온 넋은
하나의 갈망으로 활활 타번진다

나를 비발치는 탄우속에 세워 달라
그러면 내 온몸에 줄기치는 붉은 피로
장군님을 어떻게 보위하는가를
환희에 찬 목청으로 소리높이 노래하리라

좋은 시를 쓰고 싶노라
장군님의 위업을 꽃 피우는 길에
천만을 불러 일으키는
기발 같은 시를 쓰고 싶노라

오, 내 결사의 단두대에 선대도
시퍼런 칼날을 웃음으로 마주 보며
장군님전사의 송죽 같은 절개를 담아
나의 마지막시를 자랑차게 읊으리라

토장의 밤

달빛 내리는 토장의 밤
나무바리에 쇠고리 깨면
아름드리 통나무들이 비비대며
하늘에 난다. 날아 오른다

푸실푸실 나무껍질들
어깨우에 땅우에 내려 앉고
우람스런 상차기의 힘찬 동음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

또 한집 화차우에
동발나무를 얹으니
탄광으로 뻗어 간 레우에
달빛이 가닥가닥 기쁨에 뿔다

밤이여 토장의 밤이여
향긋한 통나무우에
내 땀과 이슬이 함께 구르는
끝없이 아름다운 밤이여

내 손에 쇠바줄 닳고 닳아
그 얼마나 갈아 대었던가
통나무 안아 올리며 내 가슴 넓어 지고
화차에 날아 오르며 내 키가 자랐다

언제나 머리에 쫓령이는
기증기쇠고리소리 없어야 살 맛이 있으랴
온밤 상차장대를 쥐고 밤하늘을 나는
나는 토장의 수리개

별들은 내 이마에 부딪쳐 잠을 깨고
누리는 내 옷깃아래 단잠을 잔다
나무더미우에 쇠고리를 풀면
조국은 또 한뼘 키가 자란다
아, 밤이여 토장의 밤이여
나라의 재부가 내 손길아래 키를 높이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토장의 밤이 있어
우리 장군님의 야전차
차창가에 기쁨이 어린다네

생활의 바다속에서

김영근

1. 첫 상봉의 순간에 느낀 인상

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선배작가들에 대한 추억의 글을 시작하면 어차피 그 선배작가와 처음으로 만났던 때의 인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한다. 그도 그럴것이 상봉이 없었다면 추억이 있을 수 없고 추억이 없다면 작가의 인간적면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초가 없을것이기때문일것이다.

내가 소설가 천세봉을 처음 만난것은 주체46(1957)년 가을이었다.

그때 함경남도 수동군당위원회 선전부 계획에 따라 군도서관주최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에 대한 독자모임을 읍영화관에서 한차례, 고원탄광문화회관에서 또 한차례, 두번 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것이었다.

그 독자모임에서 내가 작품의 내용소개 및 첫 토론을 맡았던것이다. 작품소개 및 첫 토론이란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읽지 못한 사람들도 독자모임에 참가할수 있다는 사정으로부터 한시간쯤 소설의 기본흐름을 이야기해 주고 그다음에 작품분석과 따라 배워야 할 점에 대한 첫 토론도 하는것이였다.

나는 필요한 준비를 해가지고 백리 넘는 군소재지에 내려 갔다. 그런데 도서관 관장의 말이 이번 독자모임에는 작가도 참가하기때문에 소설내용을 충분히 말하라는것이였다.

작가가 참가한다! 나는 가슴이 설레이었다.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 《흰 구름 피는 땅》,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제1부) 등을 매우 흥미 있게 감동적으로 읽은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문학창작을 지향하는 청년으로서 그 작품을 창작한 천세봉을 만날수 있다는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으며 동시에 작가가 참가한 장소에서 그 작가의 장편소설을 이야기한다는것은 저으기 긴장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것이였다.

군도서관 관장은 역에 같이 나가서 작가를 마중하자고 했다. 그도 나도 작가를 만나본 일이 없었으므로 얼굴은 알지 못하였지만 열차에서 내리여 표 받는 곳으로 빠져 나오는 손님들을 주의깊이 보노라면 이 산골군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작가의 모습을 짐작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면서 역으로 나갔다. 기차는 정시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표 받는 곳 옆에 서서 다림발이 선 고

급양복에 특색 있는 넥타이를 매고 값 나가는 중절모와 코트, 어쩌면 번쩍이는 안경을 썼을수도 있는 그러루한 옷차림으로서 대뜸 작가라고 짐작할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작가 천세봉의 옷차림을 그쯤으로 상상하게 된것은 1950년대 중엽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 중편소설을 두개나 써내고 장편소설까지 써낸 작가는 열손가락안에 꼽을 정도밖에 안되었으므로 것처럼 뛰여 난 작가가 이 두메산골의 자그마한 읍역에 내리기만 하면 첫눈에 유표히 알릴것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객들이 다 빠져 나왔는데도 우리가 상상하며 기다리는 작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가? 우리는 역구내를 내다보았으나 이미 떠나간 열차의 미세한 진동음만이 레루를 타고 울려 올뿐 사람이라고는 한명도 없었다. 방금 표 받는 곳을 빠져 나와 읍거리쪽으로 뻗은 신작로로 흩어져 가는 사람들의 뒤모습을 다시 훑어 보았으나 작가라고 짐작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작가 천세봉이 이 역에 내렸다면 자기를 마중 나온 도서관원군이랴도 찾겠는데 그런 눈길로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없었다.

《자, 어찌된 일인가. 분명 오전차에 떠날것이라고 했는데...》

관장이 고원군당의 한 일군으로부터 받았던 전화내용을 상기하며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혹시 오후차에 오는게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관장도 《글쎄...》 하며 오후에 다시 나오기로 하고 우리는 도서관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그때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30대의 녀인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 오며 소리치는 것이였다.

《관장동무, 야, 빨리 가자요. 작가선생이 와서 관장동무를 찾아요.》

《아—니, 작가선생이?》

관장이 당황한 소리를 하며 빠른 걸음을 다그쳤다. 우리가 도서관에 이르니 정문앞에 검스레한 무명천으로 지은 닫긴형양복에 진회색천으로 만든 채양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키가 후리후리한 40대의 기름한 얼굴의 천세봉이 색이 다 바랜 소가죽가방을 한손에 들고 한손에는 무슨 나무뿌리로 만든듯 싹은 물부리에 가지담배를 꽂아서 피우며 서있었다. 상상하였던것보다 판이한 소박한 모습이었다.

《제가 관장입니다.》하고 관장이 지기를 소개하

며 천세봉에게 다가섰다. 그리고는 뜨겁게 손을 잡으며 《아-니, 선생님, 역에 내리셨으면 마중 나간 우리를 찾아 주셔야지.》 하며 진정으로 섭섭해 했다.

《뭐 변변치 않은 소설을 가지고 큰 독자회를 두곳에나 조직해 놓고 작가를 불러 준것만도 고마운데 마중까지 나올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소.》 하고 천세봉은 진심으로 말했다.

농촌생활의 향취가 물씬물씬 풍기는 중편소설들도 장편소설도 훌륭히 써낸 천세봉이 얼마나 소박했던가 하고 지금도 첫 상봉의 순간에 느꼈던 그 인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

2. 생활의 바다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활을 그려 내지 않고서는 못 배길 정도로 생활에 대한 체험이 쌓이고 열정이 끓어 번질 때 창작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즐겁고 보람찬 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이 취재의 문학이 아니라 체험의 문학을 해야 성공작을 낼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천세봉을 레중하게 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천세봉은 작가로서 작품을 쓰기 위하여 현실을 체험했다기보다 그 자신이 당의 농업정책을 앞장서서 관철한 농업전사였으며 농촌에서 이미 진행된 생활의 재현자라기보다 앞으로 진행될 생활을 미리 예견하면서 그 생활을 작품으로 구상해 놓고 농민들을 그 작품속의 인물처럼 이끌어 나간 작가-혁명가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제1부)에 대한 두차례의 모임끝에 그가 한 발언과 독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과 이틀동안의 여유시간에 내가 지꼈다 할 정도로 물어 본 문제들에 대한 그의 성실하고도 솔직한 대답들에서 력력히 느껴 진 것이었다.

수동읍영화관에서의 첫날 저녁과 고원탄광 문화회관에서의 두번째 날의 독자모임은 벽이 터져 나갈 정도로 초만원에 이르렀었다. 궁벽한 산간지대의 농민이나 로동자들이 소설독자모임에 이렇게 많이 참가한데는 세가지 요인이 작용했었다.

첫째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읽은 독자들이 많았던것이고 둘째로는 작가가 참가한것이었고 셋째로는 소설이야기를 한시간나마 해준다는것도 중요한 흥미의 하나였다.

이러한 관심으로 하여 초만원을 이룬 장소의 주석단에는 맨 가운데자리에 작가 천세봉이 앉고 작가의 왼쪽자리에 군당 선전부장이 앉고 오른쪽자리에 사회자인 도서관 관장이 앉았다.

사회자의 발언에 이어 내가 제일 먼저 연단에 올라 가 제대된 주인공 김창혁이 안개 자욱한 달밤에 불 타 버린 고향집에 도착하는데로부터 소설에 전개되는 인간관계와 사건발전과정을 이야기하였다. 작가까지 참가한 장소에서 소설이야기를 한다는 책임감때문에 가능한껏 상세히, 기본 줄거리만 아니라 인간들의 감정과 정서적기복을 담아 이야기하다보니 계획된 1시간보다 20분쯤 초과되었는데 주석단성원들도 군중들도 숨 죽은 듯 긴장해서 들었다. 나는 소설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전달했다는 안도의 감정을 가지며 간단한 토론까지 더하고 군중석으로 내려 왔다. 뒤이어 네명이 더 토론한 다음 마감으로 작가 천세봉의 발언이 있었다. 그의 발언자체가 작가의 창작경험이라기보다 농촌에서 협동화를 이끌어 온 선구자의 체험담이었다.

독자들속에서 여러가지 물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작가의 대답 역시 농업협동화를 시작하던 때로부터 점차 확대발전시켜 온 관리위원장의 체험담과 같은것이였다. 이 독자모임에서 한 작가의 협동화경험 및 창작경험을 한번 더 듣고 싶다면서 다음날 저녁 탄광회관에게까지 30여리를 걸어 올라 온 읍청년들이 수십명이나 되였었다.

두번째 독자모임때에는 소설이야기시간을 좀더 길게 해도 일없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소설이야기가 1시간 40분 걸리었고 그대신 토론들을 짧게 하고 작가의 발언과 질의응답시간이 길었다.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더 묻고 싶은것이 많아 졌다.

독자모임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 왔을 때 그가 나에게 먼저 말했다.

《작가인 나를 대신하심이 소설이야기를 잘해줘서 고맙소. 기억력이 대단하오. 그 작품을 쓴 나조차도 남이 쓴 소설을 듣는것처럼 재미있게 들었소. 어떤 장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썼던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소.》

《선생님, 나의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작품을 아주 재미 있게 생동하게 썼기때문입니다. 나는 요새 중편소설 하나를 읽었는데 읽은지 며칠이 지나니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소설은 몇분도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소설은 인간들의 관계가 운명적으로 얽혀 있고 많은 인물들의 개성이 뚜렷하고 농촌생활과 인물들의 내면세계가 아주 진실하고 생동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감까지 다 이야기할수 있는겁니다.》

나는 작가를 과찬하자고 해서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그대로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나름으로 알고 싶었던 문제들을 연거퍼 물었는데 그는 조금도 귀찮아 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 있어

하면서 대답해 주었다.

독자모임 두번에 한 그의 발언과 나의 지קות 물음에 그는 성실하고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는데 그때의 이야기중에서 지금도 기억되는 내용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은 이미 진행된 생활에 기초하여 작가가 쓴 작품이라기보다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진행될수 있는 생활을 예견하면서 작가가 소설구성부터 먼저 해놓고 작가가 함께 사는 마을의 농민들을 구성된 소설의 작중인물들처럼 살도록 이끌어 나가면서 쓴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3년간의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 한주일만인 주체42(1953)년 8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었다.

그 보고서에는 농촌경리부문의 복구방향도 제시되었는데 령세농민들의 생활안정과 우리 나라 농촌의 전망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을 경험적으로 조직운영할데 대한 문제가 제시되었나.

농업협동화! 이것은 농촌에서 토지개혁보다 더 복잡하고 장기성을 띠는 또 하나의 혁명이고 역사적인 사변으로서 농촌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가에게 커다란 창작적충동을 안겨 주는 예술적 과제였던것이다.

소설가 천세봉은 솔로호브처럼 농업집단화가 끝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적사실의 재현으로 소설을 쓸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를 실현해 나가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길동무가 될 소설을 씀으로써 당의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거대한 역사적사변을 적어도 5부작쯤의 대작으로 창작할것을 결심하고 장편소설의 제1부 구성작업에 달라붙었다.

주인공은 웅당 조국해방전쟁의 피어린 시련을 겪어 온 제대군인으로 되어야 했다. 전후 우리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핵심은 전쟁의 준엄한 격전을 겪어온 제대군인들일것이므로 농업협동화의 주동인물도 제대군인이여야 했다. 그러므로 작가의 고향인 금수리 양수장마을의 박로인의 아들이 제대되어 온다면 나무랄데 없는 관리위원장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김창혁이라는 주인공으로 설정하였으며 작가의 조카딸 하나를 주인공과 애정관계에 놓이는 룡이로 설정하였고 삼촌벌되는 근실한 중농 한명을 마령감으로, 이웃집 중년 농민들을 조희모, 조형모, 탁수일 등으로 설정하였다. 농업협동화가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될것이므로 숨은 원수 강덕기와 그의 조력자들인 서기표, 서순규, 박병천 등을 설정하고 협동화과정에 일어 나게 될 인간관계를 상상하면서 구성

안을 다 짜놓았다.

그런데 작가의 고향마을에서는 아직도 협동화의 움직임이 일어 나지 않았으며 제대군인도 돌아 오지 않았다. 작가는 자기 마을에서 협동조합조직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협동조합이야기들을 연구하면서 자기 마을에 협동조합바람을 일구고 이끌어 나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리당에도 제기하고 세포내 당원들을 적극 추동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자신이 협동조합조직위원회 책임자격이되어 맹렬히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금수리에도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몇달이 지난 11월부터 협동조합이 조직되었다.

천세봉은 낮이나 밤이나 협동조합관리위원회에 나가서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일에 참가하고 새벽이면 일찍 깨어 나 이미 짜놓은 소설의 구상에 따라 창작을 하였다. 어떤 날에는 하루의 일기를 쓰는 기분으로, 어떤 날에는 래일의 조합일을 미리 써놓는것과 같은 기분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런데 일단 소설이 시작되고 보니 작중인물들이 자기의 성격론리에 따라 줄기차게 《생활》을 전개해나갔으므로 작가는 완전히 작중인물들의 움직임을 따라 가며 붓을 달리었다. 제1부의 마감인 주체43(1954)년 말까지 주인공들의 생활은 전진하였는데 작가가 1부의 초고를 끝낸것은 그해 5월이었으니 작중인물들의 생활과 운명은 7개월이나 앞에 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현실생활보다 작품속의 생활과 인간들의 운명이 이토록 앞서 나가는 경우가 생길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협동조합농사라는 본질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의 생활과 인간들의 운명일진대?

그것은 첫째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독자들을 농업협동화운동으로 선도하려는 작가의 강렬한 열망과 관련된것이였다. 앞서서도 언급한바이지만 솔로호브처럼 농업집단화가 끝난 다음 지나간 현실의 재현과 같은 소설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독자들을 실질적인 협동화운동으로 고무하고 추동하는 당의 작가, 당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작가의 양양된 감정이 그러한 결과로 추동하였던것이다.

또한 둘째로, 작가가 농촌생활을 아주 깊이 알고 있었으며 농민들의 개성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기때문이었다.

천세봉은 참으로 농촌생활의 바다속에 깊숙이 잠겨서 수십년간의 생활을 겪어 온 작가였다.

천세봉은 주체14(1915)년에 고원군 고원면 금수리에서 머슴군의 아들로 태어나 극빈한 생활속에서 척박한 땅을 다루며 살아 온 농사꾼이였고 해방후의 토지개혁혜택도 받아 보고 조국해방전쟁시기 농업중산투쟁도 농민들과 함께 겪어 왔으며 그러한 생활속에서 각이한 농민들의 개성과

정신상태를 자기처럼 파악하고 있었던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어느 농민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색하며 어떻게 움직여 나가리라는것을 손금 보듯이 예상할수 있었던것이다. 때문에 작가는 협동조합농사를 처음으로 하는 해의 봄에 앉아서 주인공들의 년말생활까지 다 예상하면서 장편의 1부를 끝낼수 있었던것이다.

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주인공들의 생활을 무리없이 형상할수 있는것은 셋째로, 작가의 환상력이 높았기때문이었다. 아무리 당정책을 빨리 반영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리 풍부한 생활체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작가의 높고 풍부한 예술가적인 환상력이 없다면 앞날에 벌여 질 일을 그처럼 진실하게 예상하며 형상할수 없는것이다. 뒤에 가서도 언급하겠지만 소설가 천세봉은 문학창작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깡그리 바친 자아희생적인 작가인 동시에 천부적인 작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환상력이 높은 작가였던것이다.

이처럼 소설가 천세봉은 농촌의 사회주의협동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는 당적인 작가의 사명으로 하여, 수십년간의 풍부한 생활체험으로 하여, 높은 예술가적인 환상력으로 하여 현실생활보다 앞서 나가며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창작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가 대중적단계에 들어 섰을 때 비로소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단위들에서는 조합명칭을 《김창혁농업협동조합》이라고 달기도 하였으니 그 작품이 농업협동화운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바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대답해 주고 있다.

중편소설 《흰 구름 피는 땅》도 앞날에 있을 일을 상상하면서 쓴 작품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이 가렬하던 주해41(1952)년 초, 작가 천세봉은 전선에서 싸우던 친척벌되는 병사로부터 눈에 심한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고보니 천선생이 쓴 소설도 못 보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근심이 앞선다는 편지를 받았었다. 전쟁시기로서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작가인 천세봉으로서의 그 한장의 편지에서 가슴 찢어놓은 환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만약 그 병사의 애인이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아니 전쟁이 끝난후엔 여러가지로 부상을 당하여 불구가 된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 오겠는데 그 병사들의 애인이었던 처녀들이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며 그후의 생활은 어떻게 전개될것인가? 이러한 눈물겨운 환상에 잠기기 시작한 천세봉은 전쟁시기만 아니라 전쟁후에 그런 일을 당할수 있는 처녀들에게도 미리미리 사상정신적기동을 안겨 주어야겠다는 작가적사명감으로부터 전쟁의 불비속에서 중편소설 《흰 구름 피는 땅》을 썼던것이다. 그러면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동

기와 목적에서 씌여 진 작품이었던가? 그것은 앞날에 전개될 생활을 두고서가 아니라 지나간 생활의 의의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작가 천세봉은 분연히 총을 잡고 유격대에 입대하였다.

고원유격대 정치부에서 일하게 된 그는 준엄한 환경에 맞게 전투적인 시를 많이 창작하여 유격근거지의 벼랑이나 바위돌에 붓으로 써놓기도 하고 종이에 옮기며 벽이나 기둥에 붙이기도 하였다. 원쑤격멸으로 부르는 그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벽시들은 유격대원들의 투쟁의욕을 크게 고무하였다. 또한 작가는 유격투쟁과정에 조국해방후 비로소 땅의 주인, 주권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을 향유해 온 우리 농민들이 준엄한 적후투쟁의 나날에 얼마나 영웅적인 위훈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가를 심장으로 체험하였다. 바로 이 체험, 이 감정에 기초하여 최치부, 제덕근과 같은 개성적이고 영웅적인 농민들을 형상한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을 그토록 생동하게 창작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소설가 천세봉은 조국의 운명이 위협에 처했을 때에는 용약 총을 메고 유격투쟁에 참가하고 전선이 식량을 요구할 때에는 농민들과 함께 전시농업증산에 앞장 선 정치일군이고 농업전사였으며 당이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직접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해 나가면서 작품도 창작하는 핵심농민, 정치일군, 작가-혁명가였구나 하는것이 첫 상봉의 이틀동안에 내가 받아안은 감정이였었다.

소설가 천세봉이 생활의 바다속에 얼마나 깊숙이 잠겨 있는가 하는것을 내가 다시한번 보고 느낀것은 다음해(1958년) 봄이었다.

첫 상봉의 이틀동안에 천세봉으로부터 창작경험도 적지 않게 들었고 큰 소설이든 작은 소설이든 자주 써봐야 한다는 고무적인 말도 들으면서 은근히 대답성이 생긴 나는 이도 안난 애기가 쿵뽕부터 먹겠다고 달라붙는격으로 《산간마을의 녀선생》(《중소리》)이라는 제목으로 중편소설 초고를 써가지고 다음해 4월의 어느 일요일날 새벽차로 떠났다.

원래 비단실로 수를 놓은듯이 아름답다고 하여 금수리로 불렸다고도 하는 그 마을은 실지 아름답고 아늑하였다. 나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 있는 마을쪽을 바라보며 걷다가 보퉁에서 내리여 농가쪽으로 들어 가면서 작가 천세봉의 집을 찾았다.

그의 집은 ㄱ자형의 기와집이었다. 중편도 장편도 팡팡 써내는 작가이니 원고료를 많이 받아서 큼직한 기와집을 쓰고 살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예상과는 달리 안채에 방 두칸, 사랑채에

한칸 해서 모두 방이 세칸이고 부엌이 한칸 달린 아담한 기와집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천세봉이 태어난 집은 거기에서 좀 유족진 곳의 오막살이 초가집이었었는데 조국해방전쟁직후 창작을 활발히 하면서 원고료를 받아 이 기와집을 샀다고 하였다.

문이 꼭꼭 닫겨 있는 집에 대고 내가 《계십니까?》 하고 주인을 찾으니 부엌문이 열리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며 비너를 지르고 흰 적삼에 까만 치마를 입은 꽤 환하게 생긴 중년녀인이 내다보면서 어떻게 오신분인가고 아주 레절 있는 어조로 물었다. 내가 찾아 온 사유를 이야기하였다.

《오늘이 조합이 쉬운 날이라면서 덕지강에 고기잡이를 나가시는데요.》 하고 잘숙잘숙 저는 다리 로마당에까지 나와서 작가가 고기잡이 나가 있을 방향을 손길로 대주는 것이었다.

나는 작가가 낚시질 나간것으로 생각하고 물막이언제가 가로 건너 간 덕지강으로 나갔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낚시질이 아니라 봄마다 알뜰이하려 민물을 찾아 올라 오다가 물막이언제아래에 몰려 있는 송어를 몽둥이로 때려 잡는 집단적인 물고기사냥이 벌어 지고 있었다. 청장년 여럿이 물막이언제아래의 물사품속에 뛰어들어 몽둥이로 송어들을 때려 잡고 늙은이들이 강기슭의 잔디쪽에 서서 던져 저 나오는 고기들을 받아 무지로 쌓으며 환성을 질러 대었다. 나는 강기슭의 잔디쪽에 서 있는 사람들속에 천세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다가가 살피었으나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천세봉선생이 안 나왔습니까?》

내가 한 로인에게 물었더니 그 로인은 돌아다보지도 않고 《저기 있잖소.》 하며 물잡이언제아래의 물속에서 몽둥이질을 해대는 청장년들을 턱으로 가리키었다. 나는 의아해 졌다. 작가 천세봉이 물속에서 몽둥이질을 해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말 물속의 청장년들속에 그가 섞여 있었는데 머리에 흰 수건을 질끈 동이고 속적삼, 속바지가 물자루로 된채 《여보, 저놈 치라구. 오, 이놈은 내가 치겠소.》 하고 다른 청장년들과 소리치기도 하고 웃고 떠들어 대기도 하면서 송어떼우에 몽둥이질을 해대다가 일처서 허연 배때기를 뒤집으며 떠내려 가는 송어를 보면 그것을 움켜 쥐어서 강기슭의 잔디쪽에 댄다 던졌다. 계절은 4월이지만 아직은 상당히 차가운 강물속에 농사군청장년들과 함께 뛰어들어 송어를 때려 잡아 내던지곤 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것이 무척 구경스러워서 나는 오래도록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송어를 몇가마니 될만큼 잡았을 때 고기잡이를 일단 중지하고 잡은 고기의 분배가 진행되었는데 누군가가 물속에 들어 가 몽둥이질을 한 사람

들은 세류, 잔디쪽에서 고기를 받아 모아 놓는 일이나 한 사람들은 두몫을, 그것도 안한 사람들은 한몫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하였다. 그때 마른 옷을 갈아 입은 천세봉이 《그거 뭐 그런 차별분배가 필요한가요. 온 동네집들이 골고루 몇마리씩 맛 보게 하는것이 좋겠는데요.》 하고는 자신이 새끼오리에 대어섯마리만 꺾어서 들고 보뜰으로 올라 오는 것이었다. 내가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인사를 하자 《아니 동무가 어떻게?》 하며 반겨하였다.

중편소설 초고를 지도 받고 싶어서 왔다고 하자 《아, 그렇소? 반가운 일이구만...》 하고 따라서는 앞서 걸었다. 물잡이언제에서 그의 집까지는 천미터정도의 거리였는데 그사이에만도 세사람이나 그와 만나 관리위원회일, 작업반일, 축산반일들을 물었고 그러면 그는 농사일에 무불통지한 사람처럼 견해를 피력하곤 하였다. 나는 그의 집에 와서 송어국에 점심대접까지 받았는데 그사이에만도 두 녀인이 또 천세봉을 찾아 왔다. 한 녀인은 며칠전에 태어난 손자녀석의 이름을 지어 달라는 청으로, 또 한 녀인은 천세봉의 소개로 약혼이 된 아들의 잔치날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천세봉은 생활의 바다속에 깊숙이 잠겨 있었고 그 사람들속에서 벌어 지는 각이한 인간문제들이 무진장한 창작의 원천으로 되어 있었다.

3. 명예도 육체도 정신도 다 바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작의 고귀한 결실은 창작가의 불 타는 열정의 산물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소설가 천세봉의 작가적면모와 인간적모습을 추억할 때 가장 강하게 회상되는것은 오직 창작을 위해서만 정신도 육체도 개인적인 생활도 갇그리 바쳐 온 높은 문학정신, 자기희생정신이다.

그렇다. 그런 문학정신을 두고는 그저 높은 문학정신이라는 표현만으로서로는 합당치 않고 문학창작을 위해서는 청춘도 행복도 육체의 건강도 정신의 평온도 서슴없이 바쳐 온 헌신적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어느 정도 근사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그의 생활전체가 립증하고 있었으니 몇가지 실례를 들어 회상하려고 한다.

주체54(1965)년, 《석개울의 새봄》 독자모임때 처음으로 만난 그때로부터 꼭 8년이 되는 해의 여름이었다. 그 8년사이에 얼마나 커다란 변화일로를 걸어 왔던가.

산간오지에서 문학수업을 하면서 창작생활세계

에로 접근하고 싶어 했던 나는 그 8년사이에 어버이수령님의 다함 없는 은덕으로 평양문학대학을 졸업하고 문예출판사에 배치 받은후 《청년문학》 편집원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고원군 금수리에서 농민작가로 생활하던 천세봉은 그 8년사이에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분과위원장을 거쳐 일약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었으며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 《고난의 력사》 등을 창작해 내고 혁명전통주제의 상하권 장편소설을 끝내가고 있는 대작가로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창작경험을 잡지 《청년문학》에 실으려는 편집계획에 따라 내가 그를 찾아 가 원고청탁을 하고 가능하면 앉은자리에서 원고를 받아 와야 했다. 그런데 그때 천세봉은 평양에 있지 않고 강서군 약수마을에 나가서 병치료도 하면서 혁명전통주제의 상하권 장편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강서군 약수마을에 찾아 갔다. 8년만에 그를 찾아 가는 나의 심정은 퍼그나 감회로왔으며 나를 만나주는 그 역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다.

《허 참, 동무도 나도 평양에 올라 와 살게 된 처지에서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소. 나는 동무가 문학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일하는줄 몰랐지만 동무야 내가 부모처자 다 데리고 평양에 와서 산다는걸 알았겠는데 집에라도 한번 찾아 올게지. ...》

《선생님의 집주소도 알지 못했지만 헛내기편집원이 작가동맹위원장을 찾아 간다는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내가 변명 비슷이 대답했다.

《원 사람두, 별소릴 다 하는군. 작가동맹위원장이 무슨 임금이요. 작가야 어디까지나 작가이지. 나는 이렇게 창작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원장도 하라니 하지. 위원장사업만 하고 창작을 하지 말라 하면 위원장을 그만 두겠소.》 하고 뻔뻔이 말했는데 그 말은 그의 진심의 반영이었고 솔직한 고백이었다. 실지 그는 창작에 지장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사회적직위도 바라지 않는 그런 작가였다.

해방후 민주건설시기 그는 고원군당 선전부장의 직무를 맡았던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단편소설 몇편을 썼던 때였으므로 웬간한 사람 같으면 군당선전부장이라는 그 직위가 아까와서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천세봉은 군당책임일꾼들에게 간곡히 제기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농촌집의 앉은뱅이책상에 마주 앉아 글을 쓰는 일에 전념했던것이다.

작가동맹 소설분과위원장으로 된 이후에도 그는 다년간 합숙생활을 하면서 평양으로 이사 오기를 마다했는데 그것은 창작의 토양인 고향집을 뜨고싶지 않았던데도 기인했지만 보다 중요하게

는 분과위원장을 미구에 그만 둘 속생각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창작을 하지 못하면서 위원장사업만 하려면 위원장을 그만 두겠다는 그의 솔직한 말을 들으면서 나는 오직 창작속에서만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그의 문학정신과 작가적자세를 절감하였고 그만큼 더 존경이 가는것이였다.

작가 천세봉은 작품을 위해서라면 건강에 해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창작경험글을 받기 위해서 이 약수마을로 왔다고 말하자 그는 지금 마감단계에 이른 장편의 초고를 2~3일내에 마무리해 놓고 짭작한 경험글을 하루동안에 써줄테니 약수탕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낮이면 부인의 동자질을 도와 감자도 깎아 주고 물고기의 손질도 해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다가 밤이면 천세봉과 한방에서 잤다.

그는 새벽 3시면 꼭 깨여 나서 글쓰기를 시작하였는데 그전에 약부터 먹군 하였다. 무슨 약을 새벽마다 공복에 잡숫는가고 내가 물었더니 뜻밖에도 아스피린을 두알씩 먹는다고 하였다.

《새벽마다 신경통이나 편두통이 오군 합니까?》

내가 물었다.

《그런건 없구 새벽에 일어 나 원고지에 마주 앉으면 잠이 채 깨지 않은것처럼 머리가 뻥한데 아스피린 두알만 먹으면 인차 정신이 말쑥해 지오.》

《공복에 아스피린이 위에 좋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위병이 온것 같소. 하지만 아스피린을 먹은후 30분만 지나면 머리가 맑아 지면서 쓰는 글에 기쁨기가 도는것이 막 알리는데 안 먹을수 있소.》

나는 가슴이 찢릿이 켜기였다. 창작의 글줄에 기쁨기가 도는것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공복의 아스피린이 위를 손상시키고 건강을 해친다는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위병에 걸리어 약수치료를와 있으면서도 아스피린을 장복하겠는가?

뿐만아니라 그는 오직 창작을 위해서만 사색하고 창작을 위해서만 움직일뿐 다른 사색,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을 위한 운동도 하지 않았으며 머리휴식을 위한 오락도 하지 않았다.

좋은 낚시대가 있었지만 낚시질 한번 나가보지 않았으며 약수치료를 온 간부들이 장기놀이를 하자고 찾아 와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는 시간에조차도 창작적사색만 하였다. 약수마을에서 그와 한방에서 자는 나흘 동안에 나는 그의 이러한 특질을 직접 목격하였다.

초저녁잠이 많아서 일찌기 자고 새벽 2시쯤이면 깨는데 습관된 나는 약수마을에서의 첫 새벽에도 그렇게 일찌기 깨나서 천세봉의 잠에 지장이 될가봐 어둠속에서 눈만 꿈벅거리며 내나름의

생각을 굴리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일어 나더니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데 초불을 켜놓고 원고지가 아니라 학습장에 무엇을 적어 넣는 것이었다.

《선생님, 전등을 켜놓고 하십시오.》 하며 내가 일어 나 앉으니 그는 《이거 괜히 부스럭거리서...》 하며 미안해 하였다.

《아닙니다. 나도 이미 잠을 깨웠습니다.》

《그렇소? 나와 비슷한 습벽이구만.》 하고 그는 적어 나가기를 거듭하더니 학습장을 접어서 한 옆에 밀어 놓았다.

《뭐 좋은 구상이 떠올랐습니까?》

내가 짐작소리로 물었더니 그는 《허 참, 꿈에 작품에 전개될 장면들이 실생활처럼 나타나는게 아니겠소. 그 장면을 제때에 적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꿈처럼 사라져 버려서 이렇게 적어 놓곤 하오.》 하며 어제까지 쓰던 작품을 계속하려고 원고지를 퍼놓았다.

그랬다!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작품생각만 하다가 잠들기때문에 꿈에 작품의 장면들과 인간들이 산 화폭으로 나타나 《생활》 하곤 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한창 식사를 하다가 수저를 뺏개치듯이 놓고 픽 돌아 앉더니 그 학습장에 무엇을 적어 넣었다. 내가 흥미 있다는듯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가 먼저 말하는 것이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착상이 떠오르거나 장면과 세부가 떠오르는게 아니겠소. 이런건 즉시에 지어 놓지 않으면 밥과 함께 다 <먹어> 버려서 다시 떠오르지 않소.》

식사를 하다가 저절로 장면과 세부가 떠오를수는 없는 것이다. 입으로는 식사를 하면서도 머리로의 창작적색색을 하였기때문에 새로운 상이나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다.

리기영선생이 라도향을 회상하면서 《그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문학으로 산 사람이었다.》 고 말하던것을 들은바 있었다.

그런데 천세봉은 밥 먹는 시간에도 잠 자는 시간에도 문학으로만, 창작으로만 산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창작적열정으로 몸과 마음을 불 태웠던가 하는 실례는 이외에도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하려고 한다.

4. 혁명문학에로의 전환점과 그 개척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52(1963)년 11월 5일 작가들과 한 담화 《혁명적대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와 그 다음해 11월 7일 문학예술부

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혁명적대작, 특히 혁명전통 주제의 혁명적대작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작품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는 원형인물들의 투쟁내용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가르쳐 주시었다.

작가 천세봉은 어버이수령님의 이 교시를 창작 실천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상하권으로 된 장편소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창작하였는데 그것이 강서군 약수마을에서 마감을 결속한 장편소설 《안개 흐르는 새 언덕》이었다. 작품은 두통이 필사되어 한통은 출판사로, 한통은 영화부문으로 넘어 가서 출판공정과 영화제작공정이 거의 동시에 진척되었다. 미구에 소설도 출판될것이며 영화도 나올것이라고 기대하며 흥분되어 있었던 그해 겨울 작가 천세봉은 뜻밖에도 영광 넘치는 행운을 받아 안게 되었으니 서부지구의 자그마한 휴양소에 가서 여러날동안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게 되었던것이다. 그것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작가들의 혁명문학창작을 위하여 마련하신것 이었다는것을 알게 된것은 후날의 일이었다.

바로 이때 천세봉은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만나뵙게 되었으며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엄동의 찬바람이 뒤편부는 휴양소들에 친히 나오시여 천세봉을 맞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세봉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시며 건강도 하고 장편도 다 끝내여 공장에 넘겼다니 반갑다고 하시며 어서 들어 가자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몸을 휴양소 홀쪽으로 밀어 주시며 정답게 말씀하시었다. 인자한 실 얼굴, 영채 빛나는 눈, 부드러운 손길, 그 소박하신 인품에서 천세봉은 어버이수령님을 지을 만나뵈왔을 때와 꼭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내로 휴양소 홀에 들어간 천세봉은 거기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게 되었는데 수령님께서는 천세봉의 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며 장편소설도 넘기었다니 수고 많았다고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을 해주시었다. 이때 천세봉은 자기가 쓴 그 소설에 대해서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절감하였으며 그럴수록 과연 그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될것인가 하는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로 오전 시간에 5~6시간정도씩 련일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이야기를 작가들에게 들려 주시었다.

오후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변농촌과 군부대들을 현지도하시였으며 작가들을 데리고 군부대에 나가 예술소조공연도 보여주시었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세봉을 수차례 따로 만나 혁명문학건설과 관련한 많은 말씀을 해주시었다.

우리는 꼭 주체적인 혁명문학을 건설해야 한다.

당성을 생명으로 하는 주체적인 문학건설에서 근본적인 고리를 놓치고 있는것은 없는가, 만약 그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새로운 혁명문학에서는 그것을 찾고 개척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등 천세봉으로서는 아직 그 의미를 다 가늠할수 없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이야기기를 보름동안이나 해주시고 나서 평양으로 떠나시면서 우리가 혁명문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도 지금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중이다. 문학이란 인간을 그리는 일인데 어차피 인간을 그려야 하겠지만 어떤 인간을 그리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내 생각엔 바로 동무들이 진정한 조선의 혁명가를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조선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문학을 건설할수 있을것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름동안이나 들려 주신 항일혁명투쟁이야기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차례 해주신 귀중한 말씀을 가슴에 안고 평양으로 돌아온 천세봉은 며칠동안 머리속이 그득해 저서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 어떤 장엄한 생활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온듯 한 생각만 들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참담고 억세고 드높은 하나의 거대한 체험세계가 생동하게 차 있었다. 그와 함께 그는 차츰 생각이 무거워 지기 시작했다. 이미 공장에 넘어 가 한참 인쇄중에 있는 상하권 장편소설의 무엇인가가 그 생동한 체험세계와 대조를 이루면서 불안스러웠다. 우선 작품에 그려진 혁명가 주인공이 수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혁명가들처럼 소박하고 고결한 품성을 체현하지 못했고 어딘가 왈패스러워 보이는것이여서 그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또 어딘가 혁명가들의 생활의 깊이에 정면으로 육박해 들어 가지 못하고 많이는 소설을 만드는 수법으로 성격을 가공해 버린듯 한 불안도 겹치여 왔다.

천세봉자신이 느낀 이러한 불안은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름동안이나 들려 주신 이야기속의 혁명가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인간들을 형상해 놓았던것이다.

그 소설을 그대로 옮긴 예술영화를 보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크게 기대했던 작품이 잘 안되는데 대하여 몹시 섭섭해 하시면서 작품의 본질적결함을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였다.

로동계급혁명가를 소박하고 진실하고 참된 인간으로가 아니라 싸움깨나 하고 사람깨나 칠줄 아는 부랑아로 그린데 대해서,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로씨야의 10월혁명의 영향으로 들어 온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넘어 온것처럼 형상한데 대해서, 3.1인민봉기에 참가한 애국적인 민족주의자의 딸을 경찰놈의 처로 되게 함으로써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모독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이 교시에 접한 천세봉은 스스로 불안해 지던 까닭이 무엇때문이었던가를 사무치게 느끼였으며 그만큼 그의 고민과 자책은 매우 심각하였다.

나는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머슴군의 아들로서 한갓 농사군에 불과했던 나를 작가로 키워 주시고 《대하는 흐른다》, 《석개울의 새봄》이 연극으로 되었을때 몸소 보아 주시고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으며 작가동맹위원장으로까지 내세워 주시였는데 이처럼 엄중한 과오를 범하였으니 이제 무슨 위원장이고 작가이고 인간이란 말인가.

그는 침식을 잊고 고민하면서 다시는 창작의 붓을 들 자격이 없는것으로까지 자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잘못 쓴 작품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하지만 작가는 아껴야 한다고, 천세봉은 해방후 우리가 키운 작가인데 잘 도와 줘서 좋은 작품을 쓰게 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천세봉을 몸소 만나시켜 몸이 수척해 지도록 고민만 해서야 되겠는가, 작가의 창작상 과오는 다름아닌 창작으로 씻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새로운 주체시대의 문학, 수령형상문학을 건설하는데 앞장 서도록 크나큰 신임과 사람을 베풀어 주시였던것이다.

작가 천세봉의 심장은 다시 창작적열정으로 고동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주체시대의 문학,수령형상문학을 건설해야 하는 역사적과제앞에 섰을 때 그는 지난 날의 창작생활을 전면적으로 총화태 보게 되었다. 지난 시기의 그의 문학이 풍부한 생활체험을 토대로 한 농촌생활, 농민주인공들을 기본으로 형상함으로써 성공적이였다면 혁명전통주체의 상하권작품은 생활체험부터가 부족하였던것이다. 도시생활, 공장지대, 어촌지대 등 주인공의 활동무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였고 로동자, 어로공, 지식인,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의 인간들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던것이다. 빨리 써야 한다는 욕망으로 서둘러 붓을 날리었던것이다.

작가 천세봉은 이러한 자책총화에 기초하여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작가적사명감을 간직하고 새로운 주체시대의 문학-수령형상창조에 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4.15문학창작단이 조직되고 거기에서의 창작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혁명소설창작을 개척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 천세봉도 그 혁명소설의 개척자의 한사람으로서 창작의 새로운 청춘기를 맞이하였다.

천세봉의 창작생활을 구대려 단계별로 나누어 본다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접견을 받기 이전까지와 그 이후시기로 즉 두 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단계는 농촌생활의 깊숙한 바다속에서 퍼내고 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풍부한 생활체험, 인간체험에 기초하여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농촌주인공들을 많이 창조한 농촌소설창작단계였다면 그

이후 즉 경애하는 장군님의 접견을 받게 되고 그의 가르치심을 세심히 받으면서 창작생활을 한 제2단계는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력사형상에 바쳐진 혁명소설창작단계였다고 말할수 있다.

4.15문학창작단이 조직되어 창작사업이 진행되던 때에 나는 문예출판사 문학도서편집부장사업을하였으며 혁명소설창작가들과 긴밀한 연계속에 있었다. 그때 천세봉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게 될 총서 《불멸의 력사》중 항일혁명투쟁편의 첫권을 자진하여 분공받았다.

아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련속편으로 창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천세봉은 자기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응당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을 형상한 첫권을 창작하여 기쁨을 드려야 한다고 자각했던것이다.

사실상 오늘에 와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주인공으로 하는 혁명소설창작이 그리 신비로운것으로 여겨 지지 않지만 그때에는 수령형상창조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보니 매우 어려운것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논의점과 창작실천상 애로가 제기되었던것이다. 바로 것처럼 어려운 과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첫권을 그가 맡아 나섰던것이다.

(씩 후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의 무궁시절과 화성의숙 시절을 반영한 장편소설 《맞은 올랐다》가 첫권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길림육문중학교에서의 혁명활동을 소설화하는 사업은 작가 천세봉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자료작업과 생활연구를 요구하였다.

농촌물만 다루어 오던 그에게 있어서 길림이라는 도시생활, 중학생들의 생활, 교원들의 생활, 더구나 이국땅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천세봉은 방대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자료작업, 인물연구, 지도작업 등을 근 1년이나 심화시킨 기초우에서 창작에 착수하였다.

혁명소설의 한페이지 한페이지는 가장 긴장한 사색을 요구하였으며 따라서 집필속도도 농촌물소설창작때와 같지 않았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창작적사색으로만 사는 천세봉은 혁명소설 《태양이 솟는다》의 원고를 반년만에 끝내였으며 집단의 의견을 받아 두차례의 수정을 한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5개월 앞둔 주체60(1971)년 12월 중순에 출판하였다.

4.15문학창작단이 조직된지 3년만에 수령형상장편소설로서 첫 책이 었다.

이 작품의 출판은 혁명소설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무엇보다도 혁명소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첫 지도를 받을수 있었던것이다. 그렇게 되면 혁명소설의 창작을 두고 논의하던 많은 문제들이 명백해 지고 창작방향과 방법이 뚜렷해 질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작가들이 준비하고 있거나 한창 쓰고 있는 수령형상장편소설창작에 뚜렷하고 확신적인 방향타로 될것이며 크나큰 신심을 안겨

줄것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작가동맹은 소박한 책장 하나를 짜고 거기에 작가들이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이후 5년간에 창작한 문학도서들을 채워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리였다.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가동맹에서 올린 책들을 보아 주시고 작가동맹이 제일 착실한 지성품을 마련했다고, 작가들이 한결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자한자 써서 좋은 책을 인민들에게 내보내고 그것을 수령님께도 올리니 얼마나 좋은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세봉의 《태양이 솟는다》를 보아 주시고 이런 책을 쓰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자신께서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다 본다음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겠다고, 작품을 좀 뒤집어야 할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 작품이 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천세봉은 벅차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앞에서만 아니라 위원장실에 돌아 와서도 거듭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작가동맹이 제일 착실한 지성품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은것만으로도 두번 다시 없을 최상의 영광이고 기쁨인데 장편소설 《태양이 솟는다》에 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좋은 작품이 될것이라는 전망이 확고한 말씀까지 받았으니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그때로부터 얼마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장편소설 《태양이 솟는다》를 다 보시고 작품의 우점과 함께 더 좋게 고쳐야 할 구체적인 의견과 대안을 주시였다.

천세봉은 하늘땅을 다 얻은것 같은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작품완성에 돌진하였다. 작품은 비할바없이 좋아 저서 주체62(1973)년 4.15를 계기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혁명의 렬명》으로 출판되었다.

책이 출판된후 얼마 지나서 어느 주요회의에 참가했던 천세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접실로 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매우 반가이 맞아 주시며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혁명의 렬명》을 거의다 읽으시었는데 작품이 잘되었다고 매우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시였다.

천세봉은 당에 걱정을 끼치였던 자신의 지난날을 두고 감격으로 하여 눈시울을 적시였다.

장편소설 《혁명의 렬명》은 천세봉의 창작에서 첫 수령형상장편소설이었을뿐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수령형상창조의 방향과 신심을 안겨 준 개척자적역할을 하였다.

천세봉은 수령형상장편소설에서만 아니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다부작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의 창작에서도 개척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남다른 신임과 사랑속에 작가동맹위원장의 직무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응당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소설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료작업, 지도작업, 인물연구와 구성작업 등을 수개월간 심화시킨데 기초하여 초고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머니를 몹시 그리워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어머니의 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심정에 잠기어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창조해 나갔다. 그의 눈앞에는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동지의 인자하고도 억센 모습이 생동한 화폭으로 떠올라서 가슴은 흥분으로 부풀고 붓은 줄달음치듯 달리였다. 석달도 채 못되어 장면의 초고가 달고되였다. 창작집단과 편집집단이 료독하였다. 이 작품의 편집을 맡게 된 나도 읽었다.

잘 쓴 소설이었다. 혁명소설로서의 품격이 원만히 보장되면서도 생활화폭과 인간들의 개성이 선명하게 안겨 왔다. 특히 김정숙동지의 소녀시절과 유격구의 기수로서의 성격이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형상되었던것이다. 료독된 종합의견에서는 김정숙동지의 동생이 희생되는 장면을 보다 비장하게, 보다 감동적으로 묘사할데 대한 문제와 이 지역 유격투쟁에 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령도선을 보강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일련의 요구가 제기되였다. 작가는 그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수정작업을 한달 남짓이 백열전을 벌렸다. 주체64(1975)년 2월 16일을 계기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1부로 발행되였다. (후에 《충성의 한길에서》가 다부작장편소설의 제목으로 되면서 제1부의 제목을 《유격구의 기수》로 하여 재판하였다.)

천세봉은 이 작품의 1부를 성공적으로 창작하고 나자 다음부의 상이련이어 떠올랐다. 그리하여 다음부까지 창작함으로써 이 다부작장편소설의 연속편들을 써나갈수 있는 형상기준과 성격규정을 제시하였으며 다부작전반을 관통시킬수 있는 선물을 정해 주었다. 그리하여 다른 작가들이 연속편들을 완성해 나갈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었으며 제일 처음에 김정숙동지형상 장편소설을 맡아 가지고 성사시키지 못했던 작가도 이 다부작중의 한책을 창작할수 있었던것이다. 이처럼 천세봉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장편소설로 형상하는데서도 개척자의 역할을 하였던것이다.

5. 오직 창작만을 위하여

앞에 쓴 제목에서 소설가 천세봉이 개인생활의 행복도 자신의 육체도 정신도 오직 창작을 위해서만 바치는 헌신적인 작가라는것을 언급한바가 있었지만 나는 그가 참으로 창작을 위해서만 몸도 마음도 깡그리 불 태우는 작가라는것을 그 이후에 더욱 뜨겁게 목격하고 체험하고 느끼였다.

다부작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 제1부에 대한 의견을 소화하지 위한 수정작업은 주체63(1974)년 가을 우산창작작실의 6각 2층방에서 진행했었다. 해마다 그러했지만 그해에는 류달리 많이 많이 열리여서 각들의 주변과 식당주변에는

밤풍경이 불만 하였다. 그때에는 식당주변의 밤나무들에서 저절로 떨어 지는 밤알만 줏기로 약속이나 한듯이 그렇게들 하였다.

4.15문학창작단 작가들도 아침식사를 하고 나서 6각으로 돌아 갈 때면 식후산보 겸 밤나무밑을 에돌며 밤을 주어 가지고 가서 누가 더 많이 주었는가 해어 보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창작을 시작하곤 하였다.

천세봉도 밤을 줏는다면서 밤나무밑으로 거닐어서 6각으로 가곤 하였으나 머리속에는 수정할 작품에 대한 생각만이 콕 차 있었으므로 발끝에 놓여 있는 밤알도 보지 못하였다. 어찌다가 커다란 밤알이 발바닥을 따끔히 울려 찢려서야 정신을 차려서 한알씩 주었는데 그러다보니 하루아침의 반시간 남짓한 사이에 한알이나 두알, 지어는 한알도 줏지 못하는 날이 있었지만 다른 작가들이 백알까지 주었다든가 50알까지 주었다든가 하는데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이었다. 오직 작품생각뿐이었다.

이처럼 작품속에서만 살았기때문에 그는 작중인물들의 생활에서 기쁨이 생기면 혼자서도 소리내어 웃었고 작중인물들의 운명에 슬픔이 부닥치면 다른 사람이 보고 있건 안 보고 있건 눈물을 찔끔 흘리며 울곤 하였다.

어느 날 내가 그의 방으로 들어 가니 그는 방금 써놓은 원고지우에 만년필을 놓고 침대에 기대누워 눈물을 찔끔 흘리며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나는 그의 가정에서 무슨 불상사가 있었는가고 물으며 다가섰다. 그때야 그는 내가 들어 선것을 비로소 느끼는듯 기대누웠던 몸을 일으키는것이였다.

《아, 김정숙동지의 동생이 희생됐소.》 하고는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였다. 작품속에 그려 진 김정숙동지의 동생은 아동단나팔수이다. 그런데 동생은 이미 초고때에 희생된것으로 형상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진짜로 희생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번 원고때의 희생은 가짜였던 말인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번 원고때 그의 희생장면을 쓸 때에는 작가자신부터도 눈물이 날 정도로 작중인물의 세계에 잠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쓴 절은 그러한 눈물속에 썼다는, 다시말하여 예술적으로 성공한 희생장면이라는 의미에서였다. 울면서 썼고 쓰고 나서도 또 우는 그러한 자감세계에 잠겼던것이다. 새로 쓴 그 절을 읽어 내려 가던 나도 울였다. 정말로 울지 않을수 없었던 질고 집요한 창작적사색의 결실이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색하고 고민하여도 형상의 질이 올라 갈 예감이 오지 않을 때면 천세봉은 몸져 누워서 앓는 《작품앓이》를 하는것이였다. 《작품앓이》라는 말은 우리 작가들만이 쓰는 단어이고 특히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자주 쓰는 어휘로서 작품이 잘 진척되지 않거나 의견 받는데 기초하여 형상의 질이 응당한 수준에 오르지

않아서 고민하고 사색하다 못해 몸져 누워서 《않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

나의 목적에 의하면 장중편소설을 쓰는 작가들 중 이러한 《작품없이》를 하는 작가가 적지 않았다. 무개성이고 도식적인 작품을 쓰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작품없이》가 있는것 같지 않았지만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작품을 쓰는 작가들은 이러한 《작품없이》를 다 했는데 천세봉이 그중 심하였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병이지만 밥맛마저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작품없이》를 며칠씩 계속하는 경우가 드문하였다. 이러한 《작품없이》를 여러날 하다가 혈압이 올라 가거나 신경통이 와서 《진짜없이》로 넘어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 가을날씨가 갑자기 추워 지는 바람에 진짜 독감에 걸리었다. 그런 속에서도 《작품없이》를 계속하였다. 그러한 《2중없이》가 며칠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내가 그의 방에 들어가니 그의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거듭하고 있었다. 내가 의사를 데려 오겠다고 하자 그는 의사가 방금 와서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고 갔다면서 뜻밖에도 《부장동무한테 미안한 부탁인데 이제부터 내가 부르는걸 원고지에 좀 받아 써주지 않겠소. 새로 보충하자던 그 절이 드디어 떠올랐는데 열이 나고 손이 후들후들 떨려서 쓰지를 못하겠구만...》 하는것이였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병치료부터 한 다음에 쓰십시오.》 나의 권고였다.

《아니요. 머리속에 한창 무르익었을 때 써놓지 않으면 후에 가서는 그만한 형상적효과가 나지 못하오. 집에서 같으면 아이들보고 받아 쓰라 하겠는데 여기서야 담당편집원밖에 이런 부탁할 사람이 있소?》 하고 그는 간절히 호소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커다란 밤색책상에 마주 앉았다. 그가 구술을 하고 자식들이 받아 쓰는 방법으로 창작하는 때도 적지 않다는것을 말로는 들어왔지만 내가 직접 받아 써보기는 처음이였다.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형상을 구술로 하는지 호기심이 동하였다.

《자, 부르십시오. 받아 쓰겠습니다.》 하고 그의 만년필을 잡았다.

《받아 쓰되 내가 꿈꿨는 소리와 내 혼자 중얼거려 보는 소리는 옮기지 말고 큰소리로 정확히 발음하는 소리만 받아 써야 하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나는 그가 부르는 소리라는게 새로 써야 할 절의 전개된 줄거리일것이고 후에 그것을 다시 장면화, 화폭화하는 묘사작업을 할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그런데 전혀 줄거리식문장이 아니라 완전히 묘사체형상문장이였다.

한문장을 구술하고는 잠시 다음 문장을 혼자 속으로 중얼거려 보고 나서 정확하고 큰소리로 구술하군했는데 그 문장들의 활동감과 형상의 조형성으로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이날 밤엔 이슬비가 내렸다. 쓸쓸한 비발이 대지를 축축히 적시었다. 이따금 찬바람이 휩 불어오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나무란 나무는 후두두 비물을 떨구며 잎을 소란스럽게 훑어 던졌다. 찬계절을 불러 오느라고 이러는것인지도 모른다.》

출판된 책의 7장 3절로서 이렇게 시작된 문장들을 세시간쯤 받아 쓰니 한개 절이 다 끝났는데 무슨 더 다듬고 어찌고 할 여지가 있단 말인가.

다만 흠이라면 나의 글씨가 한심한것이어서 그 원고를 그대로 출판에 넘길수 없을뿐이였다. 그것은 필사를 시키면 될것이였다. 나는 받아 쓴 그 절을 다시한번 읽어 보면서 그의 구술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그렇게 훌륭히 구술한 작가를 고무하고 싶어서 한마디 하였다.

《선생님, 참 잘된 절입니다. 더구나 구술을 한 절이 이렇게 좋으니...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선생님을 두고 타고 난 작가, 천부적인 작가라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이 그를 격분시킬줄 어찌 알았으랴.

《워 타고 난 작가, 천부적인 작가라구? 누가 그따위 소릴 하오?》 하고 그가 성을 벌컥 내었다.

그의 재능을 두고 한 나의 말이 그를 그토록 격분시킨데서 당황해 진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생님, 그게 뭐 나쁜 소리입니까? 다 선생님의 창작적재능을 좋게 여기고 한 말인데...》 하고 어물어물 대답했다.

《아니요. 어떤 작가들은 나의 구술을 두고 묘사문학이 아니라 설화문학이라고 한하는데 타고 난 천부적인 작가요, 설화문학이요 하는건 다 나의 작가적노력에 대한 모독이요. 그 한개 절의 때 문장을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바쳐 모색하고 다듬었는가를 안다면 그따위 소릴 하겠소? 그건 다 남의 작가적노력을 백분의 일도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요.》

그가 진정으로 섭섭해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새롭게 깊어 지는 생각을 어쩔수 없었다.

그랬다! 구술로써도 그 처럼 선명하고 생동하고 활동적인 문장과 개성적인 성격을 묘사해 낸것은 고열에 떠서 몹시 앓으면서도 창작세계에서만 몸부림쳐 온 그의 남 다른 작가적노력이 가져다 준 결실인것이지 결코 타고 난 천부적인 그 무엇 저절로 가져다 준것은 아니였던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천세봉의 비상히 빠른 창작속도를 두고 중편소설은 한달이내에, 장편소설은 석달을 넘기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원고지에 붓을 대기 이전에 얼마나 오랜 기간 많은 시간을 구상하고 모색하고 형상을 무르익혔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류는 많지 못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은 웅근 1년반이나 구상하고 구상을 무르익혀서 초고는 약 한달에,

《흰 구름 고는 땅》은 근 1년동안 구상하고 무르익혀서 초고는 한달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1부분 구상하고 무르익히기를 1년간 하여서 초고를 반년동안이나 걸렸다고 하였다. 제일 짧은 기간에 구상도 조금씩 끝내고 쓰기도 서둘러 썼던것이 《안개 흐르는 새 언덕》이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가져 왔다하였다.

《아이는 배여서 열달만에 낳아야 온전한것을 내놓게 되오. 붓을 들고 원고지에 옮긴 기간만을 혼작기간으로 보는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소. 생활체험이 아주 깊었던 농촌물중편들도 다 2년씩은 걸렸소. 생활체험이 부족하였던 혁명소설은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모색이 필요했소.》하고 그는 실토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쓰는 기간만을 창작작일로 생각하면서 설화문학이요, 타고난 천부적인 작가요 하고 쉬이 말한다면 오직 문학작사색으로만 살아 온 작가에 대한 얼마나 경솔한 평가로 되는것이겠는가.

6. 창작로동의 제3 의지점, 제4 의지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글 쓰는 일,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소설가 천세봉이 육체도 정신도 오직 소설창작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만 불 태웠다는것은 창작로동에 대한 제3의지점, 제4의지점에 대한 그의 언행에서 여실히 보여 주었다.

천세봉이 제일 싫어 하고 기분 나빠 하는 순간은 한창 열이 올라 글을 쓰고 있는 때에 그 누가 문기척소리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 와 《인사》를 하거나 창작에 대한 《고무》를 주는 때였다.

어느 날 한 로작가가 우산장에 오자 바람으로 천세봉을 찾아 가 인사도 하고 숙식조건 등을 묻기도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을 빠른 시일내에 우수한 작품으로 만들라고 고무해 주었다.

그 작가로서는 무리하거나 잘못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세봉은 그 작가를 문밖에까지 배려주고 방으로 들어 오면서 매우 기분나빠 하였다.

《에익, 오늘 쓰자던 글은 다 깨졌소.》하고 불이 잔뜩 부어서 담배만 연거퍼 피워 대었다. 정말 그날 쓰자던 절은 다 홀어 저서 다시 무르익혀 가지고 다음날에야 썼는데 어제 고도로 흥분되었던 때의것만 못한것 같다고 분해하였다.

그의 이러한 모습을 몇번 목격한바 있는 나는 그와의 작품사업을 위해서 만나는 시간을 매우 심중히 생각하여 주로 식사시간이나 식사직후 아직은 창작을 시작하기전 시간으로 정하곤 하였다.

어느 날 작품토론을 좀 할것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방으로 들어 가

면서 《식사시간이 되었는데요》 하고 말하자 그는 달리던 붓을 놓고 머리를 나에게로 돌리었는데 입을 열지도 못하고 결상우에 꼬부리고 앉았던 다리를 펴지도 못한채 그저 손시늉만 조금씩 하였다.

무슨 변이 난것 같아서 내가 그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면서 두손으로 입술과 턱을 한참이나 문다치고 나서야 《에이, 이제야 입이 열리는군.》하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허벅다리와 무릎, 장딴지 등을 한참 주무르고서야 천천히 일어 섰다.

《신경통이 왔습니까?》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신경통은 무슨... 창작로동의 제3 의지점인 이발과 제4의 지점인 무릎에 힘을 주면서 지내 오랜시간을 보냈더니 강직이 왔소.》

《강직까지요?》

《그렇소. 제3, 제4 의지점에 다 강직이 올만큼 정신없이 글을 썼으니 오늘 쓴 절은 잘된 것 같소.》 하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문학작품창작사업, 특히 장편소설의 창작과정은 과학자가 실험수치를 찾아 낼 때와 같은 고도로 긴장한 정신로동인 동시에 황소가 찰진흙길로 수레를 끌고 가는 때와도 같은 힘겨운 육체로동을 요구한다. 그러한 창작로동의 힘이 가해 지는 제1부위가 머리(두뇌)이고 제2부위가 펜을 잡은 손이다. 이 두 부위에 힘을 주지 않고 글을 쓰는 작

가는 없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작가들, 특히 장편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그외에도 힘을 가하게 되는 육체적부위가 있기 마련인데 제3부위, 지어 제4부위까지 있게 된다. 3부위와 4부위는 작가마다 각이하다. 벨린스끼는 제3부위가 윈다리여서 연락같은 선 책상에 윈다리에 오른다리를 감고 서서 글을 썼다고 하며 헤밍웨이는 제3부위가 오른다리여서 윈다리는 들고 오른다리에 힘을 주면서 장편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를 썼다고한다. 그런데 자기(천세봉)는 제3부위가 이발이나. 글을 시작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발을 악물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쓰다가 붓을 놓고 몸을 움직이려면 코밑, 입술, 턱 등이 강직되어 입을 벌릴수 없다.

그래서 두손으로 코, 입술, 턱부위를 한참이나 문대야 강직이 풀리고 입을 열수 있다. 이러한 일이 여러해 반복되는 과정에 이발들이 흔들리기 시작한것이 오십나이도 되기전에 다 빠졌다. 그래서 틀이를 하였다. 그것만 아니라 제4 의지점에까지 힘을 가하게 되는데 그곳은 무릎이다. 무릎에 힘을 주려니 저절로 결상우에 다리를 꼬부리고 앉게 되어 장딴지가 눌리면서 그 힘이 무릎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한 나날이 여러해 지나다 보니 장딴지에는 근육이 다 없어 지고 장작개비처럼 뼈만 남았다. ...

여기까지 이야기한 그는 바지가랭이를 걸어 올

리며 아래다리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정말 《단지》라고 할만 한 불룩한 부분은 전혀 없고 팔굽 아래의 팔처럼 가늘고 미끈하였다. 장판지의 근육이 전혀 없으니 무슨 힘이 있어서 걷기를 해내겠는가. 나는 창작이라는 그 한가지를 위하여 그처럼 혹사시킨 그의 몸을 생각하면서 동정심이 북받쳐 올랐다.

《선생님, 이제부터라도 운동시간을 내어 걷기 운동부터 해서 장판지에 근육이 오르게 해야겠군요.

리기영선생은 운동을 착실히 하고 땀수마찰을 비롯한 몸단련을 실속 있게 하시어서 장판지가 팽팽하여 구월산등산도 성천의 10리 눈길도 잘 오르시고 이발이 든든하여 사탕도 깨물어 잡수시던데 리기영선생보다 20년이나 아래인 천선생은 이발이 다 빠져 틀이를 하시고 장판지가 다 빠져 걷기도 힘들어 하시니 어디 뵈옵니까.》 하고 처량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그래서 사람마다 개성이 있는게 아니겠소. 이발이 흔들리도록 악물자고 해서 악문것도 아니고 장판지의 살이 빠지도록 꼬부리자고 해서 꼬부린것도 아니고 글 쓰는데 정력을 쏟다나면 저절로 제3, 제4의 지점으로 힘이 가는걸 어찌겠소. 젠장, 틀이를 하고 저가락 같은 정경이를 가지고라도 소설만 계속 쓰다가 죽는다면 한이 없겠소.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날까지 쓰고 싶은 소설을 쓰다가 죽는다면 그 이상 더 행복한게 어디 있겠소.》 하고 빙그레 웃기까지 하는것이였다.

이렇게 그는 육체가 좀 먹어 들어 가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설만 쓰다가 죽으면 무한정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작가였다. 하기에 그는 특십이 넘고 몸이 쇠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년 일흔살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창작을 계속하여 장편소설 《축원》,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들인 《은하수》, 《조선의 봄》 등을 련속 써낼수 있었던것이다.

소설가 천세봉은 해방후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작가였다.

동민주인공들의 형상에 바쳐진 작품으로서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 《흰 구름 피는 땅》,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1부), 《고난의 력사》(1부), 《석개울의 새봄》(1, 2, 3부), 《축원》 그리고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혁명의 려명》, 《은하수》, 《조선의 봄》, 다부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유격구의 기수》, 《사령부로 가는 길》 등 혁명소설만도 다섯책이나 되며 창작수기 《작가수업 40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방대하다. 량적으로 이처럼 많을뿐아니라 보다 중요한것은 그 작품들의 사상예술적수준이 다 자기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렇듯 천세봉은 **김일성, 김정일**시대의 주체문학건설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한 작가의 한사람이며 인민대중의 사랑속에 기억된 작가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으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워 주시였으며 **《김일성훈장》**, **《김일성상》**을 비롯한 최상급의 수훈과 명예칭호를 안겨 주시였던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화환을 보내주시고 영생의 언덕,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에도 천세봉을 회상하시며 큰 작가였다고 분에 넘치는 말씀을 해주시였으며 그에 대한 작가론도 쓰고 선전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던것이다.

애국렬사릉의 화강석비석에 새겨진 그의 이름과 돌사진이 영원하듯이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독자들의 사랑 받는 작가로 남아있을것이다.

가사

장수복을 노래하네

김은숙

배나무꽃 우리 동네 경사쌌다 흥성이네
땅크병집 할머니 백뿔상을 받았다오
나라 위해 공을 세운 영웅도 아니지만
오래오래 살았다고 축복을 받았다오

사는것이 한스럽던 설음 많던 그 옛날엔
꿈엔들 이런 행복 상상이나 했던가

장군님 가꾸시는 우리 세월 하도 좋아
오래 살아 복을 받는 우리의 생활일세

장군복이 넘치여 흥하는 내 조국엔
행복 넘친 세월속에 장수복도 찾아 오네
군복 입은 아들딸들 감사의 절 드리며
군인가정 빛내갈 맹세로 불 탄다오

바다와 소년

리광선

노을 비긴 바다가
소년은 나의 손 잡아 이끌고
나는 소년에게 이끌리며
백사장 모래불을 거닌다

바다
무한한 열정과
끝 없는 랑만과
심원한 사색을 주는
바다...

소년은 나에게 묻는다
—아저씨, 바다는 얼마나 크나?
—우리 사는 땅보다 더 크단다
—아저씨가 타는 배는 얼마나 크나?

한껏 아름답게 보이는
소년의 두팔
자기는 이담 커서 의자에 척 앉아
바다의 고기를 다 불러 들인단다
자기는 뭐 컴퓨터소조원이라나

때없이 끊어 지다가도
끝없이 나래 퍼는 소년의 이야기
진정 천진하다 아이들의 꿈은
허나 황홀하다 그 꿈이 꽃 피날 때는

오, 기쁨이여 즐거움이여
너는 어디서 솟아 나는가
오, 랑만이여, 생의 크나큰 희열이여
너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꿈이 현실로 펼쳐 지고
희망이 꽃으로 피어 나는
오늘을 불러 래일이 있고
래일이 있어 오늘이 벅찬
우리 나라 우리 시대!

소년의 이야기속에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희한하고
때로는 한가슴 벅차오르는

바다
수평선 아득한 바다...
바다는 넓어도
소년의 가슴에서 출렁인다
그 작은 가슴에서 일렁이는 파도에
이 마음 떠실고
나는 본다
조국의 축복속에 펼쳐 진
소년의 황홀한 미래를

비 맞은 새벽에

김명철

큰 비가 맞은 뒤
바람도 자는 새벽
사나운 강물의 덜미를 눌러 쥔고
밤새 지켜 낸 동쪽을 떠나
마을로 집으로 향하는 이런 때

어디서 터졌는가
큰 웃음보따리
옷도 젖고 몸도 젖고 다 젖었는데
가랑이에 불이나 달린듯
동쪽에 번져 가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 저마다
제각기
자기 집 터밭에서 밤비를 맞았더라면
이렇게 함께 나눌 웃음이 없었을것을!—

한밤중 비소리에 약속한듯 떨쳐 나와
농장포전을 함께 지켜 냈기에
그 웃음만은 지금껏 젖지 않은
이들이 내 정든 우리 사람들이다!—
선군시대에 사는 농업근로자들이다!—

제비

김해성

1. 새 세기의 첫봄에

새 세기의 첫봄이 왔다. 여느때없이 일찍 날아온 제비들은 아지랑이 피어 오르는 들판이며 나무들이 파릇파릇 움 트는 읍거리며 얼음 풀린 개울물소리 도란거리는 마을들에 자유로이 나래치며 봄의 서정을 읊조린다. 봄이 제비들을 불러왔는지 제비들이 봄을 불러 왔는지...

아니, 자연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봄은 먼저 찾아 들었다. 산기슭의 진달래가 망울도 터치기전에 우리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꽃이 만발하다. 불과 몇달전의 나날이 《지난 세기》로 불리우며 아득한 과거로 멀어 진듯 격세지감을 불러 일으키는 새봄인데야,

《우린 새 세기의 주인공들이야. 모든걸 새 세기의 안목으로 보아야 해.》

《그건 20세기의 방식일세. 낡은 세기의 관점을 버리라구.》

이런 식으로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새 세기의 추세》니 《21세기의 안목》이니 하는 멋진 말들이 유행되었다.

이 봄에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의 연구기관에 배치받게 되었다.

새 세기의 첫봄에 인생의 이정표를 세운다!...

이것은 바야흐로 21세기의 활무대에 깃을 퍼려는 청춘의 앞길을 축복하는 행운의 계시가 아닐가. 내 가슴은 체신의 컴퓨터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한몫할 꿈과 야심으로 부풀고 있다. 대학시절에 나는 체신분야에 응용하게 될 가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을 작성하여 후보학사가 되었다.

내가 굳이 체신의 컴퓨터화를 목표로 정한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편통신원인 아버지가 늘 힘들게 우편물을 나르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아온 때문이었다.

그런데 입직수속을 앞두고 며칠 말미를 얻어 고향에 내려 온 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문제였다. 두 누이는 전원에서 복무하는 인민군군관의 안해들이였고 어머니를 모실 사람은 집안의 막내이자 외아들인 나밖에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을 바친 이 고장을 뜨지 않으려 할것이다. 년로보장으로 종이 공장 지배인사업을 인계한 어머니는 부득부득 우편통신원일을 맡아 나섰으니 참...

한때 지배인까지 하던 어머니가 우편가방을 메고 다니는것이 민망스럽기도 했지만 아침 일찍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와 동자질을 하는 늙으신 어머니를 보느라니 더더욱

마음이 괴로웠다. 차라리 고향에 돌아와 체신기사로 일하면서 어머니의 인생말년을 보살펴 드리는데 자식된 도리가 아닐가?... 혹시 어머니도 내가 고향에 돌아와 가정을 이루어 며느리가 지은 밥을 자시기를 은근히 바라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머니와 흥금을 터놓고 의논하리라 작정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늘쌍 분주히 뱅뱅 돌아치다보니 좀처럼 조용히 마주 앉을 기회가 없었다.

그날도 나는 조금이나마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 진종일 나무도 패고 울바자도 손질하면서 해를 지냈다.

어머니는 여느 날보다 일찍 돌아 왔다. 자전거 뒤에는 호함지게 쌓인 닭이 결박되어 있었다. 그동안 내 얼굴이 축 갔다고 걱정하시더니 어데선가 구해 온 모양이다. 하지만 그 닭은 어머니의 모성애에 보답 못하는 나의 심정을 무겁게 했다.

어머니는 알뜰히 손질된 울바자와 트랙에 무드기 쌓아 놓은 나무가리를 일별하며 입을 열었다.

《내가 늘 바쁘다보니 할 일이 많은 너에게까지 부담을 끼치는구나.》

나는 좋은 기회다 싶어 말을 꺼냈다.

《어머니도 인젠 나이가 많으신데 집에서 쉬셔가지요. 어머니가 적게 고생하셨나요?》

《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 고생이겠니.》

어머니는 닭을 부려 놓고 걸레로 자전거를 닦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자전거이다. 아침저녁으로 닦고 정비하는것은 물론이고 늘 공구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샤르륵거리는 자전거소리에서 약간의 이상이라도 감촉되면 즉시에 고쳐놓아야 마음을 놓던 아버지였다.

자기 자랑이라면 질색하던 아버지였지만 이 자전거는 말이나 다름없이 빠르고 기운을 쓴다고 노상 자랑하곤 했다.

《말은 늙어도 자전거는 늙지 않는다. 자전거란 부속을 제때에 갈아 대면서 잘 관리하면 10년이건 20년이건 젊은 말처럼 뿔수 있거든.》

아버지는 자전거를 늘쌍 《제비》라고 불렀다. 그리고 자전거의 이마뼈기에 쇠로 깎은 제비모형까지 척 붙여 놓았다. 자전거가 달릴 때면 이 《제비》가 쏜살같이 대기를 헤가르는듯 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물인 자전거를 정성스레 닦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희숙희숙해 진 머리칼이며 벌써 굵을사 한 등허리... 년로하고 연약한 몸에 통신원일과 가정일의 짐을 겹쌓여 젊

어 지운다는 죄송함에 사로잡힌 나는 용기를 냈다.

《저도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의 혼자 고생을 그냥 모르는척 할수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고향에 내려 올가 합니다.》

결례질을 하던 어머니의 손이 흠칫 떴었다.

《내 심정을 이해한다구?... 넌 컴퓨터기술은 배웠어도 인간도리는 못 배웠구나.》

나는 무춤해 졌다. 인간도리라니... 나는 그 도리때문에 속을 앓고 있지 않는가.

어머니는 내 낮에 서늘해 진 눈길을 박았다.

세월은 어머니의 눈가에도 거미줄 같은 주름살을 촘촘히 조이고 있었으나 눈정기만은 훔쳐 갈수 없는듯 했다.

《나라에서는 허리띠를 졸라 매던 때에도 너를 대학공부시켰는데 사사로운 일때문에 날개가 꺾이다니... 아마 너는 큰 일을 칠 재목이 못되는가 부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는 자전거 앞머리의 《제비》를 어루만지며 말을 계속했다.

《네 아버지가 한갓 장식품으로 이걸 붙여 놓은 줄 아느냐? 넌 이 <제비>에 담긴 뜻을 다 모르고 있다.》

어머니는 자전거를 놔둔채 마당을 나섰다. 나는 자력에 끌리듯 어머니를 따라 섰다.

멀리서 보면 아담한 집들을 병아리들처럼 품고 웅크린 엄지닭을 편상케 하는 마을뒤산으로 오르던 어머니는 봄별이 포근한 둔덕에 앉았다. 목은 덤불을 헤치고 파아란 싹들이 뽀조름히 고개를 내미는 둔덕에는 싱그러운 훈향이 풍기었다. 어머니는 한눈에 바라보이는 읍거리의 정경을 이윽도록 지켜 보았다.

넓게 트인 골바닥으로 은띠처럼 늘어 진 강줄기를 따라 양옆에 지방산업공장들과 크고 작은 집들이 웅기증기 붙어 앉은 읍거리에서 여러 갈래의 길들이 사방으로 뻗어 나갔다. 아버지의 발자취가 무수히 새겨 진 길들이었다.

어머니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귀밑머리를 쓸어 넘기며 침묵을 깨뜨렸다.

《난 네 아버지를 길에서 처음 만났다. 우린 길에서 정도 나누었고 길에서 다투기도 했었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제비》는 첫 인연을 맺어 주고 서로의 이해를 두터이 해준 벗이었던단다.》

나는 어머니의 옆에 앉아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처녀시절 영천군의 으뜸 가는 미인이었다는 어머니가 한팔이 없는 아버지와 결합된 사연을 수수께끼로 여겨 온 나였다.

어머니는 저 멀리 강 웃쪽으로 뻗어 간 길에 눈길을 보내며 그 길에 칭칭 감긴 추억의 실꾸리를 풀기 시작했다.

《내가 저 길에서 네 아버지를 처음 만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세월이 흘렀구나.》

2. 어머니의 처녀시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소재지의 고등기술학교를 마친후 고향으로 돌아 온 상금은 종이공장 수매원으로 되었다. 농촌리들에 나가 무른 나무나 버짚, 파지 등 종이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수매원 일은 무척 분망했다.

마침 도인민위원회 일군인 외삼촌이 부모 잃은 조카딸을 위해 도소재지의 자전거공장에서 새로 만들기 시작한 《제비》표 자전거를 사주었다. 온 나라가 7개년계획을 희망의 봉우리로 바라보던 그때는 아직 자전거가 많지 못했고 영천과 같은 산골군에서는 녀성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모두 희한한 눈길로 쳐다보곤 했다.

그날도 상금은 자전거를 타고 월근리에 다녀왔다. 일이 잘되어 기분이 뜬 그는 읍으로 돌아오는 20리길에서 땀다 자전거를 밟아 땀다. 상쾌한 바람이 양태머리처녀의 아련한 볼에 홍조를 띄워 주었다.

그가 한창 구배길을 달리는데 앞쪽의 굽인돌이에서 웬 사람이 불쑥 나타났다. 아직 자전거에서 튼 상금은 당황하여 허둥거렸다. 불룩한 우편통신원가방을 멘 상대방도 급히 갈지자걸음을 했다.

그들은 종시 부딪치고 말았다. 사람도 자전거도 털썩 자빠졌다.

상금은 재빨리 일어 나 짐을 진채로 넘어 진 청년부터 부축하여 일으키며 사죄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청년은 오히려 땅에 벌렁 나누운 자전거부터 근심하는것이였다.

《자전거가 어데 마사 지진 않았는지... 내가 미쳐 피하지 못해서 그만...》

두사람은 저마끔 그만, 그만 하며 제 불찰을 사과하다가 서로 계면쩍은 웃음을 나누었다. 상금이가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자 청년은 손잡이밑에 붙은 《제비》상표를 눈여겨 보며 중얼거렸다.

《제비라... 자전거이름이 참 좋구만.》

상금은 서둘러 잘 가라는 인사를 남기며 자전거에 올라 탔다. 썩 - 내달리면서 얼핏 돌아보니 청년은 짐을 걸머진채 서글서글한 눈을 날썬한 처녀가 타고 가는 자전거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다. 상금은 어쩐지 미안쩍었다. 그쪽으로 간다면 짐이라도 실어 주련만...

충돌의 장본인인 자기에게 역증을 낼 대신 제편에서 사과하던 청년의 어리무리한 얼굴은 상금의 흰 비단 같은 마음에 슬그머니 찍혀 졌다.

(착한 사람이구나.)

며칠이 지나 상금은 또다시 월근리로 가게 되었다. 10리쯤 질주했을 때 역시 짐을 무겁게 진채 같은 방향으로 달음질치는 그 청년이 눈앞에 보였다. 자전거가 청년을 따라 잡는 순간 땀이

질퍽한 그의 얼굴을 띄워 본 상금은 속도를 늦추었다. 상금을 알아 본 청년은 어쭙게 눈인사를 보내며 계속 험뻑험뻑 뛰어 갔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게지.)

상금은 자전거를 뺄 세웠다. 다행스럽게도 전번에 진 《빛》을 값을 기회가 생긴것이다.

《가방을 자전거에 실으세요.》

《난 덕우리까지 가야 하는데요.》

숨을 험뻑거리며 밋어 선 청년은 쭈뼛거렸다.

덕우리는 월근리에서 10리쯤 더 가야 했다.

상금은 그가 거절할세라 천연스럽게 말했다.

《저도 그리로 가는 길이예요.》

《그럼 좀 도와 주시우. 급한 전보가 있어서…

래일 당장 잔치를 한다는 전보인데 빨리 전해 주어야 덕우리에 사는 신랑의 삼촌이 읍으로 내려 가 저녁기차를 탈수 있거든요.》

상금은 남의 잔치를 보장해 주려고 이 삼복더위에 무거운 짐을 진채 30리를 달리는 청년을 보니 감동되기도 했고 측은하기도 했다.

《아이참, 무슨 전보를 그리 급하게 전달.》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우리 일이란 노상 이렇게 바쁘답니다.》

땀내가 시급하게 풍기는 가방을 벗는 청년을 거들어 주던 상금은 막대기같이 뻗뻗한 그의 오른 팔에 주의가 미치었다. 슬쩍 여겨 보니 의수를 한 팔이었다.

(그랬었구나. 아마 영예군인인가 봐.)

청년에 대한 동정심이 치밀어 오른 상금은 가방을 자전거짐틀에 처신자 손을 내밀었다.

《전보를 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전할테니 천천히 따라 오세요.》

《원 이련, 너무 신세를 지는군요.》

청년이 우편가방을 뒤적거리려 전보지를 찾아 주자 상금은 쾌속으로 달렸다. 한달음에 덕우리에 이르러 본인을 찾아 전보를 전해 준 상금은 리어구에서 통신원을 기다렸다. 얼마후에 당도한 청년은 상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뇌었다.

상금은 청년에게 가방을 메워 주며 한마디 했다.

《어떻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 먼 길을 다니겠어요. 자전거를 하나 마련하지시요.》

다음 순간 그는 아차— 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청년의 의수한 오른팔이 눈을 찔렀기때문이다.

청년도 낮빛을 흐리며 풀이 죽어 뇌었다.

《우편통신이란 기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 난 우편통신원감도 못되는가 봅니다. 허허허…》

허거프게 웃으며 터벅터벅 걸어 가는 청년의 뒤모습을 점도록 응시하는 상금의 가슴은 아릿해졌다. 성한 두다리로 할수 있는 일감을 찾아서 굳이 우편통신원이 되었을 청년의 마음에 못을 박아 준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워 졌다.

상금의 심정에 응이로 박힌 죄의식은 그후 길에서 청년과 맞다들릴 때마다 굴러 가는 눈덩이처럼 커갔다. 인제는 청년의 눈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여간 웅색스럽지 않았다. 마치 보란듯이 두손으로 자전거를 물면서 씩씩 내닫는 자기를 보는 그의 심정이 어떠하랴. 상금은 될수록 그를 피하려고 원심을 썼다.

어느덧 여름철이 지나 9.9절을 맞으며 군에서는 체육경기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온 군으로 다니며 자전거운전기술을 날마다 련마하게 된 상금은 종이공장선수로 녀자자전거경기에 출전하였다.

상금이 자전거주자로 정해 진 길을 질주하여 선참으로 학교운동장에 들어 오자 종이공장사람들은 북을 울리며 환호했다. 그들은 결승테프를 끊고 자전거에서 내린 상금을 에워 싸고 등을 두드려준다. 가슴에 꽃송이를 달아 준다 야단법석했다. 몸과 마음이 똥똥 떠오르던 상금은 누군가 한켠에 세워 놓은 자기의 자전거손잡이에 꽃목걸이를 척 걸어 주는것을 띄워 보았다. 상금에게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이며 싱긋 웃는 청년은 뜻밖에도 그 영예군인청년이 아닌가.

그때 이마가 벗어 진 체신소장이 뛰어 오며 청년에게 소리쳤다.

《동익동무, 동문 언제부터 종이공장편이 됐소?

우리 꽃목걸이를 어데다 걸어 주나. 우리 체신소선수가 졌는데 분하지도 않소?》

낮이 뻗개 진 동익은 변명하듯 대꾸했다.

《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이 <제비>가 본때를 보인게 기뻐서 그렇습니다.》

《아파, 혹시 예쁜 처녀한테 반한게 아니야?》

체신소장이 눈을 흘기며 시가스르자 동익은 뒤더수기를 굼었다.

《난… 난 이 <제비>한테 반했수다.》

그 말에 모두들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체육경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 저 갈 때 상금은 학교울타리옆의 백양나무에 기대어 우두커니 서 있는 동익이앞을 무심히 지나칠수 없었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그의 자태를 보니 어쩐지 자전거경기에서 1등상을 탄 자기가 송구스러워 졌다. 상금은 그를 위안해 주고 싶은 충동에 떠밀리어 그쪽으로 다가갔다.

《통신원아저씨, 왜 그냥 여기에 계세요?》

《아저씨》는 구슬같이 광채를 뿌리는 처녀의 눈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두팔을 가진 동무들이 부럽구만.》

그의 한숨에 상금의 가슴속에 련민의 정이 고여 올랐다.

《너무 상심 마세요. 제가 도와 드리겠으니 자전거를 배우세요.》

《자전거를?... 한팔로 꽤 탈수 있을까요?》

동익의 눈에 병꽃 불꽃이 타올랐다. 상금은 그

불꽃이 꺼져 버릴세라 조바심을 쳤다.

《아저씨는 팔을 빼앗아 간 원썬놈들이 보란듯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야 해요.》

《고맙수다. 사실 나도 통신원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자전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팔때문에 주저했는데...》

마침 운동장은 텅 비었다.

두사람은 당장 자전거훈련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연약한 처녀가 붙잡아 주는 자전거에 올라 탄 동익은 거울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기우뚱거리다가 모재비로 탕 넘어 졌다. 그렇게 넘어 지기를 몇번... 종내 자전거의 바퀴살이 세개 부러졌다.

《아무래도 한팔로는 안되겠수다. 남의 자전거만 괜히 못 쓰게 만들면서...》

《바퀴살이야 갈아 대면 되지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상금은 그를 격려해 주며 운동장을 나섰다. 그들은 그 길로 자전거수리소를 찾아 가 바퀴살을 갈아 대었다.

자전거훈련은 저녁마다 계속되었다. 상금은 번번이 자전거수리소를 찾아 가 손상이 간 자전거를 고쳐야 했다. 친절한 수리공아바이는 영예군인을 도와 나선 가뜰한 처녀의 자전거를 성심껏 수리해주곤 했다.

하루는 아바이가 발디디개를 고쳐 주며 허를 골골 찼다.

《자전거가 견디지 못하는데 그 사람 몸인들 오죽하겠니. 한팔로 자전거를 익히자면 남보다 곱절은 배찰게다.》

《그럼요. 자전거채로 엮어 저 무릎을 거듭 상했어도 이악하게 자전거훈련에 달라붙곤 해요.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쉽지 않지만 네 마음도 못지 않다. 그 사람이 서른살이 되도록 장가를 안 들더니 처녀처럼 마음씨 고운 처녀를 만나자고 그랬는가 보지.》

그 말에 상금은 눈이 울통해 졌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체신소장이랑 그 사람 색시감을 하나 골라 주고 몇번 나섰는데 그가 도무지 응하지 않더라 누나.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대거니, 일밖에 모른다거니 하고 뒤에서 말이 많았었지. 그런데 요새는 너희들이 자전거훈련을 저녁마다 함께 하는걸 보고 모두 천상배필이라고 머리를 끄덕이더라.》

상금은 가슴이 후드득거렸다. 언뜻 떠오르는 《아저씨》의 꾀꾀한 오른팔...

상금은 속으로 도리질했다.

(아니야. 난 그를 《아저씨》로 대하며 도와 주었을뿐이야. 그 역시 자전거에만 몰두하면서 나에게 색 다른 눈길 한번 던진적이 없었지. 그의 말마따나 자전거에 반했을뿐인데... 어쩌면...)

갓 스물을 넘긴 꽃나이심장, 아직 어느 사나이도 건드려 보지 못한 숯된 심장은 마구 뼉박질했다.

아바이는 처녀의 낮이 해쓱해 지자 부드럽게 말했다.

《영예군인을 사랑한다면 칭찬할 일이지. 아무 처녀나 쉽게 품을 결심이 아니거든.》

《아니예요. 전 그런 칭찬을 받을 처녀가 못되여요. 전... 전...》

상금은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다음날 저녁에도 동익은 운동장에서 상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제는 한손으로 어지간히 자전거를 몰수 있게 되었으나 처음에 움직이면서 올라타는 동작이 잘 안되어 애를 먹는 그였다. 동익은 자전거를 끌고 나타난 상금의 새침해 진 표정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아니, 처녀의 낮빛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전거가 제대로 고쳐진 것만 살피며 흠쭈해 할뿐이었다.

(그래, 이 사람에겐 처녀의 존재는 안중에 없어. 하긴 안중에 있거나 말거나 둘이 만나는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상금은 속으로 뇌이며 그에게 자전거를 넘겨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날에 동익은 혼자서 자전거를 밀면서 훌쩍 올라 타는 동작을 완성했다. 그는 상금의 방조가 없이도 스스로 탈수 있게 되어 자전거로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뒹췄다.

《멋 있소. 신동히 군마를 탄것 같구려.》

그의 환희는 상금에게도 감염되었다. 상금은 자전거를 따라 저도 모르게 달음질쳤다.

《성공했군요. 인젠 짐을 지고 뛰어 다니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윽고 자전거를 멈춘 동익은 말했다.

《상금동무가 아니었다면... 동무를 만나지 못했다면... 동문 정말 내 은인이요.》

상금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아끼랴.

《통신원아저씨,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전 인젠 회계원일을 맡았으니 자전거는 필요 없어요.》

《이 <제비>를 내가?... 내가 무슨 럽치루...》

《부디 사양 마세요. 더 만날것 같지 못하니 마지막으 제 심정을 받아 주세요.》

상금의 얼굴에서 감히 물리칠수 없는 진정을 읽은 그는 자전거를 쓰다듬었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을런지... 전쟁때 쓰러진 <제비>가 다시 살아 난것만 같수다.》

《전쟁때 쓰러진 <제비>라니요?》

《내가 타던 군마의 이름이 <제비>였다우.》

어느덧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했다. 운동장을 나선 두사람은 자전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걸었다.

《더 만날것 같지 못하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전 사무실에만 맴돌게 됐어요.》

《아무쪼록... 고마운 동물... 잊지 않겠소.》

《그럼 <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동익은 긴숨을 내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3. 아버지의 병사시절

《조국해방전쟁때 열여덟살의 애젊은 병사였던 나는 사단지휘부의 서기로 복무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단으로 오가던 30대의 기통수가 있었지요.

그가 타고 다니던 군마를 <제비>라고 불렀습니다. 등이 까맣고 배허벅이 희속한 털빛갈이며 날렵한 생김새 그리고 탄력적인 속도를 가진 말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애청이였습니다. 더구나 군마가 나르는 우편물은 <그리운 강남>에서 실어 오는 봄소식이었으니 <제비>라고 부를만 했지요. 전선용사들에게는 고향과 후방이 <그리운 강남>이었으니까요. 병사들은 기통수가 군마를 타고 찾아오면 <제비가 보은 박씨를 물고 왔다. >고 낭만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제비>가 날라 오는 편지와 신문들은 흥부가 받은 박씨처럼 고지마다에 승리의 열매를 주렁지게 한다는거지요. 정말 그가 오는 날은 전선부대에선 명절 같았습니다.

기통수가 넘겨 주는 우편물들을 산하구분대들에 배포하는 일을 맡았던 나는 그와 친숙해 졌습니다. 말을 몹시 애지중지하던 그는 누구에게도 끄떡 타지 못하게 하던 <제비>를 나에게만은 허락했었지요. 그만큼 그는 나를 막내동생처럼 사랑해주었지요.

나 역시 그의 말을 사랑했지요. 그가 오면 나는 <제비>를 안치진 꼴짜기에 끌고 가 물을 먹이면서 몸뚱이를 씻어 주기도 하고 사료를 장만해 두었다가 실컷 배를 불러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흠족하여 말갈기를 어루쓸면서 한바탕 <제비>를 자랑했지요.

<어때? 내 말의 이름이 참 좋지? 시인들은 흔히 진달래를 봄의 선구자라고 하지만 난 먼저 제비를 꼽네. 진달래가 망울도 부풀기전에 강남에서 날아 와 봄을 알리는 제비야말로 봄의 선구자가 아니겠나. 예로부터 사람들과 한지붕아래서 살아 온 제비는 누구나 반기고 기다리는 새거든. >

비록 포연에 얼굴은 깃슬렸어도 불소나기에도 깃슬리지 않는 정서를 지닌 다정다감한분입니다.

전쟁전에 그림공부를 했던 나는 군마를 타고 달리는 그의 모습을 째깍이 그렸습니다. 아직 채색하지 않은 미완성그림을 그에게 보여 주었더니 우동통한 얼굴이 빙글썩해 지더군요.

<신동하게 그렸군. 그림이 완성되면 인민군대가 된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딸애에게 보내주

겠네.>

나는 짐짓 시통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가 뭐 공짜로 그림을 주겠대요.>

<물론 비싼 값을 치르어야지. 어쩔, 그 값으로 자네에게 우리 딸을 주겠네.>

나는 코웃음을 쳤지요.

<못난 아버지를 닮은 딸이겠지요.>

<예끼, 우리 분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다구. 눈이 꼭 구슬 같애.>

<딸이 도대체 몇살이게요?>

그는 능청스럽게 열손가락을 펴보이겠지요.

<열살이요? 딸이 크는걸 기다리자면 이 썩썩한 청춘이 다 시들어 빠지겠군요.>

<10년이 잠간이야.>

<결만 고와선 뭘해요. 속이 고와야지.>

그러자 그는 안주머니에서 딸애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구슬렸습니다.

<보라구, 얼마나 곱게 썼나. 우리 분이의 글씨만 봐두 마음씨가 곱다는게 대뜸 알리지?>

나는 어이가 없어 픽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다. 그날 그는 야음을 타서 집중사격구역을 뚫고 왔지요. 원쑤들은 전선의 보급로를 봉쇄하려고 우리 사단지휘부가 자리잡은 사자봉뒤계산에도 때없이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말에서 부린 통신용배낭을 전지볼로 비쳐보니 포탄파편에 한군데 찢어 찢더군요.

기통수동진 부랴부랴 은폐부에 들어 가 배낭안의 우편물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통신문건과 신문통구리는 성한채로 있었으나 편지들을 찢던 포장지가 너덜이 났더군요. 급히 편지들을 세여 보던 그의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편지가 몇개 없어 졌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나는 낮이 꺼렇게 질린 그를 위안했지요.

<전쟁인데 편지 몇장쯤 큰 일이겠어요.>

<무슨 소리... 그건 전선과 후방간에 통하는 피고 숨결이란 말이요. 전선으로 오는 다리들에선 포탄차들보다 우편차를 먼저 통과시키는걸 모르오?>

그는 기병총을 멘채 편지를 찾아 들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떻게 찾겠습니까. 밤에도 놈들의 포사격이 멎지 않는데 위험해요.>

<편지를 꼭 찾아야 해. 말을 부탁하오.>

그는 감감한 박으로 뛰쳐 나갔습다.

통신문건을 참모부에 넘긴 나는 말을 갱도에 끌고 가 물을 먹이고 청사료를 준 다음 그를 기다려 꼬박 밤을 새웠지요.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다.

나는 정치부에 보고하고 그를 찾아 떠났지요.

새벽녘에 놈들의 포사격도 뜸해 진지라 <제비>를 타고 갔지요. 락타고개를 넘어 얼마쯤 달리는

라니 그가 비청거리며 산자락길로 걸어 오더군요.

그는 나를 보자 손에 든 편지들을 흔들었습니다.

<찾았소. 끝내 이걸 찾아 냈거든요.>

온밤 헤매며 편지를 찾은 그의 군복은 땀투성이가 되었던군요. 우리는 말머리를 돌려 함께 군마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락타고개에 이르렀을 때 별안간 썩새기 한대가 산너머에서 달려 들었지요. 위기 일발의 순간 내뒤에 탔던 기통수동진 편지를 나에게 넘겨 주더니 말에서 훌쩍 뛰어 내렸습니다.

<저쪽 흠타기로 빠지라구.>

나는 그가 가리키는 흠타기로 냅다 말을 몰았습니다. 총망중에 피곳 돌아 보니 고개마루에 치달아 오른 그는 우뚝 선채 기병총을 쳐들고 적기의 주의를 자기에게 끌고 있었지요. 썩새기가 내리쬐리며 기총탄을 쏘아 대자 정면으로 맞선 그의 기병총도 맞불질을 했수다. 앞통수에 면바로 얻어 맞은 적기는 검은 연기를 토하며 나동그라지고 그 역시 허리를 꺾으며 쓰러졌지요. 나는 허둥지둥 달려 가 피범벅이 된 그의 몸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눈을 뜬 그는 간신히 묻더군요.

<편지는?...>

나는 손에 든 편지들을 보였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더니 가까스로 숨을 훔았습니다.

그후 나는 상부에 떼를 써서 그의 뒤를 이은 기통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목숨으로 구원한 <제비>를 타고 전선을 넘나들었지요. 원썩들의 발광적인 <봉쇄> 기도도 <제비>의 나래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적의 포화를 헤치던 군마가 그만 옆구리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포탄파편이 내 오른팔도 관통했지요. 숨을 거둔 말의 목을 그려안고 비분을 삼키던 나는 팔을 응급처치로 지혈시킨 다음 우편물짐을 등에 짊어 진채 다시 전선고지로 떠났습니다.

그날 돌아서서 군의소부터 찾아 제때에 팔을 치료할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희생된 기통수동지가 나를 지켜 보는듯 하여 발길을 돌릴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기다리는 신문과 편지들을 한시바삐 전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던 그의 말을 나는 속으로 부르짖으며 100여리길을 부상당한 몸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팔을 잃은 나는 전상자병원에서 전승을 맞이했지요. 병원에서 퇴원하자 나는 이 영천군을 찾아 왔수다. 분이의 아버지는 전쟁전에 이곳에서 체신소일꾼으로 일했었지요.

분이의 어머니와 두 동생은 원썩들의 폭격에 희생되고 천행으로 살아 난 분이는 친척집을 찾아 떠났는데 누구도 행처를 모르더군요. 나는 내

팔에 안겨 최후를 마친 기통수동지가 남긴 마지막부락을 저버릴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아 우편통신원이 되었지요.》

4. 아버지, 어머니의 신혼시절

두사람은 체신소합숙의 불빛이 보이는 갈림길에 이르렀다. 어느새 자오룩한 어둠이 그들을 삼켜 버렸다.

상금은 파들거리는 음성으로 나직이 물었다.

《그분을 그린 그림을 제가 볼수 없을까요?》

《우리 합숙방에 걸어 두었으니 아무때건...》

《아니예요. 지금 당장...》

간절하면서도 성급한 어조에 얼떠름해 진 동익은 상금을 데리고 합숙으로 갔다. 방에 들어 선 상금은 액틀에 넣어 벽에 걸어 놓은 그림을 보았다.

갈기를 날리며 네굽의 물동으로 질주하는 말, 기통가방과 기병총을 멘채 허리를 굽혀 말을 달리는 병사, 두툼한 입술을 앙다문 기통수의 얼굴 표정은 생동했다. 기통수의 모습을 얼없이 쳐다보며 한걸음, 두걸음 다가들던 상금은 흑— 하고 흐느낌을 터치였다.

《아버지—》

강렬한 흐느낌의 폭발에 동익은 어리둥절했다.

《아버지라니... 동무 이름은 상금인데.》

한참만에야 상금은 눈물을 흘리며 진정했다.

《분이는 저의 아명이에요.》

《아니 그럼?...》

동익은 흠칫하며 굳어 졌다.

《아버지는 어린 저를 예뻐이라고 불렀는데 차츰 제가 크자 그 이름이 줄어 들어 분이가 됐어요.》

제가 상금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아버지는 분이라고만 불렀어요. 예뻐이라는 의미로... 것처럼 저를 귀여워 하시던 아버지였는데...》

한동안 어쩔바를 모르던 동익은 처녀의 들먹이는 어깨를 보며 조심히 손을 잡았다.

《분이, 내가 얼마나 찾았대구.》

그만에야 상금은 기억속에 점점 희미해 지는 아버지를 영웅의 모습으로 되살려 준 고마운 사람, 아니 귀중한 사람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

이듬해 봄, 상금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저보다 나이가 여덟살 우인 영예군인과 결혼했다.

그때부터 상금은 남편의 자전거정비원이 되었다. 매일 수십리길을 뛰는 자전거를 내내 자전거수리소 신세로만 수리할수 없었다. 동익은 한팔로 다루는 솜씨가 숙련되지 않아 종종 어데 부딪치거나 넘어 지곤 하여 자전거의 고장이 잦았다.

그리고 한손으로는 자전거를 손질하기도 몹시 말쑥했다.

남편의 손을 바랄수 없어 상금은 각종 부속들과 공구들을 구해 놓고 자전거수리를 익혔다.

어느 날 구매 심한 고개길을 내리던 동익은 갑자기 나타난 양떼를 피하느라고 한손으로 운전할 때 제동도 걸래 찢절 매다가 그만 한길되는 비탈에 곤두박질했다. 한심하게 마사 진 자전거를 메고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 온 남편의 피멍이 든 얼굴을 본 상금은 억이 막혔다. 그는 남편의 상처도 자전거의 고장도 다같이 처치하느라고 꼬박 밤을 밝혀야 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상처가 난 다리로 출근하려는 동익에게 하루쯤 쉬라고 애원하느라 했다.

동익은 부득부득 출근차비를 하며 말했다.

《신문과 출판물은 사람들의 정신적량식이거든.

내가 하루 안 뛰면 술한 사람들의 머리가 하루 굵게 된단 말이요.》

상금은 남편의 고집에 지고 말았다.

그날 저녁부터 그는 하는수없이 험한 고개길까지 남편을 마중 가곤 했다. 공장에서도 영예군인 안해의 고충을 헤아려 시간을 주곤 했다. 상금은 그 특혜를 웅당한것으로 받아 들였다.

동익은 저녁마다 총총히 마중 나와 고개길에서 기다리는 안해에게 내가 뭐 얹은 얼음장우에 내놓은 어린 애인줄아는가고 성을 내기도 했으나 상금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 서로 티각태각하다가 나중엔 내 당신한테 두손을 들었소 하는 남편과 함께 돌아 오던 길, 사랑과 사랑의 다름질에 정도 깊어 지던 길우에 눈비가 뿌려 지고 가로수의 씨솜털이 하얗게 날리더니 이윽고 금슬 좋은 상금이 산전휴가를 받게 된것이다.

상금의 해산을 얼마 앞둔 여름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줄비가 쏟아 졌다. 상금은 우장을 갖추는 동익을 만류했으나 《전쟁때면 불소나기속에서도 우편물을 날랐는데 이만한 비때문에 주저않다니 말이 되우?》 하며 끝내 우편가방을 메고 나갔다. 저녁녘이 되어 비발은 세차지며 창밖에서 락수물 흐르는 소리가 커가자 상금은 일손을 놓고 말았다. 남편이 담당한 월근리로 가자면 내물을 건너야 한다. 징검다리가 놓인 여울목은 봄이면 발목이나 잠글 정도였으나 장마철이면 물이 불어나 허리를 치는 때도 있었다.

상금은 우산을 들고 뽕안 비발속으로 나섰다.

무거워 진 몸으로 비물이 철벽덕거리리는 길을 반달음질친 그가 월근리어구의 방쪽에 올라 서니 내물은 사품치고 있었다.

한참 서성거리느라니 아니나다를가 월근리를 한바퀴 돌아 온 남편이 물 건너편에 나타났다. 동익은 내가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옷쪽의 덕우리에 가져 갈 우편물자루를 둘러 맨채 물에 들어 섰다. 비웃은 벗어서 우편물을 싸다나니 온몸이 물참봉이 된 그는 비물이 줄줄 흐르는 고개를 깃수긋한채 물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상금은 허겁

지집 물에 뛰여 들어 맞받아 나갔다. 세찬 물살이 몸을 사정없이 떠박질렸으나 무섭지도 않았다.

그가 남편에게 마주 가서 우편물짐을 와락 빼앗아 머리에 이자 동익은 덴겁을 했다.

《정신 있소? 당신은 혼자몸도 아닌데...》

《아이가 귀한줄은 아는가 보지요.》

상금은 이쪽 기슭에 집을 내려 놓고 남편에게 성품이하듯 또다시 물에 뛰여 들었다. 둘이서 맞들어 자전거까지 건네 놓자 남편에게 한바탕 푸념을 늘어 놓았다.

《영예군인인 당신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나무랄 사람은 없어요. 당신은 힘든 통신원일을 그만 두고 사무를 보라는 체신소일꾼들의 권고도 거절했지요? 언제까지나 이런 고생을 하겠어요?》

동익의 눈에서는 일순 섬광이 편뜬했다. 이어 입에서는 준절한 소리가 튀겨 나왔다.

《당신이 그 기동수동지의 딸이 맞긴 맞소?》

《뭇라구요. 내가 아무렴...》

낮이 새파래진 상금은 우산을 동익의 손에 확 쥐여 주고는 비바람의 회오리속으로 지척지척 걸었다. 만삭이 된 안해의 몸이 근심된 동익은 급히 따라 가며 우산을 안해의 머리우에 기울였다.

《분이, 나를 극진히 아껴 주는 그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난 당신이 남편을 사랑하는 안해이기전에 인민의 사랑을 받는 딸이 되었으면 하오. 분이 아버지도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소.》

상금은 씨근거리며 우편물을 자전거에 싣고 떠를 동이었다. 비물인지 눈물인지 굵은 물방울이 그의 뺨에서 툭툭 떨어 졌다.

...

《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난 한갓 한가정만을 위하는 범속한 러염집아낙네로 되었을게다.》

어머니의 음성은 저으기 갈리었다.

벽차게 살아 온 인생의 한해한해가 새긴 년륜인듯 주름살이 촘촘히 얹힌 어머니의 얼굴은 나에게 새삼스럽게 안겨 온다.

워낙 이악한 어머니는 그후 아들딸 세 남매를 낳아 키우면서도 진땀을 갈밭으로 개간하여 종이 원료기지를 꾸리고 공장을 확장하고 가정부인들로 가내작업반을 묶는 등 갖가지 학용품과 종이 일용품을 질 좋게 생산하여 군내 주민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앞장 서게 되었다. 그 나날에 어머니는 당원으로 성장했고 종이공장 지배인의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

우리가 앉은 둔덕에 봄의 입김과도 같은 산들바람이 불어 왔다. 눈앞으로 뻗어 간 전선줄우에 한때의 제비가 오구구 모여 앉았다. 저 멀리 남쪽에서 발벌발벌 새각시걸음을 하던 봄아씨를 억세고 빠른 날개에 싣고 와 사람들의 마음에 끌고

루 뿌려 주는듯 싶은 제비들이었다. .

어머니의 낮에도 부드러운 봄빛이 비끼었다.
《너도 알다싶이 난 너의 아버지와 가끔 다툼질을 했었지. 인젠 그 다툼질도 그리워 지는구나.》
어머니의 애뜻한 어조는 나에게 감회로운 추억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약동하는 봄의 대지위에 아지랑이처럼 피어 오르는 추억에 잠기었다.

5. 나의 추억

내가 열두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종이공장 지배인이 되었다. 군안의 유일한 녀성지배인인 어머니는 집안일을 거의 누이들에게 맡기다싶이 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쿵당쿵당 뛰여 다녔다.

아버지는 지배인안해를 끔찍이 위해 주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지청구를 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그 가방(우편물가방)을 메고 다니겠어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줘야지요.
인젠 나이도 적지 않은 당신이 우편가방을 메고 다니는걸 보기가 딱해요.》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다. 누가 부모에 대해 물어 보면 어머니는 공장 지배인, 아버지는 우편통신원이라고 대답하기가 어쩔지 쑥스럽고 부자연스러웠기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태연히 응수했다.
《여보, 나때문에 지배인체면이 깎인단 말이지.
지배인이 무슨 벼슬자리요? 지배인도 우편통신원도 다 같은 인민의 심부름군이거든.》

《당신의 몸은 그 일에 더 건디지 못해요.》
어머니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내가 말아 올리는 마라초를 한대 피위문 아버지는 심각한 기색으로 말했다.

《자전거를 보오. 바퀴가 앞으로 굴러 가지 않으면 자빠지고 말거든. 인생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거든 부지런히 내달려야 하오. 멎어 서면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요. 내가 남들의 보살핌이나 받으며 산다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지.》

《그래두 제 몸에 맞는 일을 해야지 몸이 건디겠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앞에서 아버지와 더 엇서고 싶지 않은지 더 말을 안했다.

며칠이 지난 날 저녁무렵 나는 손우누이와 함께 강으로 나갔다.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웬만한 빨래는 승벽내기로 해내는 누이들에게 질세라 나는 낚시질로 지성을 겨루곤 했다. 아버지가 물고기탕을 좋아 했기때문이다.

나는 누이가 강변에서 빨래를 하는 동안 너럭바위우에 올라 낚시질을 했다. 무슨 조화인지 별스럽게 물고기가 잘 물리었다. 내가 멋지게 낚시대를 휘둘러 대며 연방 버들치, 열목어, 쏘가리파위들을 낚아 내자 물에서 미역 감던 애들이 슬금

슬금 모여 들었다. 쟁글거리던 퇴약별도 사그라들고 노을빛이 아롱대는 물결우에 떠도는 술술바람이 내 사기를 부추쳐 댔다.

문득 뒤에서 수군거리는 애들의 말소리가 천둥같이 내 귀를 자극했다.

《저기 외팔이통신원아바이가 오는구나.》

《한팔로도 자전거를 잘 타는데.》

나는 부지중 애들의 눈길에 쫓긴 큰길쪽을 돌아 보았다. 강기슭을 따라 뻗은 길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 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막대기같이 드리운 오른팔이 내 눈을 아프게 찔러 댔다.

나는 물속에 드리운 낚시대를 훔 나꾸쳐서 바위우에 뺨개치며 처음에 말한 녀석의 입을 다짜고짜 후려 갈겼다. 나보다도 더 커보이는 아이는 벌렁 나자빠지며 비명을 질렀다. 뜻밖의 봉변에 한동아리 애들이 벌컥벌컥 일어 났으나 나의 사나운 서술에 감히 대들지는 못했다.

어느새 이 광경을 보고 뛰여 올라 온 누나는 비실비실 일어 나는 애녀석의 목덜미를 틀어 잡는 내 손을 움켜 쥐었다.

《놓아라. 미쳤니?》

《이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외팔이라고...》

내가 목이 꺾 막혀 씩씩져렸다. 내 손아귀에서 빠진 애녀석도 내뺨며 한마디 던진다.

《팔이 하나니까 외팔이라고 했는데 뭘...》

나는 누나의 손을 뿌리쳤다.

《내 기어코 저 자식을 혼살내겠어.》

《그만해. 어머니가 알게 되면 가슴이 아파 하는걸 보자고 그래. 소문이 나면 어쩔려구. 이 멧꾸이야.》

누나의 눈에 글썽해 진 눈물을 보자 나는 고개를 외로 틀고 말았다.

저녁해가 서산마루에 슬릿슬릿 숨어 들면서 숲박곡질하듯 발가우리한 이마만 엿보일 때 우리 남매는 집으로 향했다. 우리가 쓸쓸한 마음으로 걷는 길은 아버지가 30년세월 비바람치나 눈보라치나 하루같이 달린 길이였다. 불편한 몸으로 남들을 위해 바친 아버지의 땀으로 젖어 든 길, 이 길에서 아버지의 자전거다이야는 닳아 지고 또 닳아져 한해에도 몇번씩 갈아 대야 했었다.

나는 찍하면 아버지의 자전거에 태워 달라고 졸랐으나 ... 아들을 즐겨 태워 주던 아버지의 뒤에 앉아 가면서 벌쭉거리며 빠기던 나를 애들은 어떤 눈길로 보았을까?...

우리가 마을어구에 이르니 어머니가 안절부절하며 동구길에 서 있었다. 먼 발치에서 보이는 우리집 굴뚝에서는 별스럽게 연기가 솟고 나무울타리안으로 사람들이 얼른거렸다.

어머니는 우리를 반기며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 경사가 났다. 술한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는데 아버지 오늘도 늦게 들어 오실 모양

이구나. 영길아, 네가 얼른 체신소에 뛰어 가 아버지질 모시고 오렴.»

내 마음에는 어머니의 들뜬 어조와 경사니 기다린다니니 하는 말뜻을 새길 틈이 없었다.

《싫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심상치 않은 우리의 기색을 살피며 다우쳐 묻자 나는 꼭 참아 오던 설분을 왈칵 토해버렸다.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 애들이 흥 봐요.》

찰나 노한 어머니의 손이 내 뺨에 날아 들었다.

철썩— 난생 처음 맞아 보는 어머니의 매였다.

《난 아버지의 몸이 걱정되어 자존심이니 체면이니 거들면서 가끔 엇드레질을 했다면... 너희들까지 아버지질 타할줄은 미처 몰랐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나는 뺨이 얼얼했으나 미처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를 괴롭힌 마음이 더 아파서인지...

이윽고 따르릉— 하는 자전거종소리가 내뒤에서 울렸다. 아, 아버지의 음성같이 친근한 소리!...

어머니는 판전을 피우며 아버지를 마중했다.

《우린 〈연도환영〉을 나왔수다. 당신을 소개한 글이 신문에 난걸 아시우?》

《허 참, 하필 신문을 배포하는 사람을 신문에 내다니... 난 오늘 제 자랑을 돌아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것 같아 어찌 웅색하던지.》

아버지는 자전거를 멈추고 내리면서 먼구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나도 후에 신문을 보았지만 《30년을 하루같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숨은 노력을 간단히 소개한 자그마한 기사였다. 그래도 아버지는 과분해서 어쩔바를 모르는것이였다.

그러는 아버지를 물기 머금은 눈으로 바라보던 어머니는 말했다.

《여보, 지금 당신을 축하해 주겠다고 사람들이 모여 왔어요.》

《뭐? 이런 변이라구야.》

《여보, 사람들이 모두 진심으로 기뻐 하고 축하해 주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아버지의 팔을 끼고 동구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울타리밖으로 나갔다. 낮이 익은 동네사람들, 종이공장사람들, 체신소사람들, 아버지의 친구들인 전쟁로병들... 그리고 낮이 선 사람들도 보였다.

사람들속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 올랐다.

흐릿해 진 눈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 보는 내 어깨에 누군가 손을 얹었다. 돌아 보니 꽃다발을 안은 웬 녀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서 있었다. 그런데 녀인의 아들인듯 싶은 그 아이는 아까 강변에서 싸운 녀석

이 아닌가. 둘러 보니 강변에 나왔던 애들과 낮모를 어른들이 함께 나에게 눈길을 모으고 있었다.

《용서해 다오. 너희들이 싸운 사연을 듣고 애들이랑 부모들이랑 너의 집에 찾아 와 용서를 빌려고 했다.》

녀인의 말에 나는 분을 삭이지 못해 눈을 마뜩지 않게 내리깔았다. 대신 내결에 선 누나가 제법 어른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찾아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녀인은 기뻐 하며 누나의 손을 꼭 잡았다.

《와보니 경사가 갔구나.》

녀인은 사람들에게 예워 싸인 아버지앞으로 다가갔다.

《통신원동지가 신문에 난걸 영천군사람들모두가 기뻐 합니다. 저희들의 축하도 받아 주십시오.》

처음 보는 녀인이 꽃다발을 내밀자 아버지는 낮을 붉히며 몸돌바를 몰라 했다.

《이러지 마시우. 난 임자네 동네에 편지 한장 전한 일도 없는데...》

《우리 동네가 통신원동지의 담당구역은 아니지만 영천군사람들은 누구나 통신원동질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손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온 아버지의 한손을 부끄럽게 여기다니...)

자책감이 내 가슴을 허비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둘러 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고맙수다. 난 지금껏 사람들이 기다려 주고 반갑게 맞아 주는 재미에 살아 왔을뿐입니다. 행복이란 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는걸 느끼는게 아니겠습니까.》

×

아버지는 《고난의 행군》때에도 룽십살이 지남 몸으로 통신원가방을 벗지 않았다.

그 어려운 나날에 대학을 다녔던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생활난때문에 출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아버지는 더 많은 구역을 맡아야 했다. 그 중에는 산고개를 넘나들어야 하는 외진 립산마울도 있었다.

어느 해, 남들이 다 쉬는 설 이튿날에 아버지는 무더기눈을 헤치며 립산마울로 가다가 눈사태에 파묻혀 길에서 순직하였다. 그때 아버지의 통신가방에는 새해공동사설이 실린 당보가 들어 있었다.

당에서는 아버지를 숨은 공로자로, 애국렬사로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 주었다.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년로보장을 받은 어머니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우편통신원이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은분들이 있었기에 시련의 나날 집집마다 쌀은 떨어 젖어도 신문과 출판물

들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자양분을 공급하여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불러 일으키지 않았던가!

《그 어려운 때 아버지, 어머니는 너의 등을 떠밀어 대학에 보냈다. 네 덕을 바라서 그랬겠니? 내가 보전대 년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것 같다.》

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에 파고 들었다. 오늘 집사정때문에 주저하는 이 아들에게 《제비》의 뜻을 심어 주는 어머니의 심정이 헤아려 졌다.

내가 목표하는 체신의 컴퓨터화가 어찌 최신기술만으로 이루어 지랴.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아는 정신이 없다면 미래도 없을것이다.

계승을 떠난 혁신은 없고 또 혁신이 없는 계승은 참다운 계승이 아니다. 아버지가 한생 군마처럼 여기며 애용해 온 자전거, 《제비》라고 불러 온 자전거에 깃든 의미는 매우 소중한것이였다.

《앞으로 내닫지 않고 떳어 서면 넘어 진다.》

아버지의 이 좌우명은 내가 넘겨 받아야 할 계주봉, 유산이 아닌가!

나는 몸을 일으키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의 뜻대로 래일 연구소로 떠나겠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체신분야에 도입하게 될 첫 프로그램에 <제비>라는 이름을 다는게 어때요? 강성대국의 봄을 불러 오는 <제비>! 좋지요?》

상식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세계인재문제

지식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고도과학기술인재, 특히 정보기술인재와 생물공학기술인재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 나고 있는 가운데 인재해결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인재위기의 주요원인은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날로 새롭게 발전하고 경제와 사회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비해 현재 인재육성이 시대의 발걸음을 따라 서지 못하는데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식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오늘 전통적인 로동력이 파잉되는 반면에 고도과학기술인재들이 부족되는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전된 나라들에서 더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21세기가 정보기술과 생물공학기술의 시대이므로 이 두 분야에서 고도과학기술인재가 많이 요구될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기술인재의 부족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치거리로 되고 있다.

지식경제시대에서 경쟁의 기본고리는 인재이다.

갈수록 우심해 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재위기에 대처하여 많은 나라들에서는 장기적인 인재육성과 단기적인 인재쟁탈전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한시도 미룰수 없는 임무로 되

있으며 또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 지고 있다

첫째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있다.

둘째로,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새로운 중신교육과 전민교육개념을 내놓고 있다.

셋째로, 고도과학기술, 특히 네트워크기술인재와 유전자공학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키워 내는데 힘을 넣고 있다.

넷째로, 자질향상교육을 적극 장려하여 새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워 주고 있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 내고 자기 나라에 붙잡아 두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른 나라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인재들을 쟁취하고 발굴하는데 보다 큰 주의를 돌리고 있다. 그리하여 한차례의 세계적인 인재쟁탈전이 벌어 지게 되였다.

분석가들은 이번의 세계적인 인재쟁탈전에서 발전된 나라들이 자금과 과학연구조건의 우위를 리용하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은 얹친데 얹친격으로 인재부족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

세기가 바뀐 때에 일어 난 이번의 세계적인 인재쟁탈전은 기필코 21세기 나라들 호상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만일 발전도상나라들이 인재를 육성하고 받아 들이며 모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지않는다면

새 세기의 경쟁에서 더욱더 피동적인 지위에 놓이게 될것이라고 한다.

아, 모교여

박련희

환송의 꽃보라에 묻혀
모교를 떠나던 날 어제 같은데
벌써 몇몇해던가
그날에 심은 에어린 나무
키높이 자라 아지를 펼쳤구나

지금도 여전하구나
체육수업 한창인 저 운동장에
그날처럼 나도 뛰어 들고 싶구나
해 밝은 창가마다 랑랑히 울리
는
글 읽는 소리 노래소리
반가워라 콩우유차의 경적소리

고난의 나날에도 오늘에도
미친 바람 아무리 불어 쳐와도
조국의 미래 억센 기동감들
변함없이 키워 내는 사랑의 모
교여

표창휴가 온 이 마음

한달음에 달려 가
내 앉았던 책상에도 다시 앉고
싶구나
선생님의 다정한 그 음성도
다시 듣고 싶구나

정녕 잊지 못할 스승의 모습
귀밀에 늘어 나던 흰 서리
나때문에 마음 쓰던 그 모습
우리 위해 초불처럼 자신을 다
바치신
그 진정앞에 내 무슨 기쁨 안
고 왔는가

눈비 오는 초소의 낮과 밤
한시도 잊지 못한 모교여
힘겨운 강행군의 나날에도
조국의 귀중함을 깨우쳐 주시
던
그 절절한 당부 잊은적 없어

땀을 흘리며 청춘을 바치며

총대처럼 억세게 자신을 다잡
던
그 나날의 위훈이 군공메달로
앞가슴에 빠젓이 빛나건만
왜서인지 작게만 생각되누나

아, 모교여 네앞에 서니
내 자란 그 나날 받아 온 사랑
크나큰 그 뜻이 사무쳐 와서
선뜻 들이 서지 못한다고
탓하지 말아 다오

내 이제 초소로 달려 가
조국 위한 복무의 순간순간을
값높이 빛내이다 다시 오지 못
한대도
그날의 출석부에서 내 이름 부
르듯
내 이름 다시 불러 다오
우리 학교 학생이었다고

작가소개

아프리카여성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아싸 제발

알제리의 너류작가 아싸 제발이 주체89(2000)년 도이쉴란 드도서평화상을 수여 받았다. 그는 이 상을 받은 6번째 녀인이다.

아싸 제발의 본명은 파티만 졸라 이마라야나이다.

아싸 제발은 주체25(1936)년에 알제리의 자그마한 해안도시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어교원을 하였다.

제발은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있는 프랑스어소학교를 졸업하고 주체45(1956)년에 빠리고 등사법학교의 첫 알제리학생으로 되었다.

빠리고등사법학교시절에 그는 처녀작 《갈망》을 창작하였다. 이 장편소설은 한 처녀가 애인의 사랑을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다른 남자와 친하는 이야기이다. 제발은 이런 류형의 소설을 싫어 하는 아버지의 꾸중을 피하기 위해 아싸 제발이라는 필명을 썼는데 이때부터 그것이 그의 필명으로 되었다.

이 소설은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아프리카의 젊은 이 녀인은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게 되었다.

주체47(1958)년에 제발은 알

제리민족해방전선의 전사와 결혼하였으며 남편을 따라 튀니지로 갔다. 그후 그는 마로끄의 라바트대학과 알제리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주체54(1965)년에 프랑스로 갔다.

이 기간에 알제리전쟁의 참혹성을 폐부로 절감한 제발은 전쟁속에서 허덕이는 알제리여성들의 비참한 정상을 주제로 하는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에 쓴 소설들은 장편소설 《참을성 없는 사람》(1958년), 장편소설 《새 세계의 아이들》(1962년), 장편소설 《천진한 종달새》(1967년)이다.

70년대 초기에 와서 제발은 영화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연출한 두편의 영화가 베니스영화축전과 베를린 영화축전에서 각각 상을 받았다.

그후 10년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제발은 주체69(1980)년에 장편소설 《알제리 녀인들》을 가지고 다시금 문단에 등장하였다.

이 소설은 프랑스의 랑만주의 화가 드라클로바의 유화작품 《알제리녀인들》을 제목으로 단것 이다.

그후 그는 주체74(1985)년에

자기의 경력을 그대로 담은 장편소설 《사랑, 환상》을 창작하였다. 알제리가 받아 온 프랑스의 식민지통치력사와 알제리 독립운동을 묘사한 이 소설은 주체76(1987)년에 출판된 장편소설 《그림자 왕후》, 주체80(1991)년에 출판된 장편소설 《의학을 떠나서》, 주체84(1995)년에 출판된 장편소설 《멀리에 있는 나의 감옥》과 함께 그의 4대대표작으로 되고있다.

근래에 와서 제발은 장편소설 《알제리아백인종》(1996년), 장편소설 《스트라스부르그의 밤》(1997년), 산문집 《내 심장

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목소리》(1999년)를 발표하였다.

제발은 스스로 사회정치활동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는 알제리녀성들과 아프리카녀성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을 사회적천사와 학대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지금 제발은 작가적명성과 함께 사회적존엄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하여 아프리카녀성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표본으로 되고있다.

석당교우에서

박영

그 뉘를 부르는 소리만 같아
내 걸음 멈추고 듣는것인가
토닥토닥 울려 오는 저 소리를
내 점도록 바라보는것인가
빨래방치소리 울려 가는 저 녀인들을

서강아
내 네가 흐르는
이 석당교우에 섰노라니
빨래하는 녀인들의 방치소리
이 가슴 들때리는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것은
하얀 비누거품 꽃잎처럼 떠가고
저녁노을 곱게 어린 물이 아니다
반세기전 이 석당교밀에 사품치던
피의 강물이 보인다

그리고 행복했던
이 나라 인민들의 모습 흐르던 다리
그리고 아름다운

이 나라 녀인들의 생활의 모습 비꼰던 내가에
승냥이 미제는 피 비린 살륙을 감행했거니

세월이 이젠 너무도 흘러서
저 녀인들 희디흰 빨래 여기서 하느뇨
세월이 흘러도 옮길수 없는것이
대대로 이어 오던 빨래터여서
오늘도 여기서 방치소리 울려 가느뇨

못 잊을 그날의
피에 젖은 옷은
그대로 신천의 박물관에 놓여 있다
미제의 천인공노할 살륙만행
오늘도 피 타게 절규하며

아, 피에 젖은 옷은
그 무엇으로도 빨수 없다고
피는 피로써 씻는것이라고
길 가던 길손 누구든 이 나라 사람들이어서
이것을 새겨 주자고 이것을 잊지 말게 하자고
신천의 녀인들 빨래터를 지키고 있구나!

비수

흔히 해학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우스개소리로 다들 알고 있다.

그러나 리상재의 해학은 그와는 전혀 다른 북받치는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니 하기에 그의 해학이나 풍자는 왜놈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나라를 팔아 먹은 매국간신들의 심장을 찌르고 저며 내는 비수로 되었다.

리상재는 일제의 강도적인 《을사보호조약》 날조 이전까지 봉건정부에서 판료를 하다가 그만두고 청소년교육사업과 사회정치사업에 몸을 담고 한생을 바쳐 온 사람이다.

조선봉건왕조말기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더러운 잔명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썩은 벼슬아치들이 구대기마냥 뒤끓는 봉건조정에는 더는 자신의 몸을 얹혀 두고 싶지 않은 애국남아의 장한 기개의 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제가 날강도적인 《을사보호조약》을 날조하려고 날뛰던 그무렵 어느 날이었다.

의정부 총무국장을 하던 리상재는 조선강점의 원흉 이또놈과 매국간신들인 리완용, 송명준놈들이 함께 참가한 어느 회합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러지 않아도 항상 속에서 불을 끓이고 있던 리상재는 이또놈의 상통과 매국노들의 더러운 몸뚱이를 대하게 되자 격분을 참을수 없었다.

불이 철철 흐르는 눈으로 매국노들을 지그시 노려 보던 그의 입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리가 튀어 나왔다.

《대감들은 다 동경(도쿄)으로 이사하는게 좋겠소.》

매국노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제 웬말이냐는듯 리상재를 뵈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경감, 별안간 그제 무슨 말씀이시요?》
더듬거리며 말쑥지를 때는 리완용의 물음에 대꾸하는 리상재의 얼굴색은 천연스러우면서도 자못 엄숙해 보이였다.

《대감들이야 망하게 하는데서는 천재들이니 동경에 가면 일본이 또 인차 망할게 아니겠소.》

우스개라고 하면 우스개라고도 할수 있는 이런 대담한 말은 그가 아니고는 내뱉을수 없는 말이었다. 이또놈은 말할것도 없고 매국노들과 좌중이 다 아연하지 않을수 없게끔 되었다.

그는 이런 말들을 조성된 정황에서 순간적으로 능숙하게 구사할줄 아는 기지의 소유자였기에 이런 일이 여러번 있었다.

어느 날 대신인 김홍집과 마주 앉아 정사를 룬할 때였다.

《지금 전국에 탐관오리가 너무 많아 백성이 제대로 살아 갈수가 없으니 야단은 야단이요. 아무래도 이걸 해결하자면 여덟놈의 목은 베야 할가 보오.》

《위 여덟까지야 필요 없지요. 셋만 처리해도 일이 다 제대로 될텐데...》

김홍집의 말을 듣고 한동안이 지나 헛기침을 뽀뽀 하고 나서 대답하는 리상재의 말이였다.

여기서 여덟이란 8도의 감사를 말하는것이요, 셋은 김홍집이까지 포함한 당시 봉건정부의 실권자들인 세명의 대신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니 어찌 김홍집이 무안해 하지 않을수 있었으랴.

그의 이런 예리한 풍자, 해학의 대상에는 대신이건 세도재상이건 고위관료건 예외로 되는것이 하나도 없었다.

언제인가 그는 어느 관서의 공문서를 가지고 당시 세도재상으로 이름난 민옹식에게 가게 되었다.

그가 공문을 전하자 민가는 머리만 끄덕일뿐 한마디 말도 안하고 무슨 글만 줄곧 쓰는것이였다. 그러는 그가 몹시도 교만해 보여 리상재는 통명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가겠소.》

《아니 왜 그리 급하게 가려 하오?》

놀라 하며 이렇게 묻는 민가에게 리상재는 《내가 공부로 왔는데 대감이 너무 홀대하니 내가 어찌 그냥 있을수 있겠소?》라고 대꾸했다.

그래도 민씨집안이라 세줄이 뜨르르한 자기앞에서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하는 그의 말이 귀에 거슬러 한참 쳐다보던 민가는 입이 쓰거운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쓰는 이 글이 바로 공문에 대한 회답이요.》

그리고는 혼자소리로 《요새 외국에 사신으로 좀 나다녔으면 그렇게 거만해야 하는가.》라고 중얼중얼하였다.

리상재의 귀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으면 몰라도 들린바에야 그가 어찌 가만 있겠는가.

《아마 그런가 봄디다. 요새 일본제비단바지에 러송연이나 물고 있으면 제 혼자 개화한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디다. 허허.》

자기가 입고 있는 일본제비단바지와 재털이에서 새파란 연기를 실실 피여 올리는 러송연을 바라보며 민가는 면전에서 들이대는 그의 대담한 역습에 무엇이랴 대꾸할수가 없었다.

이처럼 리상재는 조선봉건왕조정부에서 고위관료직을 하는 동안 특히는 일제의 조선강점전후시기에 왜놈들과 그에 아부하여 나라를 팔아 먹은 매국노들, 쇠국과 보수로 치부에만 열중하는 썩은 량반관료들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해학아닌 해학으로, 풍자 아닌 풍자로 대담하게 터뜨리면서 그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리원희

형상의 진실성과 기교

리정수

언제나 그러하지만 달이 바뀌어 어김없이 도착하는 잡지 《조선문학》을 펼쳐 들 때마다 새로운 기대와 관심으로 마음은 설레이곤 한다.

그것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노래함에 있어서 남다른 탐구와 지칠줄 모르는 헌신적노력을 기울여 우리 소설문단을 더 이채롭게 장식하고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성과작들이 왕성하게 발표되기 때문이다.

읽을수록 흥벽을 치며 뇌리에 새겨 지고 나날이 그 형상세계가 새롭게 음미되는 작품은 레외없이 이야기에 끌려 들며 생활이 진실하고 작가의 높은 지성과 기교, 형상솜씨가 변독인다.

이런 작품을 대할 때가 제일 기쁘다.

그러나 간혹 독자들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며 형상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 하여 저지기 실망을 금할수 없는 작품도 있다. 그러한 작품은 작가의 창작적의도가 생경하게 로출되고 영상이 진실하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게 한다.

단편소설창작에서 진실성문제는 작품의 품격과 가치를 좌우하는 선차적요인이다. 만일 작품에 형상된 인물들의 생활인 진실성을 잃게 되면 위대한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려는 작가의 탐구와 노력은 물론 형상창조에 구현된 기교도 빛을 내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잡지 《조선문학》 주체91(2002)년 3호에 발표된 공승길작 단편소설 《〈별무리〉 흐르는 곳》과 조인영작 단편소설 《군복 입은 사람들》은 스쳐 지날수 없는 성과와 교훈을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형상의 매력은 작가의 의도를 생활속에 깊이 묻어 두고 그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있다.》

공승길 작 단편소설 《〈별무리〉 흐르는 곳》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이 생활속에 폭 잡겨서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형상된것으로 하여 단숨에 읽히운다.

처음부터 의미 깊게 설정된 도소재지의 포장도로, 그 길에서 시급양관리소 인수원 한명애는 변질된 전어문제로 영사구수산산업소 판매과장아바이를 욕질하며 기어이 째하겠다고 버르는데 영사구바다가마을의 조산원 리선화는 한 산모의 해산문제로 가슴을 조이고 있다.

작품은 서로 상반되는 두 인물의 생활의 목적과 개성적면모를 처음부터 흥미 있게 보여 주면

서 이 인물관계가 제기하는 의의 있는 사회적문제가 어떻게 해명되어 가는가 하는 견인력을 예리하게 조성하고 있다.

이어 선화의 내면심리를 타고 명애의 풍족하고 부러운것 없는 생활에 만족해 진, 그러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식의 재능의 싹도 부모의 강요로 일축해 버리고 전어문제로 남에게 밀어 버리며 선화에게 오히려 제 살 궁리를 좀 하라고 《훈시》하는 생활들이 흥미 있게 흘러 간다. 하여 명애의 개성적성격이 생동하게 드러나면서 인간문제가 생활속에서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애를 보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선화의 회상을 통하여 영사구사람들이 《급하기》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바쳐 가던 나날들이 강한 대조를 이루며 펼쳐 진다. 비록 유족하지는 못해도 부부가 깊이 리해하고 도와 주는 생활이며 해일피해복구전투장에서 몸을 다쳐 고생하던 영옥이가 다시 일어서도록 돌봐 주고 척추변형으로 해산림박에 신고하게 될 그를 위해 도병원에까지 찾아가 순산시킬 방도를 찾아 내는 생활들이 그 어떤 꾸밈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한 형상으로 안겨 오고 있다.

이렇게 형상의 매력은 작가의 의도를 생활속에 깊이 묻어 두고 이야기의 제기에서부터 극적관계가 심화되어 형상흐름전반에 탄력을 보장하면서 절정을 위한 감정축적을 능숙하게 해나가는데 있다.

조인영작 단편소설 《군복 입은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군에 심어 주신 혁명적동지애의 사상을 인생관화한 군인들은 동지와 혁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과 긍지로 여긴다는 의의 있는 문제를 사상예술적으로 깊이 밝혀 내려고 한 작품이다.

작품은 물길공사장에 조성된 수천립방의 물주머니를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하는 극적정황을 조성하고 김명해간호장이 두눈을 실명 당한 림성철과 일생을 같이 할 희생정신에 감복한 부대장 김경진과 3대대장 강창덕이 림접구분대들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기희생정신으로 진격로를 열어간 이야기를 통해 제기한 인간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창작적의도는 물론 인간관계도 갈등이 없는 극적관계로 맺어 주고 이야기의 흐름도 긴박한 사건선에 맞물려 굴곡 있게 전개시키고 있다. 그런데 작품은 독자를 형상세계에 끌어 들이지 못하

고있다.

무엇보다 작가가 형상한 인물들이 생활과 성격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 지지 못하였다.

작품은 물주머니 극복문제로 김경진과 강창덕이 큰 고충을 겪는 계기에서 뜻밖에 림성철상사와 김명해간호장과의 사랑문제를 야기시켜 극적추동력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그 사랑선이 진실성을 잃고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며 독자에게 견인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림성철상사가 굴러 내리는 팽차를 막아 전우들을 구원하고 눈이 멀었다는 사건은 지금까지 여러 작품들에서 많이 보아 온 이야기이며 작가가 이야기흐름에 굴곡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문제라는것이 헛동하니 알린다.

또한 명해간호장의 희생정신이 감동 깊은 생활속에서 그려 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이 공감하고 납득하기가 힘들다.

작품은 명해간호장이 성철상사와 일생을 같이 할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운명적인 생활의 깊이는 파주지 않고 되려 군사복무의 순결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지엽적인 문제, 즉 성철상사를 이미전에 잘 알고 있었다고 소문내어 억지로 극성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하여 명해의 아버지인 김경진과 성철상사의 지휘관인 강창덕에게 극적체험과 굴곡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냈다는것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한 계기에서 조성되는 극적사건의 해명과정으로 이야기가 흐르는 단편소설의 생리, 그것도 첨예한 갈등이 없는 작품일수록 미답에 그치기 쉽고 극적견인력과 흥미를 조성하기가 수월치 않다. 때문에 인물들의 운명에서 심각한 변화를 가져 오는 생활적구면에서 극적추동력을 특색있게 조성하고 인물들의 교감과정을 진실하게 파고 들어 이야기흐름에 긴장과 속도, 흥미가 보장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편소설 《군복 입은 사람들》은 작가가 창작적 의도만 앞세우면서 성격과 생활론리에 맞게 이야기를 펼쳐 보이지 않다보니 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두 지휘관에게 강한 극적충격과 체험을 주려 했던 사랑선이 예상을 뒤집는 사건으로 되지 못하고 결과만 보여준 상식적이고 심도가 없는 이야기여서 작품자체가 진실성을 잃었으며 뒤가 뻥뚫음해 진 소설로 되었다고 본다.

현실의 아름답고 참된 인간들의 생활에 토대하여 창작되는 작품일수록 작가의 발견이 있고 파고든 형상세계가 새로우며 이야기꾸밈에서 사소한 주관과 의도도 생경하게 로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별무리〉 흐르는 곳》은 이런 견지에서 작가의 형상기교와 솜씨를 다시금 음미하게 한다.

즉 포장도로는 선화와 명애의 인생행로를 의미하게 하면서 대조되는 생활속에서 성격의 본질이 정서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작품은 공교롭게도 승용차가 되돌아 가는 바람에 건게 된 선화와 명애가 말없이 주고 받는 심리의 대화를 통해 심화된 인간문제를 더 강조해 주면서 사건의 급전과 함께 절정을 특색 있게 조직하였다.

《03》호 자동차를 타고 영사구로 왔으나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선화는 해산방조를 위해 또 나선다. 그때 선화를 기다려 온 선장아바이와 복남이가 달려 와 전마선에 태워 준다. 그러면서도 이곳 태생이고 늘 인수문제로 수산사업소에 찾아오는 명애만은 알아 보지 못한다.

이어 섬기슭에 펼쳐 진 해불바다의 별무리, 그것은 선화를 기다리고 반기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었다.

순간 명애는 심한 자책에 모대긴다. 과연 자기의 인생길에 저 선화를 반기듯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삶에 무슨 존경과 사랑, 축복이 있겠는가.

비로소 작품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행복인것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진정을 바쳐 일하여 집단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속에 참다운 행복이 꽃 핀다는 인생리치를 감동깊이 해명하였다.

이 작품에서 론하게 되는것은 인간문제의 해명과정을 두 성격의 본질이 드러날수 있는 생활속에서 대조적으로 생동하게 그려 주면서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감정조직을 흥미와 기대, 축적과 폭발과정으로 조직한 측면.

개성적인 성격을 《곱하기》선생이란 별명과 구두세부를 통해 특징 지으며 그 발현과정으로 인물을 섬세하게 형상한 솜씨.

단편소설의 생리에 맞게 도소재지에서 영사구로오는 극히 짧은 거리에 두 인물의 대조되는 인생행로를 함축시켜 비약과 생략을 하면서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의 본질이 형상적으로 선명히 안겨 지도록 구성을 짜이게 조직한데서 작가의 깊은 탐구세계를 보게 된다.

창작에서 작가의 의도와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것은 험치 않다.

단편소설 《군복 입은 사람들》에서 걸린 고리는 명백하다. 갈등조성이 없이 충격적인 오후나 역감정을 조성하려고 설정된 명해와 성철의 사랑선은 그들 관계에서 가슴뜨거운 사건이 발생하여

두 지휘관에게 생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끔 예상을 뒤집는것으로 형상하였어야 했다. 림성철상사를 위한 명해간호장의 헌신은 작품의 극적추동력인것만큼 발견중의 발견으로 되어야 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작품은 성철상사의 불행을 두고 피로

와 하는 강창덕과 딸의 좋지 못한 소문에 마음 쓰는 김정진의 성격형상도 격이 낮고 내심세계가 깊지 못한 인물로 형상하였다.

강창덕은 명해를 고향으로 보내고 대신 자기 딸을 성철상사에게 시집 보내야 한다면 뛰어 다니는 인물로 그렸는데 이것도 작가에 의하여 조종되는 형상에 불과하다. 성격론리를 무시하고 강짜로 극성을 체현시켜 그의 성격적면모를 형상하려고 하니 주관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비진실한 인물로 되고 말았다.

또한 김정진도 딸의 신상문제를 군의소에 가서 료해하면서도 만나지 않고 있다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인물로 형상하였

다. 생활론리와 성격형상이 모순되며 내적심리의 굴곡이 진실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로부터 작품에서 일어 나는 모든 변화들이 어색하고 감동적이지 못하여 작품은 견인력을 잃게 되었다.

위대한 선군시대가 낳은 아름답고 참된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동깊이 밝혀 내려는 작가는 현실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옹호정신을 지녀야 할뿐아니라 높은 창작적기량과 형상솜씨를 발휘할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창작적의도는 로출되지 않으면서도 생활속에서 인간성격들이 참신하고 매력적으로 형상되어 작품을 읽는 독자가 스스로 끌려 들어 감동을 받아 안게 하여야 한다.

어머니모습

김영택

이 아들의 당원증이
얼만큼 무거워서인지
삼가
두손 모아 받쳐 들고 서계시는 어머니

그 무엇이 담겨 저 있기에
당원이 된 이 아들을 품에 안듯이
나를 낳아 젖 먹여 준 가슴에
그렇듯 정히 안아 보고 계십니까

추억의 문을 소중히 열면
헌신의 모습으로만 찾아 오는 어머니
영웅이 되라는 당부보다
일터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이 더 많으셨던 어머니

내 정녕 알았던가 몰랐던가
어머니이기전에 당원이었던 그 마음을
자기를 믿듯 이 아들을 굳게 믿어
변함없이 걸어 오신 혁명의 한길에
곳곳한 교대자를 내세우려
어머니 그리도 속 써오신줄

이제는 일손을 놓으시고
자식의 뒤바라지로 락을 보시는
한없이 소박한 모습이어도
어머니는 혁명앞에 나를 세운 첫 스승
나의 당원증에 그 이름 오르지 않아도
걸어 갈 생활의 굽이굽이마다에

나를 책임지신 영원한 보증인

이 세상만물이 잠든 그때에도
어머니만은 잠들지 않았습시다
밤 늦게 돌아 오는 퇴근길에서
이 아들만은 찾아 보던 어머니모습은
내 그 어디에 가 있다 해도
나를 손 잡아 주는 정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세월속에 가리워 져어도
변함없이 기울여 오신 그 사랑이
혁명에 몸 바치는 크나큰 뜻으로
이 가슴에 새겨 지고 굳어 지는
어머니모습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그 어느 어머니에게 뜨겁지 않으랴만
내 한걸음에 자신의 한해를 쏟으셨습니다
그 걸음걸음을 다 모아 보니
온넛을 기울여 오신
어머니의 한생이었습니다

당을 따르는 천만리길에 새겨 질
드림 없을 내 한생의 자욱자욱은
어머니모습으로 그 언제나 비껴 있으리니
나에게 피와 살을 주신 어머니
어머니는 두손 모아 받쳐 드신 자신의 한생으로
아 나의 삶을 받들어 주고 계십니까

죽송

로산 리은상

풀도 아닌것이 나무도 아닌것이 사시에 푸른것
은 저 대뿐이요 강하지도 않은것이 유하지도 않
은것이 온갖 곳에 쓰이는것은 저 대뿐이다.

죽마를 타는 어린애로부터 죽장을 짚는 백발에
까지 사람은 일평생을 두고 이 대와 친하는것이
다.

아이들의 놀음으로 연살이 되어 주고 령감님들
의 심심풀이로 담배대가 되어 주며 문사를 위하
여선 붓대가 되어 주고 무장을 위하여선 화살이
되어 준다.

부하지 못하여 대문이 없는 집엔 대사립이 되
여주며 가난하여 살영창이 없는 집에는 제 몸을
조개여 조그마한 죽창을 이루어 준다. 작은 술
한끼 불이 없는 집에는 락엽을 굶으라고 갈퀴가
되어 주며 제야의 추운 밤에도 집집에 복을 주려
고 복조리가 되어 주는 저 대야말로 얼마나 고마
운가.

500년동안 의간문물로 울려 오든 이 땅에서 선
비의 머리우에서는 갓이 되어 주었고 천인의 머
리우에서는 패랭이가 되어 주었다.

흐린 날이면 고운 옷에 비 맞는다고 우산이 되
여 주되 맑은 날이면 이 나라의 위세를 날려 주
려고 국기의 기대가 되어 주는것이며 이양 놀음
엔 초군의 흥을 도와 대고등이 되어 주고 보리농
사 다된 뒤엔 타작해 들이라고 도리깨가 되어 준
다.

재자와 가인 위하여선 발이 되어 가리워 주고
어부를 위하여선 낚시대되어 드리워 주니 이런
귀한게 또 어디 있을손가.

나무조각을 합하여 놓고 떼가 되어 통 만들고
엷고 또 엷고 촘촘히 엷어 저서 곡식을 담으라고
광주리된다.

마지막에 제 몸을 뜨거운 불에 태워 병약한이
위하여서 죽력(술)을 내어주니 가룩한 희생은 거
기서도 있구나!

맹종(중국 삼국시대의 오나라사람)이 죽순을 효
도를 하여 쓰이였거니와 죽순의 쓰임이야 약에
뿐이라! 회쳐 먹고 나물해 먹고 찜도 하고 전골
도 하니 집집이 손님대접 맛 좋은 죽순일다. 약
중에도 대일이면 강화제로 이름이 있고 하다못해
마른 대일까지 추운 방에 불이 되어 때일지언정
대치고 버리는것은 하나도 없는것이니 대의 공
로를 뉘 어이 잊을손가.

조용한 대발에 홀로 앉아 거문고를 타며 노래
부른이는 당나라 왕유요, 서창아래에 벼를 삼아
종죽의 시를 읊은 이는 우리 나라 명종때 시인
림억잠이다.

림억잠의 《서창하의 참대》란 시에서 1절을
보이건대 이러하다.

실바람엔 바삭바삭
센 바람엔 뒤흔드네
온방에 서늘 그득
뉘라 5월을 찢다하노

과연 무더운 여름날에 서늘한 대숲이란것은 두
번도 말할것이 아닌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대숲
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야말로 그대로 거문고소
리가 아닐수 없다.

하고 보니 소리중에도 그 좋은 통소소리란게
또 대로써 되는것이로구나!

신라 신문왕이 동해 소산에서 기이한 대를 얻
어 그 대로써 저대를 만들어 월송천존리에 두시
였는데 그 저대를 한번 불면 적병은 물러 가고
병은 나았고 가문 날 비가 오고 비가 개여 바람
을 다스리고 파도를 가라앉히매 이름 짓기를 《만
파식적》이라 하여 국보를 삼으시고 다음대 왕에
이르러서는 그 피리의 호를 다시 《만만파파식적》
이라 하였다.

옛날의 만파식적
오늘에는 없는게요
13도 고을 고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풍랑 자게 할 곡조
불어 내어 보파저

그러나 만파식적은 그 옛날의 성을 지키는 큰
보배! 오늘은 그대와 내가 나라 지키는 만파식적
이 될수밖에!

변두, 보궐란 이름으로 존귀하게 종묘제사에
제기로 이바지되고 금, 적, 소, 약, 필률이란 이름
으로 맑고 아름답게 아악합주에 음률을 고무어준
다. 아아, 얼마나 거룩한가.

이같이 미에 대한 조선사람의 사궐은 남보다
훨씬 더 별다른것이였다.

또 다시 보라! 신라의 유리왕대에 이 시국인이
침략해 왔을 때 난데 없는 군병들이 모두다 대
있을 귀에 걸고 아군을 도와 적군을 격파하여 주
고는 전쟁이 끝난 뒤엔 간곳이 없고 다만 미추릉
(미추왕의릉)앞에 대일만 쌓였기로 그것이 선왕
명혼의 보호하심인줄 알고 그로 인하여 그 릉을
죽현릉이라 하였으며 그 군병들을 죽엽군 즉 참
대일군사라 하였드란다.

이 이야기는 대일 하나도 국가를 위하여 돕는
다는 애국전설이여니와 충절을 다하여 자랑하는
대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워 죽을 지경으
로 하지 않는가?

그렇다. 대라 하면 의례히 충절과 정열을 표하
는것이니 선죽교의 전설이 대표적인것이요 상비

(효의 녀인으로 순의 후비가 된 아왕)의 반죽은 남의 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오히려 우리네의 입으로 전해 지고 있다. 또 한가지 대에는 이상한 것이 있으니 대라는것은 자꾸만 찢고 찢주어야 억만년 장생을 얻는것이요, 그대로 두어 꽃만 피게 하면 곧 죽어 버리는것이다.

통기와 동각잡기(우리 나라 고전 《대동야승》 중의 일부) 태종(조선 3세 임금)조에 강릉 대관령 이란곳에 있는 대가 결실하고는 죄다 망하였고 또 지리산의 대도 그러하였드라는것이 쓰여 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볼것인가? 나는 이 꽃을 영화에 비하고 싶다. 장생하는 《대》라도 영예를 맛보는 때엔 불과 일생이 70년이라오!

인생 70이란것도 진실로 그 영예를 탐하는때문 이든가?

제 몸을 버이면은
길이길이 살것이
영예를 탐하오면
고대 죽고 말것이
진실로 제 몸 곳 모르면
장생할가 하노라

그렇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대》앞에 나아가 배우라. 지금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러할줄 모르는고! 진부라 웃지 말고 대의 유일한 기백인 특절을 영원히 찬송할진저.

(1933년)

고전시

고을아전

김니 (1540~1622)

김복련 역

학은 다리 길고 오리는 다리 짧아도
다 같은 새의 무리요
오얏꽃은 하얗고 복숭아꽃 빨갛지만
다 같은꽃의 종류라

고을아전도 다 같은 관리이건만
벼슬이 천하다고 관청에선 늘 욕설만 해대니
흰 갈매기 바다로 가듯이,
차라리 백성되어 밭갈기만 못하여라

아이를 키우며

럼형미

처녀시절 나 홀로 공상에 잠길 때머는
무지개 웃는 저 하늘가에서
날개 돋혀 훨훨 나에게 날아 오던 아이
그 애는 얼마나 곱고 튼튼한 사내였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나에게 생긴 아이는
눈이 크고 가냘픈 총각애
총 쏜 머리칼타인듯 머리는 무거워 보여도
물푸레아지인양 매출한 두다리
어방없이 날쌔 장난꾸러기입니다

유치원에서 돌아 오기 바쁘게
고삐 없는 새끼염소마냥
산으로 강으로 내닫는 그 애를 두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나를 탓합니다
다른 집 애들처럼 붙들어 놓고
무슨 재간이든 배워 줘야 하지 않는가고

그런 때면 나는 그저 못 들은척
까맣게 탄 그 애 몸에 비누거품 일구어 댕니다
뒹뒹니까 그 애 하는대로 내버려 두는데

정다운 이 땅에 축구공마냥 그 애 맘껏 뒹구는데

눈 올 때면 눈사람도 되어 보고
비 올 때면 꽃잎마냥 비도 흠뻑 맞거라
고추잠자리 메뚜기도 따라 잡고
따끔따끔 쓸췌기에 찢려도 보려무나

푸르른 이 땅 아름다운 모든것을
백지같이 깨끗한 네 마음속에
또렷이 소중한 새겨 넣어라
이 엄마 너의 심장은 낳아 주었지만
그속에서 한생 뜨거이 뛰어야 할 피는
다름 아닌 너자신이 만들어야 한단다

네가 바라보는 하늘
네가 마음껏 뒹구는 땅이
네가 한생토록 안고 살 사랑이기에
아들아, 엄마는 그 어떤 재간보다도
사랑하는 법부터 너에게 배워 주련다
그런 심장이 가진 재능은
지구위에 조국을 들어 울리게...

미술전람회

(로씨야) 웨. 웨. 베레싸예브

정은 역

미술전람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번에도 역시 높은 예술적기교로 두 번에 걸쳐 월계관을 쓴바 있어 시는 물론 온 나라, 온 세상 멀리까지 명성을 날린 미술가가 단연 우승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본인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자기의 젊은 제자인 예진레이크의 훌륭한 재능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였기때문이다.

미술전람회와 관련한 국민회의결정을 공포하는 관리는 격식대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미술전람회요강들을 정중하게 낭독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해가 지난 다음 포도가 무성해 질 때까지 절대적이라 할수 있는 미인을 작품으로 형상하여야 하는데 전체 국민들의 평가에 따라 우승한 미술작품은 누구나 멀리에서도 볼수 있게 광장중심에 걸어 놓게 된다는것이였다.

도시중심에 위치한 십자거리 광장에서 이처럼 미술전람회요강이 발표되고 있는 바로 그 시각 2중월계관수상자는 려행모자에다가 배낭을 지고 손에는 대추나무지팡이를 든채 도시를 떠나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날리며 포도밭을 따라 아득히 뻗은 길로 걸음을 옮기는 그의 사색적인 눈에는 어지간히 수심의 빛이 어려 있었다. 이 세상을 몽땅 뒤져서라도 어떻게 하나 가장 아름다운 녀인을 찾아 내어 자기의 작품을 완성하리라 굳게 마음 먹었으나 어쩔수없이 갈마드는 불안감으로 마음은 저으기 무거웠던것이다.

포도밭울타리너머 초막옆에서 도끼로 느릅나무토막을 패던 청년 하나가 먼발치에서 걸어 오는 미술가를 보자 얼른 허리를 펴고 얼굴에 내리드러운 고수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며 반색을 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유쾌한 목소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 늙은이에게로 날아 갔다.

《오, 자넌가.》

2중월계관수상자도 자기가 늘 마음속으로 사랑해 온 제자를 알아 보고 반갑게 인사를 받았다.

《어데 먼 길을 떠나시는가 보군요. 이렇게 모자를 쓰시고 배낭을 지신데다 두꺼운 소가죽장화를 신으신걸 보면 말입니다. 그래 어데로 가시는 길입니까?》라고 물은 청년은 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잡아 끌었다. 《떠날 땐 떠나시더라도 잠깐 우리 집에 들렀다가 가십시오. 아버지가 선생님과 함께 마시라고 좋은 술을 마련했으니

가요. 그러니 선생님의 행차를 축원해서 드십시오.》

그러자 2중월계관수상자는 쾌히 응했다.

《고맙네. 자네 말대로 하세!》

예진레이크가 날이 선 도끼를 나무토막에 박고 는 웨쳤다.

《조리까, 술을 가져 오오. 치즈와 포도도... 우리 집에 귀한분이 오셨소.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오시단 말이요!》

두사람은 검은 포도송이들이 드리워 저 머리위에 짙은 그림자를 그린 초막마당에 앉았다. 이윽고 조리까가 선망어린 눈길로 명화가를 바라보며 포도주 한병에다가 치즈와 포도 그리고 빵을 담은 접시를 상우에 가져다 놓았다.

예진레이크가 물었다.

《어데로 가실 생각입니까. 선생님?》

2중월계관수상자가 이상한듯 눈을 치뜨며 잔을 든 손을 내리웠다.

《혹시 지네가 시광장에서 선포되는 소식을 모르고 있는건 아닌가?》

《물론 알지요.》

《하다면... 설마 미술전람회에 참가할 생각이 없는건 아닐테지.》

《왜 그럴겠습니까. 전 꼭 참가합니다. 아마 이번 미술전람회가 간단치 않을겁니다. 헌데 선생님, 이번 미술전람회에서는 부득불 선생님과 맞서게 되리라는 예감이 드는군요. 용서하십시오. 선생님께 죄되는 일인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참다운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웁은 말이네. 이번 미술전람회야말로 정말 험치 않을걸세. 나 역시 자넨 누르기가 용의치 않다는걸 잘 아네. 그래 언제쯤 떠날텐가?》

《가긴 어데로 간단 말입니까?》

《어데로라니? 아름다운 녀인을 찾아 가지. 그런 미인은 어데건 있겠으니 꼭 찾게 될걸세. 거만한 공주든 산골의 양몰이군처녀든 그리구 용감한 어부집 처녀든 포도원주인의 암전한 딸이든 꼭 나타날테니까.》

그제서야 예진레이크가 느슨히 웃음 지으며 말한다.

《전 이미 찾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뛴뛰기 시작한 2중월계관수상자의 불편이 가늘게 떨렸다. 진실한 대답이기를 바라는 않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미인이 어데 있나?》

《조리까지요!》

예진레이크가 자기의 애인인 조리까를 가리켰다. 더없이 진지한 그의 눈길은 방금 한 말이 결코 룡담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었다.

했으나 2중월계관수상자는 진중한 눈길로 제자의 얼굴을 다시금 살펴 보았다.

《조리까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늙은 화가의 가슴은 인차 안정되었고 불편도 더이상 떨리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애뜻한 정이 그 순간 새삼스럽게 되살아 남을 느끼며 그는 정색해서 입을 열었다.

《이보라구. 자네 애인은 참말로 사랑스럽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도 없지. 누구의 목이든 저 희디흰 팔로 그리안는다면 또 누구든 조리까의 저 매혹적인 품에 안긴다면 그 사람은 더 없는 행복의 소유자임이 틀림 없네. 하지만 생각해 보게. 조리까가 과연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일까?》

《조라까야말로 제일 가는 미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리까보다 더 아름다운 녀잔 없단 말입니다!》

예진레이크가 흥분하여 말했다.

2중월계관수상자는 잠깐 머리를 기웃거렸다. 혹시 재능 있는 제자가 그 어떤 알지 못할 수를 써서 이 경험 많은 스승을 감쪽같이 속여 넘겨 보려는것일까, 아니면 포도밭의 짙은 그늘 밑이라 조리까의 모습에서 뭔가 찾아 보아야 할것을 자기가 놓쳐 버린건 아닐까?

그리하여 그는 심사라도 하듯 눈을 쪼프리고 조리까의 모습을 잔잔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뜯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눈 여겨 살펴야 그는 매우 평범한 그리고 그 어디에 가서든지 수없이 맞다들수 있는 보통 녀자였다. 너부죽한 얼굴, 어딘가 성글어 보이는 이발, 가운데로 기운듯 한 한쌍의 커다란 눈이 귀엽성스럽기는 하나 별다른 특징은 느껴 지지 않고...

그렇다. 조리까야말로 열정적인련인의 눈에나 돋보이는 미인임이 틀림 없다!

속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스승은 얼굴에 지은 정색한 빛을 허물지는 않았다. 속생각을 전혀 내색하지 않은채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네가 옳을수도 있지. 그런즉 자네 행운아일세. 나라는 사람은 오래동안 먼 곳을 돌아 다니며 고심해야 맞다들수 있는 미인을 바로 옆에서 찾았으니 말일세... 하여튼 축하하네. 그리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네!》

다시 길에 나선 2중월계관수상자의 입에서는 후련한 긴 숨이 새어 나왔다. 가장 큰 우려를 잡아 내던 《적수》가 사랑에 빠져 눈이 어두워 졌

으니 길은 이미 트인 셈이었다. 허리를 곧추 편 채 늙은 화가는 말라 버린 시내물바닥에 깔려 있는 조약돌을 밟으며 지름길을 따라 씩씩 씩씩 걸음을 옮겨 갔었다.

2중월계관수상자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시골에서 저 시골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가고 또 갔다. 자연이 줄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가장 완벽하게 지닌 미지의 아름다운 녀인을 찾아 피곤을 무릅쓰고 걷고 또 걸었다. 그러자니 포도원이나 어부의 초막에도 들러야 했고 시장이나 귀족들의 별장은 물론 동방 제왕들의 궁전에도 들러야 했다.

사람들은 유명썩한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황망히 대문을 활짝 열면서 따뜻이 맞아 주었고 귀빈으로서의 환대도 서슴없이 베풀어 주곤 하였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기가 바라는 그런 미인을 찾지 못했다.

바람 세찬 계절이 한창인 어느 날 외국의 어느 한 성문결에서 아름다운 동방의 공주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눈에 띄자 걸음을 멈춘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를 뜯어 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을 더듬었다.

《저 공주가 혹시?》

그러나 다음 순간 생각을 돌린 그는 단호하게 가던 걸음을 계속 내디었다.

《그래도 혹시?... 아니, 저 녀잔 아니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캄캄한 밤에 보이는 반디불과 같은거야.》

그는 혼자소리론 중얼거렸다. 《깊은 밤 숲속에서 뭔가 반짝이는것을 보았을 때 《가만, 저게 혹시 반디불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땐 벌써 그 빛은 전혀 무의미한것이지. 그것은 어둠속에서 작은 돌멩이나 밀립속 이슬 머금은 락엽에 달빛이 반사된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어둠속에서 참말로 반디별레의 밝은 빛이 나타났다고 할때에는 순간의 서슴도 주저도 없이 <바로 저것이다!> 라고 걱정도 넘쳐 웨칠것이다!》

하루하루 세월은 멈춤이 없이 흘러 갔다. 날마다 바다우를 휩쓸던 폭풍계절도 어느덧 지나가고 상수리나무에서는 잎이 떨어 지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낮아 진 해빛이 시골농가창문을 통해 방안 깊숙한 곳까지 스며 들었다. 그런가 하면 짙은 안개가 추워 진 바다우를 뒤덮었고 흰 눈이 내려 쌓인 산골짜기로는 찬바람이 쇄쇄 소리를 내며 몰아 쳤다. 이런 속에 날과 날이 흘러 가자 해가 또다시 높아 졌다. 날밝기전에는 산 뒤쪽에 어김없이 떠 있던 사람별자리가 자기의 《화살표》를 밝은 전갈별자리의 뒤등과 마주했다. 날씨가 퍼그나 따뜻해 졌던것이다.

그러나 2중월계관수상자가 이어 가는 교생스러운 행로는 여전했다.

비단향땃이꽃이 피는 계절이 왔다. 어느 한 바

다가에 이른 그는 모래기슭에서 밤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양젓치즈 한덩이와 말라서 굳어 진 빵조각을 먹고 난 그는 모래를 파서 대충 만든 잠자리에 누웠다.

피로가 겹쌓이면서 요사이 더욱 잦아 지군 하는 절망감이 또다시 스며 들기 시작했다. 자기가 찾으려는것을 끝내 찾지 못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에게는 그런 미인을 가려 볼수 있는 안목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못 견디게 가슴속을 파고 들었던것이다.

문득 산골짜기에서 불어 오는 포근한 바람을 타고 실려 오는 비단향덩이꽃향기가 새삼스럽게 느껴 졌다. 숲의 이르는곳마다에 그꽃들이 방석 마냥 뒤덮여 자라고 있던 전경도 금시 눈앞에 펼쳐 진듯 했다. 방금전 봄빛이 무르녹은 산골짜기 오솔길로 그 향기는 물론 아름다운 그곳 경치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바다기슭까지 걸어 온 그였다. 그런데 저녁어둠이 바다와 산골짜기를 온통 덮고 있는 지금에 와서 순결하고 청신한 그 향기가 비로소 안겨 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가까운 곳에서는 더없이 그윽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안겨 올 그 향기가...

그런즉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너라는 인간이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뒤로 자취를 감추고 정작 마주 선다 하여도 그런 느낌을 받을수 없는것이란말인가.

하다면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참된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어떤것인가? 도저히 리해할수도 영원히 마주 할수도 없는 그야말로 대자연계에서 자기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수 없는 극히 추상적이고 신화적인것이란 말인가? 가슴 쓰리도록 이런 생기를 끝없이 좇고 있던 2중월계관수상자는 끝내 모래로 쌓은 배개우에 와락 얼굴을 묻고 말았다.

머리속에는 환영처럼 존재하면서도 좀처럼 그려볼수 없는 신비스러운 선과 색채가 조화된 리상적인 작품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형상해 낼수 없다는 좌절감과 치욕감이 사무치게 느껴 졌던것이다.

끝 없는 번뇌속에 시달리던 그는 마침내 거친 만토속에 얼굴을 묻은채 잠들고 말았다. 파도가 여전히 처절썩거리며 가볍게 기슭을 쳤고 산골짜기쪽에서는 의연히 비단향덩이꽃향기가 실린 싱그러운 바람이 술술 불어 와 잠든 2중월계관수상자를 어루만졌다.

그는 금노을이 된 하늘과 맞붙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을 때 깨여 났다. 부드러운 빛을 받아 바다가기슭 잠관목숲들도 희끄무레 자태를 드러냈다. 마침내 광명이 어둠을 밀어 낸것이다.

얼마 안 있어 바다끝에서 연기란 전혀 찾아 볼수 없는 모닥불이 타오르는듯 하더니 해가 천천히 솟아 오르며 일시에 대지를 금빛으로 물 들였

다.

그러자 해빛을 받은쪽은 더없이 밝아 졌고 그늘진 쪽은 방금전보다 더 어두워 진듯 했다.

아직도 어둠속에 잠겨 있는 컴컴한 산으로 눈길을 돌리던 늙은 화가의 몸이 문득 굳어 졌다.

그 산앞의 해빛을 함뿍 들뜬 구름우에서 비단향덩이꽃갓을 쓴 암전스런 처녀가 조용히 걸어서 내려 오고 있는것이 눈에 띄었던것이다.

순간 격동이 극도에 이른 2중월계관수상자는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내심 환성을 질렀다.

《바로- 저 너자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은 늙은 화가는 미친듯 한 기쁨에 넘쳐 그리고 경건히 아름다운 처녀를 향해 두팔을 펼쳤다.

어느덧 포도가 주렁진 계절이 왔다. 인산인해를 이룬 광장 안쪽에는 크기가 꼭 같은 그림판 두개가 천에 가리워 진채 세워져 있었다. 두 그림판옆에는 2중월계관수상자와 예진레이크가 각각 서있었다. 자신에 넘쳐 있으면서도 진중한 빛을 띠고 있는 2중월계관수상자의 모습을 숭상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군중들에게는 예진레이크가 미남자이기는하나 해빛에 그슬린 얼굴에 저오기 락심해하는 빛이 어려 있는듯이 보였다.

《예진레이크, 그렇게 명청히 서 있다가 망신일랑 하지 말고 썩 사라져 버리게. 그 졸작을 가지고 말일세.》

누군가 빈정거리며 웨치자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흰 이발을 드러내며 웃음을 보인 예진레이크는 말없이 곱슬머리를 가로 젓는것으로 대답했다.

잠시후 머리에 금관을 쓰고 살색비로도두루마기를 입은 관리 하나가 나타나 상아로 만든 곤봉으로 종을 때렸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조용해 졌다. 이윽고 관리가 상아곤봉을 쳐들며 2중월계관수상자의 그림판을 가리켰다. 그러자 그림판을 가리웠던 천이 스르르 벗겨 지면서 땅에 떨어 졌다.

순간 해빛에 함뿍 잠긴 비단향덩이꽃갓을 쓴 아름다운 처녀가 산봉우리에서 내려 오는 모습이 사람들앞에 펼쳐 졌다. 처녀의 뒤에는 대조적으로 아직 해빛이 비치지 않은 험준한 산발이 칙칙하게 서 있었다. 사람들이 와짝 떠들었으나 그것은 순간이었다.

갑자기 광장에 초여름날 숲속의 고요가 스며든듯 쥐 죽은듯 조용해 졌다.

처녀가 외로이 선채 한쌍의 커다란 눈으로 군중들을 마주 보고 있었다.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뒤 아침의 청명한 하늘처럼 더없이 맑은 눈이었다.

누구도 세상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절세의 미인이었다.

너무나도 눈 부신 모습이어서 마치 바다위로 금시 솟아 오르는 해를 보는것 같아 마주 보기조차 저어했다. 뿐만아니라 작품에는 아직까지 남자의 존재를 가까이 하지 않은듯 한 순결한 육체가 가는 천필으로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인에 대한 그 어떤 정욕 같은건 애당초 느끼지 못한채 때 아닌 서글픔에 잠겨 멍청히 바라보기도 하고 경건히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아름다운 처녀의 뒤에 우중충 서 있는 산발들은 광장을 몹시 어둡게 했다. 그야말로 절대적이라 할수 있는 미인앞에서 너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얼굴을 떨어 뜨렸고 남자들은 꽃갓을 쓴 아가씨와 자기의 애인들을 번갈아 보면서 머리를 긁적거렸다. 저렇듯 평범한 얼굴, 너무나도 흐리멍덩한 눈길과 볼품 없는 몸매... 그들의 눈에는 자기가 과연 저런 녀자의 무엇을 보고 그토록 반했었던가 하는 실망의 빛이 그대로 어려 있었다.

노새털처럼 굵직한 수염이 더북룩이 돌아 난령감이 원망어린 빛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눈을 쪼프리며 옆에 선 마누라를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볼풀없이 뚱뚱한 몸에 아래로 내리 처진 턱, 멧없이 부풀어 오른듯 한 앞가슴과 남새떡잎 같은 얼굴, 여기저기에 찍혀 있는 갈색점들이 새삼스레 눈에 띄자 령감은 다시금 꽃갓을 쓴 처녀와 자기 마누라를 번갈아 보았다. 아름다운 용모에 대한 갈망이 신바닥처럼 거칠고 메마른 마음속을 찢른듯 그의 미간이 찌프러 졌다. 보잘것 없는 자기와 같은 존재는 저렇듯 아름다운 녀인과는 그 어떤 인연으로도 도저히 마주 설수조차 없다는 서글픔이 가슴속을 아프게 했던것이다.

그림속의 미인을 마주한채 경건히 그리고 오래도록 묵묵히 서 있던 사람들이 차츰 낮은 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잠자코 의자에 앉아 있던 갈색비로도두루마기를 입은 관리가 다시 일어 섰다. 그의 얼굴은 자못 장중하고 엄엄했다. 그 어떤 경멸을 당하기라도 한듯 그가 상아곤봉으로 두번째 화폭을 단호하게 가리켰다.

가림천이 내려 졌다.

순간 비난이라기보다 분노에 가까운 불만의 목소리가 온 광장을 차고 넘쳤다. 각시 낀 두손으로 무릎을 안은채 등받이가 없는 걸상에 앉아 약간 앞으로 내민듯 한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작품속의 인물은 조리까가 아닌가.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으며 에전레이크가 이토록 철면피할수 있을까 하고 비난들을 했다.

그렇다. 화폭의 주인공은 바로 조리까였다. 매일 아침 송어 대어섯마리와 마늘 몇개를 담은 바구니를 든채 시장에서

돌아 오군 하던 조리까가 틀림 없었다. 바로 저 조리까가 늘 교외에 있는 자기네 포도밭에서 김을 땀고 양젖을 짜군 했으며 지금은 저렇듯 무릎을 그러안고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조리까의 뒤배경에는 반나마 무너진 담벽과 초막문틀, 머리위로 드리운 푸르고 불그레한 포도잎과 그사이로 조화롭게 달려 있는 옥과 같은 목직한 포도알들 그리고 해빛을 받아 훈훈한 감을 주는 포도그늘, 이것이 작품에 반영된 내용의 전부였다. 조리까가 형상된 화폭은 2중월계관수상자가 그린 그림처럼 10메터는 되고도 남을만치 컸다.

《산처럼 크게 그랬다고 해서 명화가 될가?!》

비틀어 진 목소리가 한마디 터져 나왔다.

비웃음소리, 휘파람소리, 한숨소리...

마침내 누군가의 입에서 부르짖음 같은 웨침소리가 튀어 나왔다.

《돌맹이로 저 너절한 그림을 쳐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호응했다.

《쳐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극도에 치달은듯 하던 고함소리는 더 커지지 못하고 점차 사그라졌다.

고아 대던 사람도 비웃던 사람도 하나, 둘 입을 다물었고 금시 돌맹이를 집어 들었던 사람도 손을 내리웠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쥐 죽은듯 조용해 졌다. 마치도 갑자기 산우에서 불어 온 세찬 바람이 마구 회오리치고 태질하며 먼지를 휘말려 울렸으나 인차 땅속으로 가뭇없이 잦아 든듯 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조리까를 보고 조리까 역시 그들을 보고 있었다. 한 청년이 멧적기라도 한듯 어깨를 으쓱하며 옆에 선 친구에게 한마디 건넸다.

《자네도 알지. 난 여직껏 조리까가 저렇게 미인인줄은 몰랐네. 자네 보기엔 어떤가?》

그 친구 역시 사색 깊은 어조로 조용히 응수했다.

《자네 말이 옳아. 참말 이상하거든. 우리가 조리까를 얼마나 많이 보아 왔나.》

조리까는 귀를 기울이며 미간을 약간 곤두세운 채 앞을 바라보고 있다. 입가에는 한가닥 알릴듯 말듯 잔 미소가 어려 있고 그 어떤 생각지 않던 행복이 도래한듯 눈에는 수집음에 가득찬 두려움과 어리둥절해 하는 빛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공포와 어리둥절한 느낌을 고집스럽게 저항하고 있다. 크나큰 걱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앞쪽으로 약간 내밀고 있는 몸에서는 그 어떤 환희가 차고 넘친다.

마치도 여직껏 자기를 남 몰래 사랑해 온 사람이 문득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조리까, 난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속삭이는 말을 듣고 있는듯싶다.

모두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까만 송어와 흰 마늘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던 조리카의 얼굴이 약간 너부죽하고 눈이 약간 기울었었다는것을 여직껏 몰랐다.

하지만 실사 그가 가난한 유목민의 딸처럼 실눈이거나 안장코였던들 어떠하랴. 그 무엇에도 견줄수 없는 신성한 아름다움은 크나큰 견인력으로 보면 볼수록 더욱더 가슴 저리게 만드는데야...

해가 광장을 비치듯 화폭에서 흘러 넘치는 환희감은 주위를 전에 없이 환하게 해주었다.

작품을 마주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자기의 련애시절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잊을수 없는 추억이 되살아 났다. 바로 조리카의 그 부드러운

모습에서 남 몰래 애인을 만났을 때 폐부로 절감한 최초의 순결함과 심장깊이 매혹되었던 끝없

이 소중한 아름다움을 찾아 보았던것이다.

노새털수염령감의 그늘 졌던 얼굴은 어느새 밝아 졌다. 그는 병글병글 웃으며 시든 나무 같은 팔꿈치로 마누라의 옆구리를 슬쩍 건드렸다.

《기억나오?... 으흐흐... 우물옆에서 말ियो?

마누란 양에게 물을 먹이고 난 울바자쪽에서 달려오고... 그땐 초생달이 산우에 걸리고 오얏꽃이 한창 피는 계절이었지...》

계면쩍어도 시종 마누라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던 령감은 드디어 부어 오른듯 하면서도 까칠해진 그의 얼굴에서 조리카와 같은 생신함을 엿본듯 더러워진 손으로 눈썹과 범벅이 된 눈물을 닦으며 허허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가 온 광장에 대고 맨션참으로 웨쳤다.

《세번째 월계관은 마땅히 예진레이크의것이 되여야 하되다!》

토막상식

하늘의 높이와 지구의 두께

하늘의 높이는 얼마인가?

과학자들은 일찌기 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상세한 관측을 진행하였다. 그들이 지면에서부터 8.6km 되는 고공에 올라 갔을 때 하늘은 줄곧 푸르렀고 10.8km 의 고공에까지 올라 갔을 때는 검푸른색, 13km 의 고공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붉은색을 띠었으며 18km 이상 되는 곳에 올라 갔을 때에는 공기가 희박하면서 빛이 탈산되지 못하고 하늘이 온통 어둑컴컴하였다. 따라서 지

면에서부터 푸른 하늘까지의 진짜 거리는 10km 밖에 안된다.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두꺼운가?

비교적 정확히 측정한데 의하면 지각의 평균두께는 17km 이고 지구적도상의 동서반경은 6,378.17km 이며 남북량극반경은 6,356.79km 이다.

남극점으로부터 북극점까지 굴을 뚫는다면 그 길이는 1만 2713.58km 에 달할것이다.